

ASAN REPORT

한국인의 일본 인식(2014~2024): “세대와 이념”을 넘어설 수 있을까?

최은미, 함건희

2025년 4월



Asan Report

**한국인의 일본 인식(2014~2024):
“세대와 이념”을 넘어설 수 있을까?**

최은미, 함건희

2025년 4월

아산정책연구원

우리 연구원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그리고 지구촌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올바른 사회담론을 주도하는 독립 싱크탱크를 지향합니다. 특히, 통일-외교-안보, 거버넌스, 공공 정책-철학 등의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여 우리가 직면한 대내외 도전에 대한 해법을 모색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및 번영을 위한 여건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외교와 유관 분야 전문가를 육성해 우리의 미래를 보다 능동적으로 개척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이 아닌 저자의 견해입니다.

저자

최은미

최은미 박사는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후,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미국 미시간 대학교와 일본 와세다 대학교에서 방문연구원, 외교부 연구원,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연구교수로 재직하였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한일관계 TF 외부위원, 외교부 강제징용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였고, 현재 국가안보실, 외교부, 국방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한일의원연맹, 한일미래파트너십재단,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자문위원이다. 한일포럼 한국 측 대표단, (사)SETO포럼 기획위원장, 현대일본학회 총무이사로도 활동하며, 연세대, 고려대, 한국외대 등에서 강의한다. 주요 연구 및 관심 분야는 일본 정치외교, 한일관계, 동북아 다자협력 등이다.

관련 연구로는 “일본의 대한민국 공공외교와 한일관계 - 한일인적 교류 천만 시대의 딜레마(2024)”, “한일 인적 교류 내실화를 위한 소고(小考): 통계적 착시를 넘어(2023)”, “한일교류 천만시대의 착시 현상: 접촉이론을 통해 본 한일교류의 현황과 과제(2022)”, “한국과 일본, 우리는 서로에게 무엇인가: 한국과 일본의 상호인식과 한일관계(2021)”, “人的交流は国際認識を変えるのか-日中韓大学間交流プログラム「キャンパス・アジア」の試み-(2021, 공저)” 등이 있다.

함건희

함건희는 아산정책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이다. 2015년 아산정책연구원에 합류한 이후, 시나리오 기반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공공데이터 분석, 여론조사 분석 등을 통해 외교·안보 정책 의사결정에 도움될 수 있는 계량 분석(Quantitative Analysis) 연구를 수행해왔다. 참여 연구로는 “한국인의 일본인식(2014~2024): “세대와 이념”을 넘어설 수 있을까?”(2025), “전염병 모델과 COVID-19”(2020), “Exploring Possibilities: Minimum Number of Inspections Required to Detect a Violation in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2018), “한국 민방위 대피시설의 적절성 평가”(2018), “시뮬레이션 기법을 통한 미사일 방어체계 효과 분석”(2017) 등이 있다. 이처럼 사회과학과 계량 분석의 융합 연구를 실제로 수행하며 체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건국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홍익대학교 등에서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보다 폭넓은 시야로 학문을 바라볼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고려대학교 정보수학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에서 통계학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동 대학원 통계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목차

I. 연구배경	08
II. 한국인의 일본 인식 여론조사(2014~2024): 일본에 대한 호감도	10
1. 성별에 따른 일본에 대한 호감도 변화	13
2. 연령에 따른 일본에 대한 호감도 변화	19
3. 성별과 연령에 따른 일본에 대한 호감도 변화	27
4. 이념 성향에 따른 일본에 대한 호감도 변화	38
5. 성별, 연령과 이념 성향에 따른 일본에 대한 호감도 변화	45
6. 일본과 주변국에 대한 호감도의 상관관계	61
III. 분석 및 함의	68
1. 한국인의 대일 인식: '세대'와 '이념'의 기로에서	68
2. 연구의 의의 및 후속 연구의 필요성	86
IV. 향후 전망 및 정책적 고려사항	87
별첨	92
1.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조사 개요	92
2. 한일관계 주요 일지(2014~2024)	100
참고문헌	111

그림

[그림 1]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호감 및 비호감 비율 변화	10
[그림 2]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호감 비율 변화(상세)	11
[그림 3]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비호감 비율 변화(상세)	12
[그림 4] 성별에 따른 일본에 대한 호감도 응답 변화	13
[그림 5] 성별에 따른 일본에 대한 호감도 응답 차이에 대한 t-검정	15
[그림 6] 2015년 2월과 2019년 7월 성별에 따른 일본에 대한 호감도(한국갤럽)	17
[그림 7] 연령에 따른 일본에 대한 호감도 응답 변화	19
[그림 8] 연령에 따른 일본에 대한 호감도 응답 차이	20
[그림 9] 일본에 대한 세대별 긍정 인상 변화(동아시아연구원)	25
[그림 10] 연령에 따른 일본에 대한 호감도 변화(한국갤럽)	26
[그림 11] 남성의 연령에 따른 일본에 대한 호감도 응답 변화	28
[그림 12] 여성의 연령에 따른 일본에 대한 호감도 응답 변화	28
[그림 13] 성별에 따른 연령대별 일본에 대한 호감도 응답 분포	29
[그림 14] 시기별 연령대에 따른 남성과 여성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 응답 분포 변화	31
[그림 15] 이념 성향에 따른 일본에 대한 호감도 응답 변화	39
[그림 16] 보수 성향과 진보 성향 간 일본에 대한 호감도 응답 차이에 대한 t-검정	43
[그림 17] 남성의 이념 성향에 따른 일본에 대한 호감도 응답 변화	46
[그림 18] 여성의 이념 성향에 따른 일본에 대한 호감도 응답 변화	47
[그림 19] 남성 보수 성향의 연령에 따른 일본에 대한 호감도 응답 변화	50
[그림 20] 남성 진보 성향의 연령에 따른 일본에 대한 호감도 응답 변화	50
[그림 21] 시기별 이념 성향에 따른 남성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 응답 분포 변화	52
[그림 22] 여성 보수 성향의 연령에 따른 일본에 대한 호감도 응답 변화	56
[그림 23] 여성 진보 성향의 연령에 따른 일본에 대한 호감도 응답 변화	56
[그림 24] 시기별 이념 성향에 따른 여성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 응답 분포 변화	58
[그림 25] 일본과 주변국(미국, 중국, 북한)에 대한 호감도 응답 변화	61
[그림 26] 일본과 미국의 호감도에 대한 산점도와 회귀분석 결과	63
[그림 27] 일본과 중국의 호감도에 대한 산점도와 회귀분석 결과	65
[그림 28] 일본과 북한의 호감도에 대한 산점도와 회귀분석 결과	66

표

[표 1] 2019년 8월 성별에 따른 일본에 대한 호감도 간 교차표	16
[표 2] 성별에 따른 일본에 대한 호감도 응답 차이 변화(상세)	18
[표 3] 2023년과 2024년 남성과 여성의 대일 호감도(한국리서치)	19
[표 4] 2018년 6월과 2019년 8월 연령에 따른 일본에 대한 호감도 응답 변화	21
[표 5] 연령에 따른 일본에 대한 호감도 응답의 범위와 표준편차	23
[표 6] 2019년 8월과 2024년 4월 연령에 따른 일본에 대한 호감도 응답 변화	23
[표 7] 2023년 3월과 2024년 4월 연령에 따른 일본에 대한 호감도 응답 변화	24
[표 8] 2019년 8월과 2024년 4월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일본에 대한 호감도 응답 변화	29
[표 9] 시기별 연령대에 따른 남성과 여성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 통계량	32
[표 10] 성별과 연령에 따른 일본에 대한 호감도 응답 변화 (2018.6, 2019.8, 2024.4)	33
[표 11] 한일관계 악화 기간 연령대별 남성과 여성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 응답 변화	35
[표 12] 한일관계 개선 기간 연령대별 남성과 여성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 응답 변화	35
[표 13] 연령대별 남성과 여성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 응답 차이 (2018.6, 2019.8, 2024.4)	37
[표 14] 이념 성향에 따른 일본에 대한 호감도 응답의 범위	39
[표 15] 한일관계 악화 기간 이념 성향에 따른 일본에 대한 호감도 응답 변화	40
[표 16] 한일관계 개선 기간 이념 성향에 따른 일본에 대한 호감도 응답 변화	40
[표 17] 2019년 8월과 2024년 4월 이념 성향에 따른 일본에 대한 호감도 간 교차표	41
[표 18] 2023년 3월과 2024년 4월 이념 성향에 따른 일본에 대한 호감도 응답 변화	42
[표 19] 이념 성향에 따른 일본에 대한 호감도 응답 변화 (2018.6, 2019.8, 2024.4)	44
[표 20] 성별과 이념 성향에 따른 일본에 대한 호감도 응답의 범위와 표준편차	48
[표 21] 성별과 이념 성향에 따른 일본에 대한 호감도 응답 변화 (2018.6, 2019.8, 2023.3, 2024.4)	49

[표 22] 30대 남성의 이념 성향에 따른 일본에 대한 호감도 응답의 변화와 범위	53
[표 23] 시기별 이념 성향에 따른 남성의 연령대별 일본에 대한 호감도 응답 분포의 중심 변화	54
[표 24] 2024년 4월 남성과 여성의 이념 성향에 따른 연령대별 일본에 대한 호감도 응답 차이	57
[표 25] 시기별 이념 성향에 따른 여성의 연령대별 일본에 대한 호감도 응답 분포의 중심 변화	59
[표 26] 일본과 주변국(미국, 중국, 북한)의 방향 변화 일치율	62
[표 27] 한국의 대일 인식 변화 추이 특징(2014~2024): 연령, 성별, 이념 성향을 중심으로	71
[표 28]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일본에 대한 분야별 호감도(한국리서치)	78
[표 29] 성별과 연령에 따른 일본에 대한 이미지(한국리서치)	82
[표 30] 이념 성향에 따른 일본에 대한 이미지(한국리서치)	85

I. 연구배경

한일관계의 높은 파고(波高) 속에서도 양국의 긍정적인 내일을 기대하는 기저에는 미래 세대가 있다. 어린 시절부터 한국과 일본, 서로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하며 자란 양국의 젊은 세대들은 서로를 편견 없이 대하고, 대등하게 바라본다. 특히, 한국의 경우 경제 성장의 후발 주자로서 일본을 바라보던 기성 세대와 달리, 이미 일본과 대등하게 혹은 우위에 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자라온 세대들이 마주한 일본에 대한 인식은 기성세대와 같을 수 없다. 기성세대에게는 일본이 동경과 우려의 대상이었다면, 지금의 젊은 세대에게 일본은 자신감과 당당함 속 함께 하는 보통의 이웃국가이다. 역사문제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열린 마음으로 편견 없이 바라본다. 그래서 한일관계의 미래를 논할 때 젊은 세대들에 거는 기대가 작지 않다.

그런데 흔히 이야기하듯, “젊은 세대는 일본을, 혹은 한국을 좋아한다, 그러니 괜찮다”는 말로 간단히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일까? 그리고 여기서 젊은 세대는 정확히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또한, 그 나라의 문화를 향유하고, 음식을 즐기며, 여행을 자주 간다고 해서 그 나라를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나아가 개인적 차원의 호감도가 국가적 차원의 우호관계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일까?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2023년 3월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해법’을 제시하며,¹ 한일관계는 극적인 변화를 이루었고, 짧게는 2018년 이후 4년여, 길게는 2012년 이후 10년여의 시간을 만회하듯 빠른 속도로 양국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들이 이어졌다.² 민간 교류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2018년 인적 교류 천만 시대를 맞이했던 양국은 한일관계 악화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교류가 급속히 줄어들었으나, 2024년 11월 시점에서³ 다시 천만 교류를 넘어섰다.

-
1. 외교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문”. (2023.3.6) https://overseas.mofa.go.kr/www/brd/m_4076/view.do?seq=369840 (검색일: 2025.1.25)
 2. 최은미, 2023, 「윤석열-기시다 한일 정상 서툰외교 복원 이후의 한일관계: 의미, 전망, 과제」, Issue Brief 2023-14, 아산정책연구원, pp.1-19.
 3. 2024년 1월~11월까지 방일한국인은 7,950,315명, 방한일본인은 2,973,533명으로 이미 천만 명을 넘어섰다. - 일본관광청, “Trends in Visitor Arrivals to Japan”, <https://statistics.jnto.go.jp/en/graph/#graph--inbound--travelers--transition>; 한국관광공사, “국가별 방한관광객통계”, <https://datalab.visitkorea.or.kr/datalab/portal/nat/getForTourDashForm.do> 각 월 통계자료 합산하여 필자 정리.

이러한 가운데 시행된 여론조사를 보면, 한일 양국의 상호인식도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한국일보와 요미우리신문의 2024년 여론조사에 의하면, 상대국에 대해 친밀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은 일본 48%, 한국 33%로 해당 질문이 시작된 2013년 이래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⁴ 동아시아연구원에서 발표한 2024년 여론조사에서도 한국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41.7%로 조사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⁵ 본 원에서 시행한 2024년 4월 여론조사에서도 한국의 일본에 대한 호감 비율이 27.4%로 지난 10년간 시행한 조사 중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여기서 다시 한 번 질문이 제기된다. 한일관계 개선 속 상승한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구체적으로 어느 집단이 반응해 나타난 결과일까? 나아가 현재 상승하고 있는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일시적인 현상인가? 혹은 한국인의 대일 인식에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4년 1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본 원에서 시행한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인식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성별, 연령, 이념 성향, 그리고 주변국과의 관계 속에서 일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는 일본에 대한 단순한 호감 혹은 비호감을 넘어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를 분석해 보기 위한 시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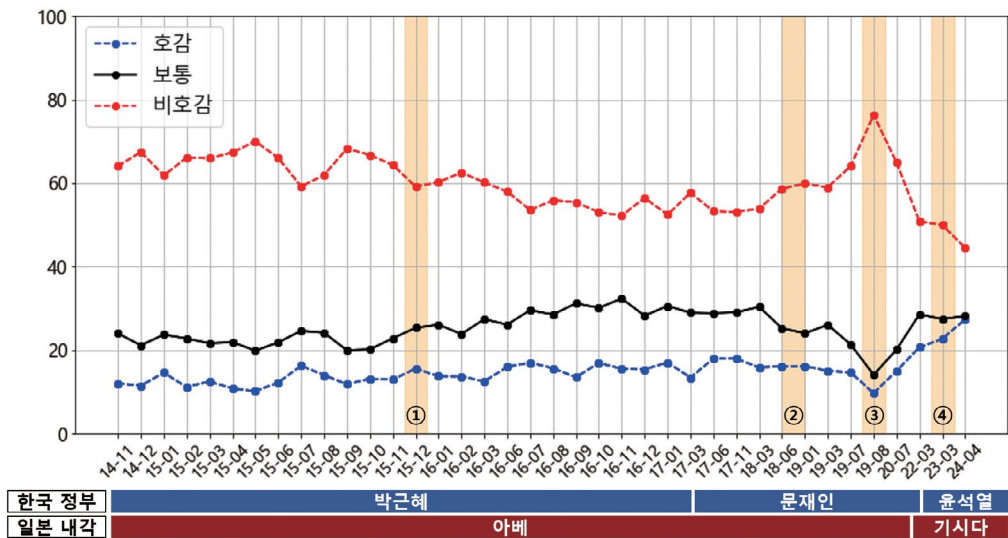
4. 매일경제. "일본인 2명 중 1명 "지금 한일관계 좋다...한국에 친밀감"". (2024.6.11) <https://www.mk.co.kr/news/world/11038572> (검색일: 2025.1.20)

5. 동아시아연구원. "국민 10명 중 4명 "일본에 호감"...조사 이래 최고 수준". (2024.9.19) https://www.eai.or.kr/new/ko/etc/search_view.asp?intSeq=22978&board=kor_eaiinmedia (검색일: 2025.1.20)

II. 한국인의 일본 인식 여론조사(2014~2024): 일본에 대한 호감도

[그림 1]은 지난 10년간⁶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호감 및 비호감 비율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조사기간 동안 일본에 대한 호감 비율이 비호감 비율을 상회한 적은 없었으며, 전체 조사기간 동안 ‘비호감’(평균 58.6%), ‘보통’(평균 24.7%), ‘호감’(평균 14.6%)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1]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호감 및 비호감 비율 변화⁷ (단위: %)



자료: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조사(2014년 11월~2024년 4월).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총리 재임 기간에는 조사가 실시되지 않아 표시하지 않음.

※ ①일본군'위안부' 한일 합의, ②강제징용문제에 대한 한국 대법원 판결과 일본 해상 초계기 저공비행(레이더 조사(照射))갈등 사건, ③일본의 수출규제와 반일시위/불매운동, ④대법원의 강제징용문제 판결 관련 해법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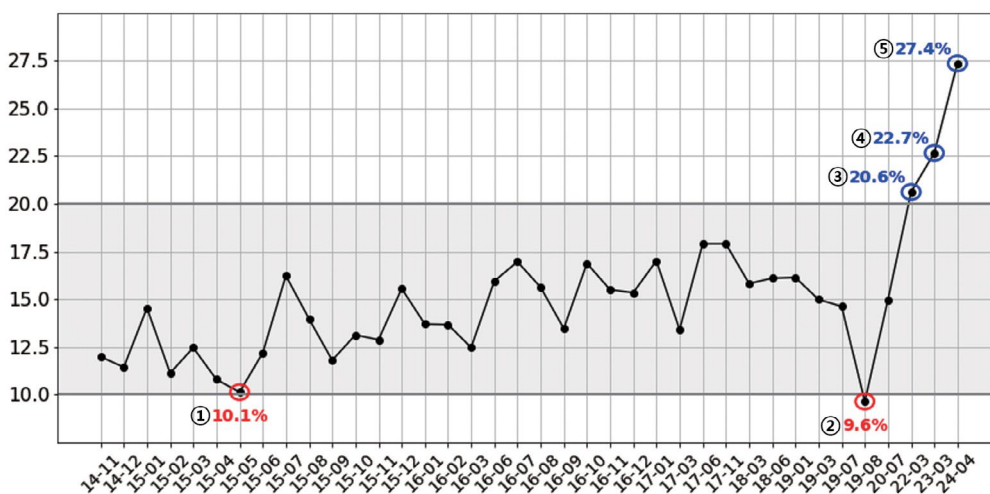
6.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 조사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3월, 2016년 6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매월, 그 이후부터는 연 1~4회 실시되었다. 조사개요는 [별첨1] 참고.

7. 호감도는 응답자에게 일본에 대한 호감도를 0점(전혀 호감 없음)부터 10점(매우 호감)까지의 수치로 응답을 받았고, 이를 활용해 5점 미만을 비호감, 5점을 보통, 5점 초과를 호감으로 변환해 응답 비율을 계산하였다.

구체적으로, 호감 비율이 가장 낮았던 시기는 2019년 8월 9.6%였고, 가장 높았던 시기는 2024년 4월 27.4%였다. 같은 시기 비호감 비율도 최고치(2019년 8월, 76.3%)와 최저치(2024년 4월, 44.5%)를 기록하였다. 한편, 2022년 3월 조사에서 처음으로 호감 비율이 20%를 넘었고(20.6%), 이후 점차 상승하여 2024년 조사에서는 27.4%까지 기록하였다. 같은 시기 비호감 비율은 2023년 3월 조사에서 50%까지 떨어지더니, 2024년 4월 44.5%까지 낮아지면서 처음으로 50% 하한이 깨졌다.

이상의 결과는 조사가 이루어진 지난 10년 중 2022년 3월 이후부터 2024년 4월까지의 기간 동안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가장 긍정적으로 변화했음을 보여준다.⁸ 이를 보다 상세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와 [그림 3]은 지난 10년간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호감 및 비호감 비율 변화를 보다 자세히 나타낸 것이다. 해당 기간 동안 호감 비율은 주로 10~20%, 비호감 비율은 50~70% 범위에서 조사되었는데(회색 음영 부분), 일부 시기의 경우, 이 범위를 벗어나 기존의 패턴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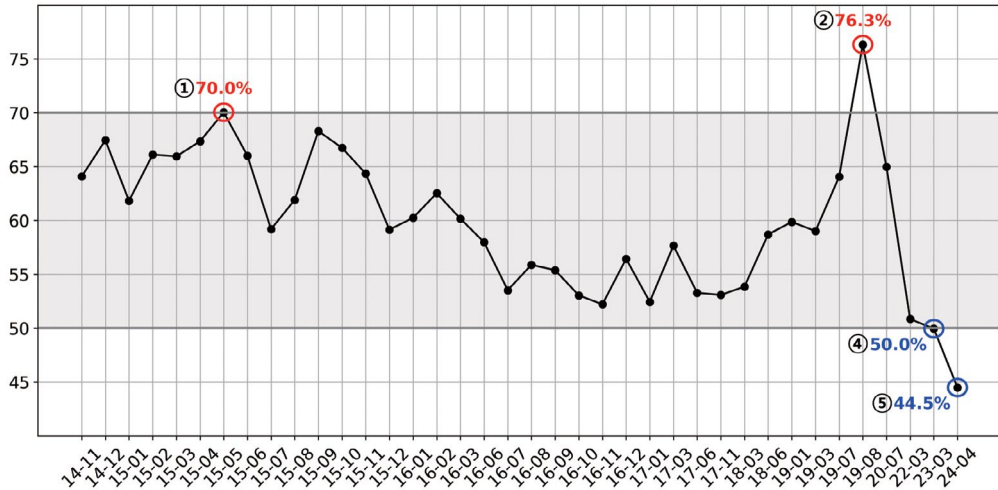
[그림 2]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호감 비율 변화(상세) (단위: %)



자료: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조사(2014년 11월~2024년 4월).

8. 2014~2024년 0~10점으로 응답된 일본에 대한 호감도 평균의 최솟값은 2.22점(2019년 8월), 최댓값은 4.18점(2024년 4월)이다.

[그림 3]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비호감 비율 변화(상세) (단위: %)



자료: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조사(2014년 11월~2024년 4월).

구체적으로, ①2015년 5월(호감 10.1%, 비호감 70.0%),⁹ ②2019년 8월(호감 9.6%, 비호감 76.3%), ③2022년 3월(호감 20.6%, 비호감 50.8%),¹⁰ ④2023년 3월(호감 22.7%, 비호감 50.0%), ⑤2024년 4월(호감 27.4%, 비호감 44.5%) 등 5개 시점인데, 이 중에서도 호감과 비호감 모두 기존의 흐름을 벗어난 모습을 보인 때는 ②2019년 8월, ④2023년 3월, ⑤2024년 4월의 세 시점이다.

그렇다면,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성별, 연령, 이념 성향, 주변국에 대한 호감도에 따라 각각 어떻게 나타날까? 또한, 기존의 흐름과 다른 양상을 보인 세 번의 시점에서는 어떠한 특징이 나타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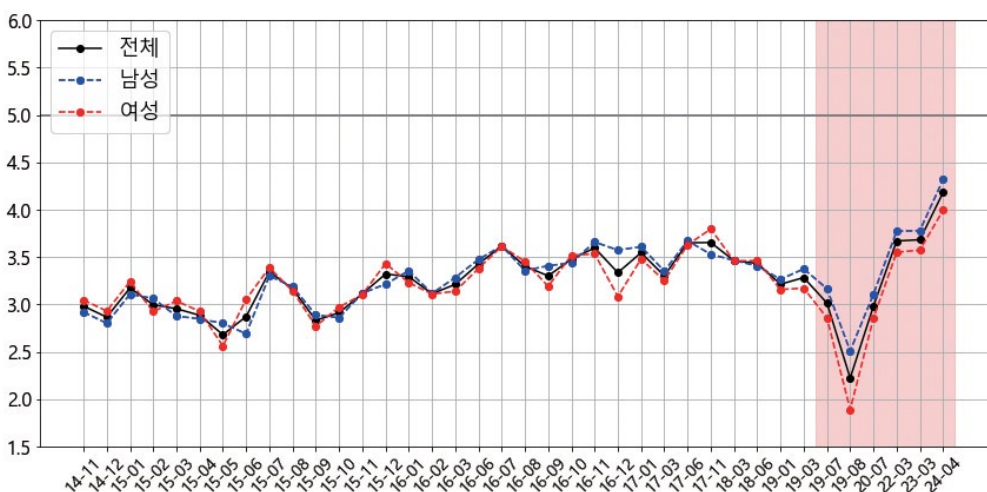
9. ①2015년 5월의 호감도, 비호감도는 제시된 범위 내에 수치가 존재하지만, 2019년 8월 이전의 시기 중 가장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고, 제시된 범위에 가장 근접한 시기로 의미가 있어 포함시켰다.

10. ③2022년 3월의 비호감도는 50.8%로 제시된 범위 내에 수치가 존재하지만, 이전의 비호감도 수치와 비교할 때, 가장 낮은 비호감도를 기록해 의미가 있다.

1. 성별에 따른 일본에 대한 호감도 변화

[그림 4]는 0(전혀 호감 없음)~10(매우 호감)점으로 응답된 결과에 대한 지난 10년간의 남성과 여성 각각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 변화를 보여준다.

[그림 4] 성별에 따른 일본에 대한 호감도 응답 변화 (단위: 점)



자료: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조사(2014년 11월~2024년 4월).

성별에 따른 인식 변화는 전체적으로 비슷한 상승과 하락의 변동 패턴을 보이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2019년 이전에는 전반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큰 차이 없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9년 7월 조사 이후부터(빨간색 음영 부분) 여성의 대일 호감도가 남성의 대일 호감도에 비해 급격하게 하락하여, 그 이후로도 줄곧 남성의 대일 호감도보다 낮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 한일갈등 국면에서 남성 대비 급격히 하락한 여성의 대일 호감도

2019년 7월은 2018년 10월 강제징용문제에 대한 한국 대법원 판결에¹¹ 대한 사실상의 보

11. 조선일보,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후폭풍…수령에 빠진 한일 관계”. (2018.10.30)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30/2018103002655.html (검색일: 2024.12.27)

복조치로¹²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이 일본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3개 품목을 수출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고,¹³ 8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강행하면서¹⁴ 이에 대한 반감으로 한국 내 일본제품 불매운동, 일본여행 보이콧 등이 일어나며¹⁵ 한일관계가 크게 요동치던 시기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강제징용문제에 대한 한국 대법원 판결(2018.10), 제주 국제관함식에서의 일본 자위대 욕일기 게양 문제(2018.11),¹⁶ 한일초계기 갈등(2018.12)¹⁷ 등 2018년 말부터 이어진 한일갈등이 2019년 7월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와 한국의 반일시위 등으로 격화되어 폭발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성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남성에 비해 급격하게 하락하였다는 것은 한일 간 부정적인 이슈가 발생할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것임을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추정, 즉 성별에 따른 일본에 대한 호감도 응답 차이가 실제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 두 집단의 응답 차이가 실제로 의미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t-검정¹⁸을 각 조사 시점별로 실시했다.

[그림 5]는 응답된 남성의 대일 호감도 평균에서 여성의 대일 호감도 평균을 뺀 값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빨간색 점(●) 표시는 남녀 간 일본에 대한 호감도 응답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p-value<0.05)가 나타난 시점이다. 먼저 2014~2018년까지는 그래프가 0 기준으로 작은 변동이 반복되며, 의미 있는 차이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12. 헤럴드경제. “반도체 불모…日, 징용판결 경제보복”. (2019.7.1) <https://biz.heraldcorp.com/article/2037749> (검색일: 2024.12.30)

13. 연합뉴스. “日 ‘수출규제’ 3개 품목, 일본산 수입 의존도 최고 94%”. (2019.7.1) <https://www.yna.co.kr/view/AKR20190701169700003> (검색일: 2024.8.2)

14. 아시아경제. “화이트리스트 제외 최악으로 치달는 한·일 국민감정”. (2019.8.2) <https://cm.asiae.co.kr/article/2019080210462854557> (검색일: 2024.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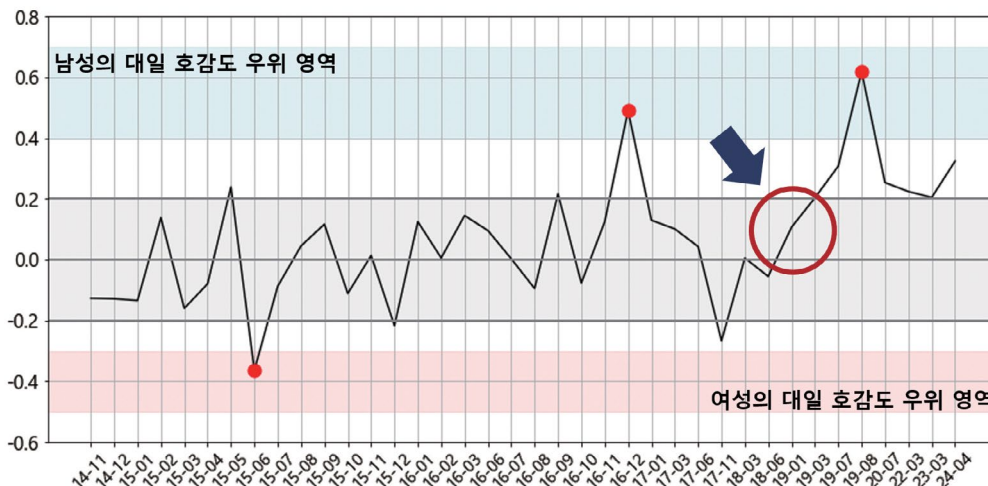
15. 세계일보.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日 불매운동 확산”. (2019.7.4) <https://www.segye.com/newsView/20190704512335> (검색일: 2024.12.30)

16. 뉴스1. “제주 국제관함식 욕일기 논란…우리 국민이 ‘욕’하는 이유”. (2018.10.08.) <https://www.news1.kr/politics/diplomacy-defense/3443708> (검색일: 2024.12.27)

17. 연합뉴스. “日, ‘레이더 문제’ 연일 증폭…韓과 외교갈등 키우나”. (2018.12.26) <https://www.yna.co.kr/view/AKR20181226092000073?input=1195m> (검색일: 2024.12.27)

18. t-검정은 두 집단 간 자료의 평균 값 차이가 실제로 의미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통계 기법으로, 여기서는 남성과 여성 두 집단을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그림 5] 성별에 따른 일본에 대한 호감도 응답 차이에 대한 t-검정¹⁹ (단위: 점)



자료: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조사(2014년 11월~2024년 4월).

즉, 이 시기에는 남성과 여성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 응답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²⁰ 한편, 2019년 이후에는 그래프가 0 기준으로 위에 위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화살표, ) 2019년 3월 조사 이후에는 기존까지 남성과 여성의 대일 호감도가 ± 0.2 점 정도 차이로 엮치락뒤치락하던 상황에서 그 범위를 벗어나 확실하게 남성의 대일 호감도가 여성의 대일 호감도보다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19년 8월 조사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대일 호감도가 역대 최대인 0.62점까지 벌어지며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그렇다면, 해당 시기에 실제로 성별 변수가 일본에 대한 호감도에 영향을 준 것일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 카이제곱(Chi-Square) 독립성 검정²¹을 실시했다. 아래 [표 1]은 2019년 8월 성별과 일본에 대한 호감도의 연관성을 나타낸 교차표이다.

19. 실선으로 표시된 0을 기준으로 그래프가 위에 그려져 있으면 남성의 대일 호감도가 높은 상태이고, 아래에 그려져 있으면 여성의 대일 호감도가 높은 상태를 의미한다.

20. 2015년 6월에 여성, 2016년 12월에 남성이 각각 통계적으로 의미 있을 정도로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우위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달 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바로 복원된 것으로 보아 일시적인 현상이었다고 볼 수 있다.

[표 1] 2019년 8월 성별에 따른 일본에 대한 호감도 간 교차표 (단위: %)

	호감	보통	비호감
남성	11.2	15.7	73.1
여성	7.8	12.1	80.1

$\chi^2=6.87$, $df=2$, $p\text{-value}<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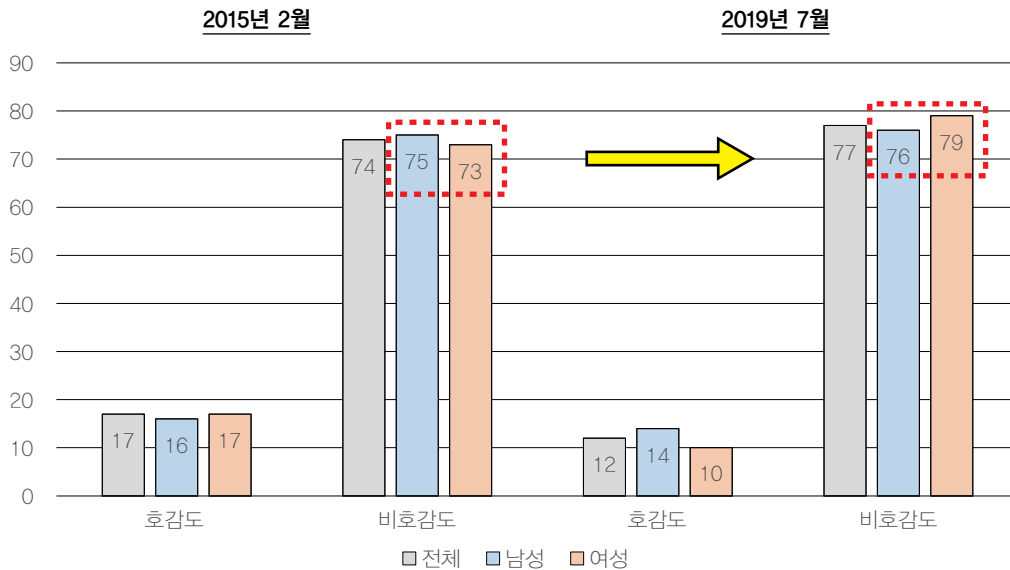
자료: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조사(2019년 8월).

검정 결과 성별과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연관성을 갖는($p\text{-value}<0.05$)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일수록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높고, 여성일수록 일본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방향으로 연관성이 있다는 의미이다. 이를 통해 이전까지 유지되던 범위를 벗어난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남성 집단보다 여성 집단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2], [그림 3] 참고). 이상의 결과를 통해, **한일 간 부정적인 이슈에 대해 남성보다 여성이 더 크게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본원 이외의 다른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아래 [그림 6]은 한국갤럽이 2019년도 이전 마지막으로 조사했던 2015년 2월과 2019년 7월 일본에 대한 호감도 조사 결과이다.

2015년 2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전체 17%, 비호감도는 74%로 조사되었고, 성별에 따라서도 남성은 호감도 16%, 비호감도 75%, 여성은 호감도 17%, 비호감도 73%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2019년 7월 한일 간 갈등 상황 속에서 실시된 조사에서는 전체 호감도는 12%, 비호감도는 77%였는데, 남성의 대일 호감도는 전체보다 높은 14%, 여성은 전체보다 낮은 10%로 나타났으며, 비호감도는 남성이 76%로 전체보다 낮게, 여성은 79%로 전체보다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9년도를 전후로 남성과 여성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 역전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볼 때, 한일 간 부정 이슈에 남성보다 여성이 더 크게 반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6] 2015년 2월과 2019년 7월 성별에 따른 일본에 대한 호감도(한국갤럽)²² (단위: %)



출처: 한국갤럽 각 연도 여론조사 결과 참조하여 재구성.

2) 한일관계 개선 국면에도 회복되지 못한 여성의 대일 호감도

2019년 이후에 이루어진 조사에서도 여성의 대일 호감도는 남성의 대일 호감도보다 낮게 유지되었다. 위의 [그림 5]에서 확인할 수 있듯, 남성의 대일 호감도 평균에서 여성의 대일 호감도 평균을 뺀 값의 그래프가 0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수치를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아래 [표 2]는 2019년을 기점으로 매년 유사한 시기(3~4월, 약 1년 단위)에 조사한 남성과 여성의 대일 호감도 수치를 보여준다.

21. 카이제곱(Chi-Square) 독립성 검정은 두 범주형 변수([표 1]에서는 '성별'과 '일본에 대한 호감도') 간 '연관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통계 기법이다. 이때, p-value가 0.05보다 작게 나오면 유의수준 5%하에서 통계적으로 두 변수(여기서는 '성별'과 '일본에 대한 호감도') 간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22. 한국갤럽, 「갤럽리포트 - 데일리 오피니언 제151호(2015년 2월 4주), 제362호(2019년 7월 2주)」,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asp> (검색일: 2024.12.31)

[표 2] 성별에 따른 일본에 대한 호감도 응답 차이 변화(상세)²³ (단위: 점)

	2015.3	2016.3	2017.3	2018.3	2019.3	2019.8	2020.7	2022.3	2023.3	2024.4
남성	2.88	3.29	3.35	3.47	3.38	2.51	3.11	3.78	3.78	4.32
여성	3.04	3.14	3.25	3.46	3.17	1.89	2.85	3.55	3.58	4.00
차이	-0.16	0.15	0.10	0.01	0.21	0.62	0.26	0.23	0.20	0.32

자료: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조사(2015~2024년).

앞서 설명하였듯, 모든 시점에서 남성과 여성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2016년도부터 여성의 대일 호감도가 남성의 대일 호감도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일갈등이 격화되었던 2019년 8월은 남녀 간 일본에 대한 호감도 차이가 가장 크게(0.62점) 벌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한일관계 개선의 흐름 속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여성의 대일 호감도는 남성의 대일 호감도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그 차이가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타 기관의 여론조사에서 동일하게 확인된다. 아래 [표 3]은 한국리서치에서 2023년 7월과 2024년 7월에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인데, 이 조사에서도 여성의 대일 호감도가 남성의 대일 호감도보다 낮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남성과 여성 두 집단 간의 대일 호감도의 차이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표 2]와 [표 3]에서 모두 남성과 여성의 대일 호감도의 차이는 2023년보다 2024년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남성의 대일 호감도 증가폭이 여성의 대일 호감도 증가 폭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표 2]의 경우 남성은 2023년 3월 3.78점에서 2024년 4월 4.32점으로 0.54점 증가한데 반해, 같은 시기 여성은 3.58점에서 4.00점으로 0.42점 증가에 그쳤다. [표 3]에서도 남성은 2023년 7월 38.4℃에서 2024년 7월 41.9℃로 3.5℃ 상승했으나, 같은 시기 여성은 36.0℃에서 37.3℃로 1.3℃ 상승했다.

23. 2019년 8월은 일본의 대한민국 수출규제가 있던 시점이며, 2020년의 경우, 3월에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7월 자료로 대신하였다. 차이는 남성의 호감도에서 여성의 호감도를 뺀 수치이며, 음수인 경우 여성의 대일 호감도가 높고, 양수인 경우 남성의 대일 호감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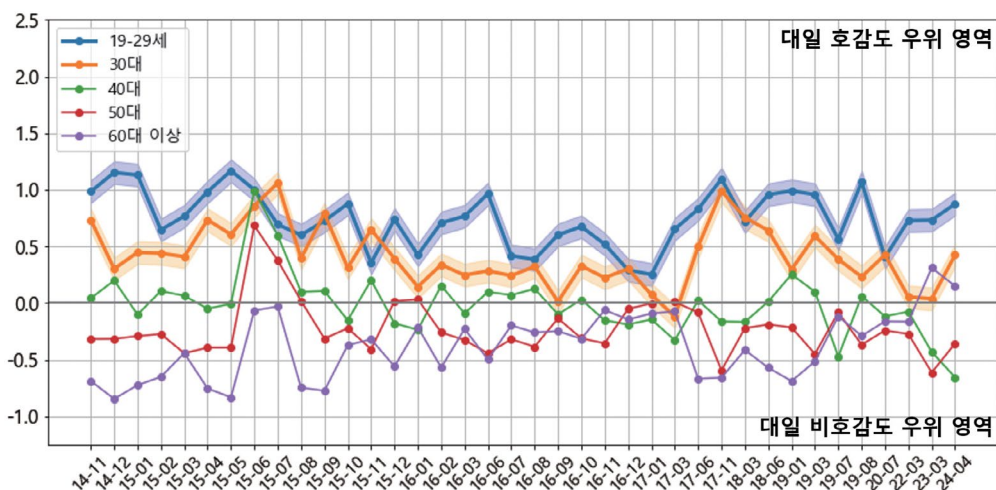
연령대²⁵별로는 어떻게 나타날까? [그림 7]은 0(전혀 호감 없음)~10(매우 호감)점으로 응답된 결과에 대한 연령별 일본에 대한 호감도 변화를 보여준다.

그래프를 통해 연령대에 따라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조사기간 전반에 걸쳐 나타난 20대(19~29세)(파란색선)와 30대(주황색선)의 일본에 대한 높은 호감도가 두드러진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30대(주황색선)의 큰 변동폭과 40대(초록색선)의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변동폭, 그리고 2022년 3월 이후부터 급격히 증가한 60대 이상(보라색선)의 대일 호감도 등이 관찰된다.

1) 20대와 30대의 높은 긍정인식 속 두드러지는 30대의 높은 변동성

20대(파란색선)와 30대(주황색선)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를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전체 연령대의 호감도 점수 평균과 각 연령대별 호감도 점수의 차이를 그래프로 나타내 각 연령대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평균 대비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그림 8] 연령에 따른 일본에 대한 호감도 응답 차이 (단위: 점)



[그림 8]에서 선으로 표시된 0을 기준으로 위는 일본에 대해 전체 평균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연령대이고, 아래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연령대이다. 이를 통해 전 조사기간 중 20대와 30대가 기준선인 0보다 위에 위치하며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평균 대비 가장 높고, 40대와 50대, 60대 이상은 주로 기준선인 0보다 아래 위치해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조사기간 전체에 걸쳐 대부분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MZ세대²⁶ 등 젊은 세대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기성 세대보다 높다는 타 조사와²⁷ 동일한 결과이다. 한편, 20대(파란색선)는 전 조사 시점에서 기준선인 0보다 위에 위치하여 일본에 대해 압도적인 호감도를 보이는 것이 관찰되었다. 특히, [그림 7]에서 확인할 수 있듯 2024년 4월 조사에서 20대의 호감도 응답 점수는 5.06점으로 조사되었는데, 0점(전혀 호감 없음)에서 10점(매우 호감)의 영역 중 '보통'으로 규정한 5점을 넘은 것은 전체 조사기간에 걸쳐 연령 대별로 살펴봤을 때 나온 첫 결과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렇다면 한일갈등이 고조되던 시기에는 어떻게 나타났을까? 다음 [표 4]는 한일갈등이 본격화되기 전 마지막으로 시행된 2018년 6월과 한일갈등이 격화된 2019년 8월 일본에 대한 호감도를 비교한 것이다.

[표 4] 2018년 6월과 2019년 8월 연령에 따른 일본에 대한 호감도 응답 변화 (단위: 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2018년 6월(a)	4.39	4.08	3.45	3.25	2.86
2019년 8월(b)	3.29	2.46	2.28	1.86	1.93
(b) - (a)	-1.10	-1.62	-1.17	-1.39	-0.93

자료: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조사(2018년 6월, 2019년 8월).

25. '세대'와 '연령'은 일반적으로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구체적으로 '세대'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역사, 사회, 문화를 경험한 집단을 의미하는 용어로 생물학적 나이를 의미하는 '연령'과는 차이가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사회적·문화적 특성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세대'와 생물학적 나이인 '연령'을 구분해서 사용하고자 한다.
26. 밀레니얼 세대(M세대)와 Z세대를 합쳐서 부르는 용어로, 1981년부터 2010년까지 태어난 사람들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주로 20대를 의미한다.
27. 한국갤럽의 2015년 2월, 2019년 7월, 2022년 8월의 모든 조사 결과에서도 20대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가장 높았다([그림 10] 참고). - 한국갤럽. 「갤럽리포트 - 데일리 오피니언 제151호(2015년 2월 4주), 제362호(2019년 7월 2주), 제507호(2022년 8월 2주)」,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asp> (검색일: 2024.12.31.)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 20대의 대일 호감도는 한일관계가 악화일로에 빠져 있던 2019년 8월 조사에서도 전체 연령대 가운데 유일하게 3점대(3.29점) 이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8년 6월 50대(3.25점)와 60대(2.86점)의 대일 호감도보다도 높은 점수였다. 다시 말해, 20대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한일관계 악화 속에서 하락하였다고는 하나, 여전히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은 호감도를 보였고, 그 수치 또한 한일관계가 악화되기 전 다른 연령대의 호감도보다 높았다는 것이다.

한편, 30대의 경우 2018년 6월 4.08점으로 20대의 4.39점과 함께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대일 호감도를 보였으나, 2019년 8월 2.46점으로 급격히 하락하며 전체 연령대 가운데 가장 큰 변동폭(-1.62점)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가까운 연령대인 20대, 40대와는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이를 통해 30대는 젊은 세대에 속하면서도 한일 간 부정적인 이슈가 발생했을 때, 주변 연령대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볼 수 있다.

2) 밋밋함 응답 속에 가려진 40대의 변하지 않는 부정적 대일 인식

다른 연령대는 어떨까?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듯, 40대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2018년 6월과 2019년 8월 모두 20대와 30대보다는 낮고, 50대와 60대 이상보다는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치상으로도 전체 연령대의 중간 혹은 평균 정도의 수치에 해당하며, 특별히 눈에 띄는 현상이 발견되지는 않다. 그러다 보니 간과하기 쉽지만, 40대 연령층이 보이는 밋밋한 응답 속에 가려진 의미는 생각보다 크다.

[표 5]는 지난 10년간 연령대별 호감도 응답의 최댓값과 최솟값의 차이(범위)와 표준편차를 알아본 것으로, 40대는 전체 조사기간 내 응답의 최댓값과 최솟값의 차이 1.66점, 표준편차 0.35점으로 두 수치 모두 전체 연령대 중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연령대 중 40대의 응답 변동이 가장 작았다는 것으로, 바꿔 말하면, 지난 10년간 한일관계 변화의 흐름 속에서 40대의 일본에 대한 인식이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표 6]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들은 한일갈등이 고조된 2019년 8월에 비해 전체 연령대에서 대일 호감도가 크게 상승한 2024년 4월 조사에서도 가장 적은 변화폭(1.25점)을 보였고, 상승한 호감도조차 전체 연령대에서 가장 낮은 3.53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20대와 50대, 60대 이상은 조사기간 전체에서 최대치를 기록했고, 30대의 경우에는 최댓

값 4.64점(2017년 11월)에 미치지지는 못했지만, 최댓값에 가까운 4.61점을 기록했다. 반면, 40대의 3.53점은 조사기간 전체에서 40대 응답 평균인 3.23점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표 5] 연령에 따른 일본에 대한 호감도 응답의 범위²⁸와 표준편차²⁹ (단위: 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최대(a)	5.06	4.64	3.94	3.83	4.33
최소(b)	3.29	2.46	2.28	1.86	1.85
범위 (a) - (b)	1.77	2.18	1.66	1.97	2.48
표준편차	0.36	0.40	0.35	0.41	0.54

자료: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조사(2014년 11월~2024년 4월).

[표 6] 2019년 8월과 2024년 4월 연령에 따른 일본에 대한 호감도 응답 변화 (단위: 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2019년 8월(a)	3.29	2.46	2.28	1.86	1.93
2024년 4월(b)	5.06	4.61	3.53	3.83	4.33
(b) - (a)	1.77	2.15	1.25	1.97	2.40

자료: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조사(2019년 8월, 2024년 4월).

문제는 이들이 보이는 호감도 수치가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고, 긍정이슈 혹은 부정이슈 등의 외부 자극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일본에 대한 인식이 고착되어 있어 향후에도 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28. 범위(Range)는 자료의 최댓값과 최솟값의 차이를 의미하는 통계량으로 자료의 분포와 변동성을 파악할 때 사용한다.

29. 표준편차는 자료가 중심으로부터 평균적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낸다. 값이 작을수록 자료가 중심에 모여 있다는 것인데, 그만큼 변동이 적고 결과가 안정적임을 뜻한다.

3) 한일관계 개선 국면에서 두드러지는 60대 이상의 대일 호감도 상승

[그림 7]에서 60대 이상(보라색선)은 한일관계가 악화되었던 2019년과 비교하여 한일관계가 개선된 2024년 가장 급격한 호감도 상승을 보였다. [표 6]에서도 2019년 8월 조사에서 1.93점으로 50대의 1.86점에 이어 두 번째로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던 60대의 대일 호감도는 한일관계가 개선된 2024년 4월 조사에서 4.33점을 기록하며 20대(5.06점)와 30대(4.61점) 다음으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상승폭은 전체 연령대에서 가장 큰 2.40점에 달했다.

이러한 60대 이상의 대일 호감도 상승은 2023년 3월 조사부터에서도 확인된다. [그림 8]에서 알 수 있듯, 2023년 3월 60대 이상의 대일 호감도는 처음으로 기준선 0보다 위에 위치하며 대일 호감도 우위 영역에 위치하였다.

[표 7] 2023년 3월과 2024년 4월 연령에 따른 일본에 대한 호감도 응답 변화³⁰⁾ (단위: 점)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2023년 3월	3.68	4.42	3.72	3.25	3.07	3.99
2024년 4월	4.18	5.06	4.61	3.53	3.83	4.33
평균	3.24					
표준편차	0.35					

자료: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조사(2014년 11월~2024년 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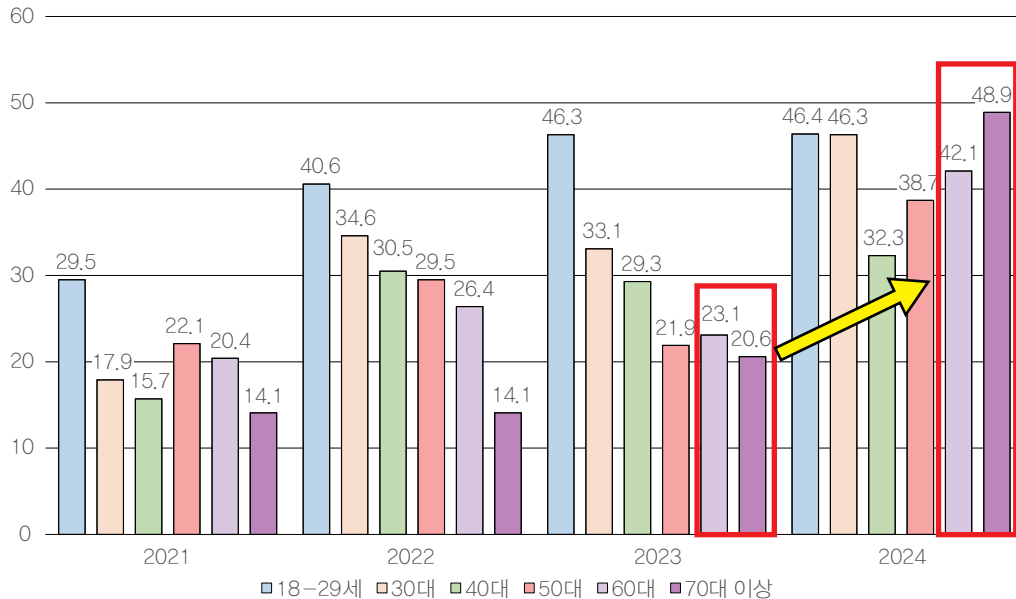
이를 보다 상세히 살펴보자. [표 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60대 이상은 2023년 3월 조사에서는 4점에 가까운 3.99점을 기록하며, 20대의 대일 호감도 4.42점에 이어 전체 연령대 중 두 번째로 일본에 대해 호감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기간 동안 모든 연령대를 포함한 전체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 응답 평균은 3.24점, 표준편차는 0.35점이었는데, 60대 이상의 호감도 응답이 4점을 넘었다는 것은 응답의 일반적인 범위($3.24 \pm 2 \times 0.35$ 점)³¹⁾를 벗어나며, 2023년 3월 이후 60대 이상의 대일 호감도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음을 보여준다. 2023년 3월과 2024년 4월 전체 조사 대비 응답의 일반적인 범위를 넘어선 것은 2023년 3월 20대와 60대 이상,

30. [표 7]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각 조사 시점의 호감도 응답 평균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값이다.

2024년 4월 20대와 30대, 60대 이상에서만 나타났고,³² 40대와 50대는 전체 조사기간 내 평균적인 응답 범위 안에서 일본에 대한 호감도 응답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경향은 2024년 9월 발표된 동아시아연구원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³³ 다음 [그림 9]에서 확인할 수 있듯, 60대(23.1% → 42.1%) 및 70대 이상(20.6% → 48.9%)의 응답자들은 2023년에서 2024년에 이르면서 가장 큰 인식의 변화를 이루었다. 특히, 70대 이상의 응답자의 경우, 2021년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부정적인 인상(14.1%)을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2024년에는 가장 긍정적인 인상(48.9%)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9] 일본에 대한 세대별 긍정 인상 변화(동아시아연구원) (단위: %)



출처: 동아시아연구원 각 연도 여론조사 결과 참조하여 재구성.

31. 통계에서 일반적인 응답 범위(평균을 중심으로 95%를 포함)는 $\text{평균} \pm 2 \times \text{표준편차}$ (약 95.45%)이다. 여기에 적용해 계산하면 $3.24 \pm 2 \times 0.35$ 로 2.54~3.94의 범위인데, 4점을 넘어선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값이 나타나는 범위의 밖에 속하는 결과라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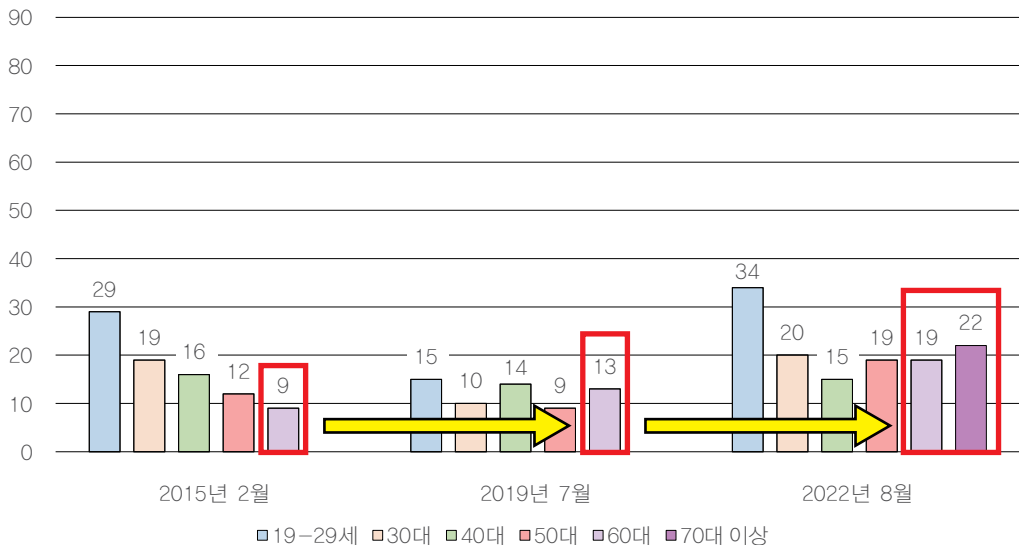
32. [표 7]의 파란색 음영 부분은 모두 기존의 일반적인 응답 범위를 벗어난 수준을 기록했음을 나타낸 것이다.

33. 손열. 2024. 「정치 양극화에 동요하는 한일관계: 2024년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관계 개선과 여론 분열」, 이슈브리핑. 동아시아연구원.

그런데 이러한 경향이 지난 10년간 조금씩 나타나고 있었다는 점 또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앞의 [그림 7]에서 살펴볼 수 있듯, 본 원에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2014년과 2015년 조사 시기 전반에 걸쳐 전체 연령대에서 가장 낮은 대일 호감도를 보였던 60대 이상은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상승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2016년과 2017년 조사에서는 40대, 50대보다 높은 대일 호감도를 보이는 시점도 수차례 관찰되다 한일관계가 개선된 2023년 급격히 상승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 [그림 10]은 한국갤럽에서 시행한 2015년, 2019년, 2022년의 여론조사 결과를 참조하여 만든 것인데, 이를 통해서도 60대 이상의 호감도가 9% → 13% → 19%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³⁴ 이를 통해 지난 10년간 60대 이상의 대일 호감도는 전체 연령대 가운데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장 크게 상승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그림 10] 연령에 따른 일본에 대한 호감도 변화(한국갤럽)³⁵ (단위: %)



34. 2022년 조사의 경우, 60대 이상은 60대와 70대 이상으로 나눠 조사되었는데, 60대는 19%, 70대 이상은 22%였다.

35. 2022년 조사의 경우, 20대가 18~29세로 조사되었다. - 한국갤럽. 「갤럽리포트 - 데일리 오피니언 제151호 (2015년 2월 4주), 제362호(2019년 7월 2주), 제507호(2022년 8월 2주)」,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asp> (검색일: 2024.12.31.)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한일관계가 크게 변화했던 지난 10년간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연령대에 따라 큰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일갈등이 심화되던 시기에도 20대와 30대는 타 연령대 대비 높은 대일 호감도를 보였으나, 그중에서도 30대는 변동폭이 컸다. 40대와 50대는 전반적으로 일본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으나, 그중에서도 40대의 대일 호감도는 한일관계의 변화 속에서도 가장 변동성이 적은 양상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60대 이상은 한일관계 개선 속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인식 개선을 보였고, 이러한 경향이 지난 10년간 서서히 진행되어 왔다는 점에서 가장 긍정적인 인식 변화를 보였다.

3. 성별과 연령에 따른 일본에 대한 호감도 변화

성별과 연령에 따른 일본에 대한 호감도 응답에는 차이가 있을까? 즉, 남성 집단과 여성 집단 등 같은 성별 내에서도 연령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날까? 또한, 20대 남성과 20대 여성, 30대 남성과 30대 여성 등 같은 연령대 안에서도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날까? 일반적으로 흔히 거론되는 대일 인식 혹은 젊은 세대의 인식 등으로 포괄적으로 표현하기에는 이를 구성하는 각 집단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는 것은 아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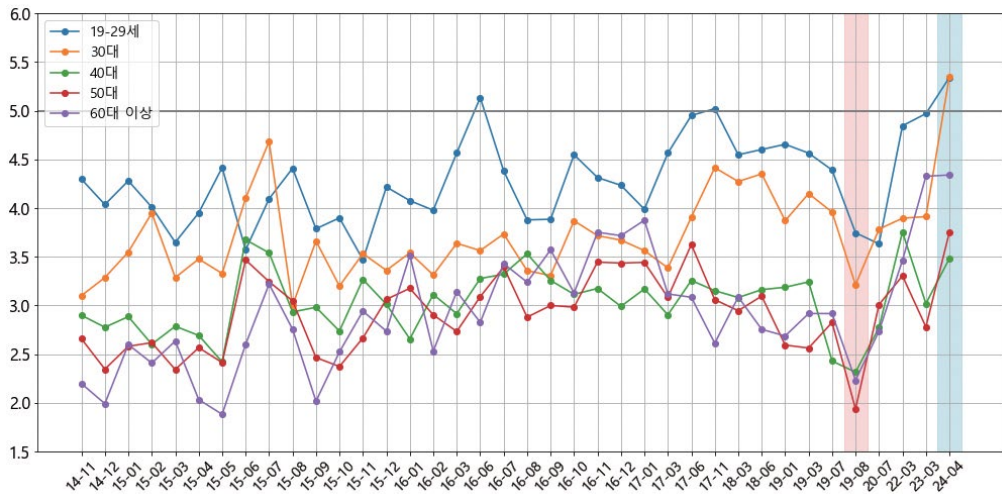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 의식에 기반하여 성별 및 연령대를 함께 고려하여 일본에 대한 인식을 보다 상세히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남성과 여성의 연령대별 호감도 응답 차이를 알아보고, 이후 연령대별 남성과 여성의 응답 차이를 알아보았다.

1) 연령대별로 다양한 남성의 대일 호감도 vs. 수렴하는 여성의 대일 호감도

[그림 11]과 [그림 12]는 각각 남성과 여성의 연령에 따른 일본에 대한 인식 변화를 보여 준다. 이를 통해 남성과 여성의 연령에 따른 대일 호감도 응답에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남성의 연령대별 대일 호감도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과 달리, 여성의 연령대별 대일 호감도는 상대적으로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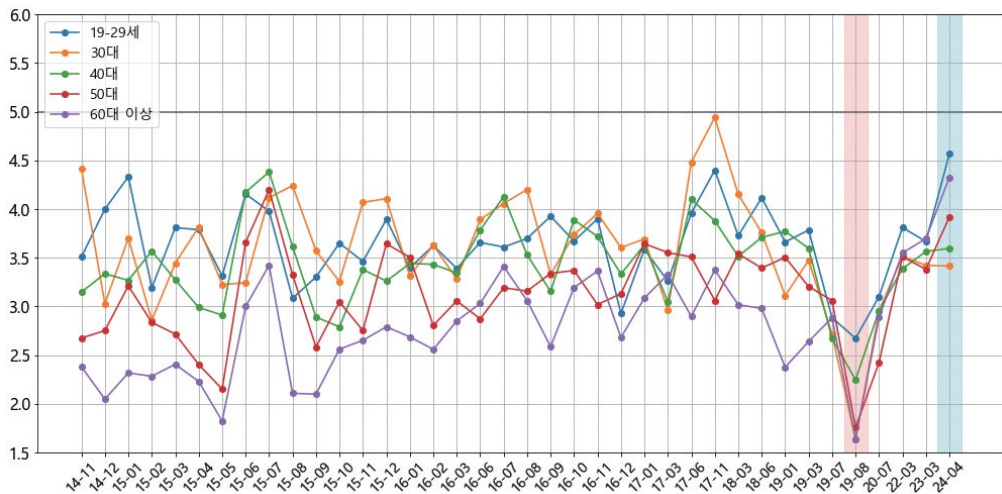
특히,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한일관계가 악화된 2019년 8월과 한일관계가 개선된 2024년 4월 남성과 여성의 연령대별 호감도를 살펴보면 남성의 연령대별 응답의 범위가 여성보다 넓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1] 남성의 연령에 따른 일본에 대한 호감도 응답 변화 (단위: 점)



자료: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조사(2014년 11월~2024년 4월).

[그림 12] 여성의 연령에 따른 일본에 대한 호감도 응답 변화 (단위: 점)



자료: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조사(2014년 11월~2024년 4월).

이를 [표 8]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남성과 여성 각각에 대해 전체 연령대에서 최댓값과 최솟값의 차이(범위)를 계산한 결과, 두 시점 모두에서 남성의 응답 범위가 여성보다 더 넓게

나타났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9년 8월 기준 남성의 대일 호감도는 전체 연령대에서 1점 후반(1.94점)에서 3점 중후반(3.75점)까지 분포하며 범위는 1.81점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의 대일 호감도는 1점 중반(1.63점)에서 2점 중반(2.67점)까지 분포하며 범위는 1.04점으로 남성보다 좁게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2024년 4월에도 남성의 대일 호감도는 3점 중반(3.48점)에서 5점 초중반(5.35점)까지 분포하며 범위는 1.87점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은 3점 중반(3.42점)에서 4점 중반(4.57점)까지 분포하며 범위는 1.15점으로 남성보다 여전히 좁았다. 즉, 두 시점 모두에서 연령대별로 남성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여성보다 더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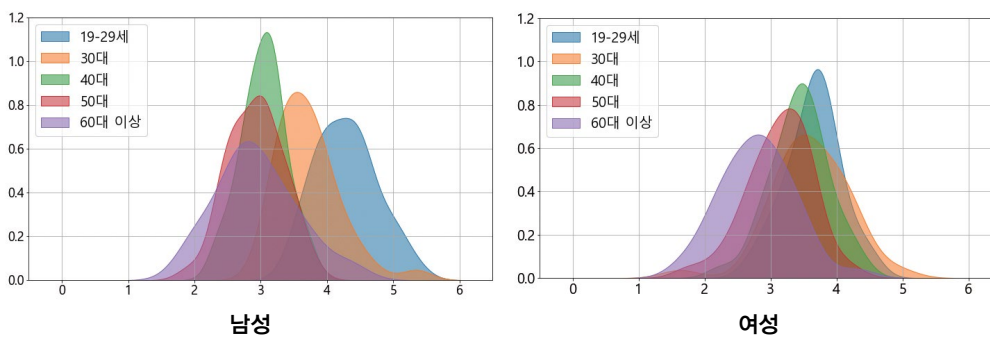
[표 8] 2019년 8월과 2024년 4월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일본에 대한 호감도 응답 변화 (단위: 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범위(최댓값-최솟값)
2019년 8월	남성	3.75	3.21	2.31	1.94	2.23	1.81
	여성	2.67	1.63	2.25	1.76	1.64	1.04
2024년 4월	남성	5.34	5.35	3.48	3.75	4.34	1.87
	여성	4.57	3.42	3.60	3.92	4.33	1.15

자료: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조사(2019년 8월, 2024년 4월).

이러한 결과는 [그림 13]과 같이 남성과 여성 각각에 대한 연령대별 대일 호감도 응답 분포를 통해 그 차이를 보다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3] 성별에 따른 연령대별 일본에 대한 호감도 응답 분포 (단위: 점)



자료: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조사(2014년 11월~2024년 4월).

이상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남성의 대일 호감도는 여성에 비해 연령대별 일본에 대한 호감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남성의 경우, 20대(파란색)와 30대(주황색)의 응답 분포가 다른 연령대보다 확연히 오른쪽에 위치하며 겹치는 부분이 많지 않은 것에 반해, 여성의 경우, 대부분의 연령대 그래프가 겹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연령대별 여성의 응답이 비슷하게 나타났다는 것으로, 바꿔 말하면, 남성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여성에 비해 연령대별로 차이가 크고 다양하게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일본에 대한 호감도를 이끌어 온 ‘20대 남성’과 ‘30대 남성’

[그림 13]에서 확인할 수 있듯, 낮은 연령대일수록 응답 분포의 중심이 점수가 높아지는 오른쪽에 위치하여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높게 나타난다. 특히, 이 가운데 ‘20대 남성’은 남성과 여성 전체 연령대 가운데 가장 오른쪽에 위치하며 압도적으로 높은 호감도를 보였다. 수치상으로도 20대 남성 응답 분포(파란색)의 중심³⁶은 4점대 초반(4.29점)이고, 4점과 5점 사이가 가장 넓은 영역을 차지하며 호감도 응답이 가장 많이 분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같은 연령대인 20대 여성 응답 분포(빨간색)의 중심이 3점대 중반(3.64점)이고, 3점과 4점 사이의 영역에 많은 응답이 분포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이를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그림 14]에서처럼 각 연령대별로 남성과 여성의 대일 호감도 응답 분포를 한일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2019년 8월을 기준으로 그 이전(약 5년 전)까지의 조사와 그 이후(약 5년 후)의 조사로 나눠서 확인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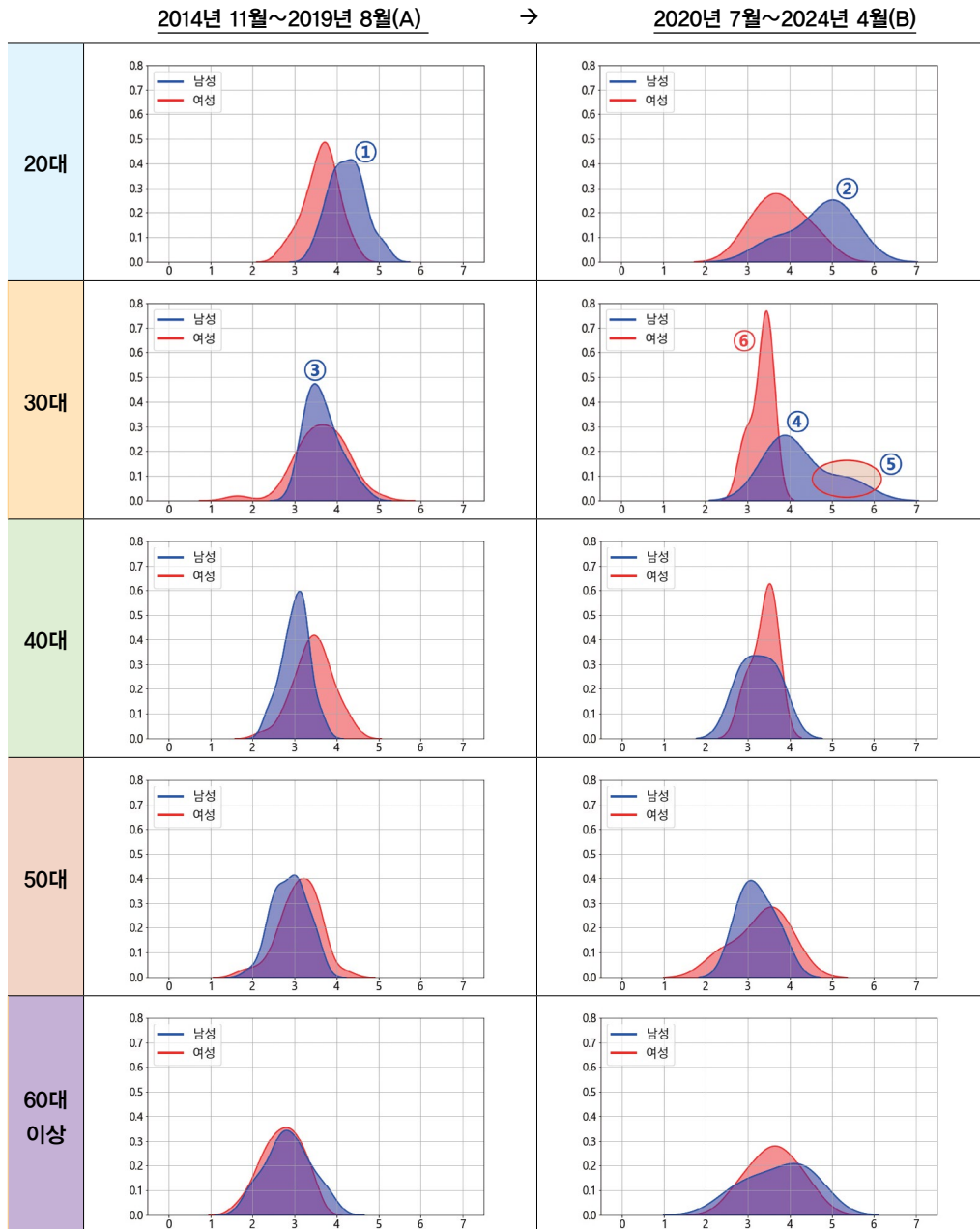
먼저 2014년 1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A)기간의 조사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응답 분포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연령대 전체적으로 그 모양이 유사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연령대별로 응답의 성별에 따른 분포 차이가 크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비록 20대에서 남성의 분포가 여성의 분포보다, 40대에서 여성의 분포가 남성의 분포보다 중심이 다소 우측에 있는 모습이 관찰되었으나,³⁷ 분포의 중심이나 퍼진 정도가 성별에 따라 크게 차이나

36. 응답 분포의 중심은 일본에 대한 호감도 응답의 평균이다.

37. 2014년 11월~2019년 8월 기간에 20대 남성과 여성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 응답은 각각 4.24점과 3.63점으로 그 차이는 0.61점인데, 이는 두 집단의 표준편차 약 0.40점을 넘는 정도의 차이이다. 동일하게 40대에서도 남성과 여성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 응답은 각각 3.01점과 3.44점으로 그 차이는 0.43점인데, 이는 남성 집단의 표준편차 0.32점을 넘는 정도의 차이이다.

는 정도는 아니었다([표 9] 참고).

[그림 14] 시기별 연령대에 따른 남성과 여성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 응답 분포 변화 (단위: 점)



자료: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조사(2014년 11월~2024년 4월).

반면, 2020년 7월부터 2024년 4월까지 (B)기간의 조사에서는 일부 연령대에서 성별에 따른 응답 분포 간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20대와 30대 남성의 응답 분포가 우측으로 이동한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그중에서도 20대 남성은 분포의 중심이 (A)기간 4점대 초반(4.24점)에서(①) (B)기간 4점대 후반(평균 4.70점, 중앙값 4.91점)³⁸으로(②) 확연히 우측으로 이동하면서 5점 부근에서 응답이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0대 남성의 경우에는 응답의 중심이 (A)기간 3점대 중반(3.66점)에서(③) (B)기간 4점 부근(평균 4.24점, 중앙값 3.90점)으로(④) 응답의 중심이 이동했고, 그중 많은 수가 5점 이상으로(⑤) 응답한 것이 관찰되었다. 이는 20대 남성의 경우, (A)기간에서 (B)기간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집단 전반의 일본에 대한 인식이 좋아졌다고 볼 수 있는 반면, 30대 남성의 경우에는 일부 집단에서 일본에 대한 인식이 조금 더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표 9] 시기별 연령대에 따른 남성과 여성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 통계량 (단위: 점)

		2014년 11월~2019년 8월(A)		2020년 7월~2024년 4월(B)	
		남	여	남	여
20대	평균	4.24	3.63	4.70	3.79
	표준편차	0.41	0.40	0.74	0.60
30대	평균	3.66	3.62	4.24	3.33
	표준편차	0.40	0.61	0.75	0.25
40대	평균	3.01	3.44	3.26	3.38
	표준편차	0.32	0.46	0.44	0.29
50대	평균	2.88	3.11	3.21	3.31
	표준편차	0.40	0.48	0.42	0.63
60대 이상	평균	2.84	2.70	3.72	3.62
	표준편차	0.53	0.47	0.77	0.59

자료: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조사(2014년 11월~2024년 4월).

38. 이처럼 분포의 모양이 좌우대칭이 아닌 경우에는 분포의 중심을 잘 설명하기 위해 평균과 중앙값을 함께 보는 것이 좋다. 이를 고려해, 여기서는 평균 4.70점과 함께 중앙값 4.91점을 추가해 자료가 집중되어 있는 분포의 중심을 설명하였다.

[표 9]의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살펴보면, 조사가 이루어진 전체 기간 동안 20대 남성의 호감도가 가장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뒤를 30대 남성이 따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기간 20대 남성의 호감도는 4.24점으로 남성과 여성 전체 연령대 가운데 유일하게 4점대가 나왔으며, (B)기간은 20대 남성과 30대 남성이 각각 4.70점, 4.24점의 호감도를 보였다. 같은 기간 동안 20대 여성은 전체 여성 연령대 중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가장 높았지만, 20대 및 30대 남성의 호감도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한일관계의 변동성이 컸던 시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0]은 한일갈등이 본격화되기 전 가장 마지막으로 시행한 2018년 6월과 한일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2019년 8월, 그리고 한일관계 개선의 흐름 속에서 시행된 2024년 4월의 남성과 여성의 연령대별 대일 호감도를 남성과 여성, 그리고 연령대로 나누어 비교한 것이다.

[표 10] 성별과 연령에 따른 일본에 대한 호감도 응답 변화 (2018.6, 2019.8, 2024.4) (단위: 점)

	남성			여성		
	2018.6	2019.8	2024.4	2018.6	2019.8	2024.4
전체	3.41	2.51	4.32	3.46	1.89	4.00
20대	4.60	3.75	5.34	4.12	2.67	4.57
30대	4.35	3.21	5.35	3.76	1.63	3.42
40대	3.16	2.31	3.48	3.71	2.25	3.60
50대	3.10	1.94	3.75	3.39	1.76	3.92
60대 이상	2.75	2.23	4.34	2.98	1.64	4.33

자료: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조사(2018년 6월, 2019년 8월, 2024년 4월).

이를 통해서도 20대와 30대 남성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모든 시기에서 전체 연령대 남성과 여성 가운데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한일관계가 악화되었던 2019년 8월에 이전보다 호감도가 하락하였다고는 하지만, 남성과 여성 전체 연령대 중에 유일하게 3점대 이상의 호감도를 기록했다. 이상을 통해, **한국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 전반을 이끌고 있는 것은 ‘20대 남성’과 ‘30대 남성’**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한편, 이처럼 20대와 30대 남성의 대일 호감도가 여성보다 높다는 것은 2024년 8월 발표

한 동북아역사재단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³⁹ 이 조사는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39세 사이의 2030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는데, 조사 결과 2030세대의 일본에 대한 긍정 응답은 57.3%로 나타난 반면, 부정 응답은 35.1%에 그쳤다. 이는 앞서 본원의 2024년 4월 조사에서 20대가 5점을 넘어 일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온 결과와 동일하다. 성별로 나눠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에는 20대는 70% 이상, 30~34세 56.4%, 35~39세 60%로 확실하게 50%를 넘어 긍정적으로 나왔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18~24세 55.5%, 25~29세 50.9%, 30~34세 42.5%, 35~39세 42.5%로 일본에 대한 남성의 긍정 인식이 여성보다 확연하게 높았다.

3) 한일갈등 국면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30대 여성’

[그림 14]에서 한 가지 더 눈에 띄는 점은 (B)기간 동안 높게 솟은 모양을 나타낸 30대 여성(⑥)의 응답 분포이다.⁴⁰ 특히, 30대 여성의 경우, (A)기간에서 (B)기간으로 넘어오면서 응답 분포가 상당히 밀집된 경향을 보였다. 이를 [표 9]의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살펴보면, 30대 여성은 (A)기간에는 표준편차가 0.61점(호감도 3.62점)으로 응답 분포가 전체 연령대의 남성과 여성 중 가장 넓게 흩어져 있었는데, (B)기간에는 표준편차 0.25점(호감도 3.33점)으로 전체 연령대 가운데 가장 밀집된 모습의 응답 분포를 나타냈다.

한편, 이러한 30대 여성의 인식의 변화를 구체적인 시점을 통해 알아보면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표 11]은 한일갈등이 격화되기 전 가장 마지막에 시행했던 2018년 6월과 한일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2019년 8월의 여론조사를 비교한 것인데, 한일관계 악화 속 전체 연령대 남성과 여성의 대일 호감도가 하락한 가운데, 30대 여성의 호감도가 -2.13점으로 가장 많이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당시 한일갈등 국면에서 30대 여성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당시 30대 여성의 대일 호감도는 남성과 여

39. 동북아역사재단, “2030세대가 생각하는 한일·한중 관계와 역사문제 - 2024년 ‘역사문제와 한일 및 한중관계 관련 여론조사’ 결과”, (2024.8.13) <https://www.nahf.or.kr/gnb02/snb03.do?mode=view&cid=69519>; 조선일보, “2030세대 57% “일본에 호감”... 중국은?”, (2024.8.23) <https://www.chosun.com/culture-life/reliion-academia/2024/08/14/UGMNFPOGUNH6JL72HXSZZJCPCM/> (검색일: 2025.1.9)

40. (B)기간 40대 여성의 응답 분포도 높게 솟은 모양을 나타내 밀집된 모습(표준편차 0.29점)을 보였는데, 이는 (A)기간 40대 남성의 응답 분포의 밀집도(표준편차 0.32점)과 비슷한 정도이고, 앞서 [표 5]에서 통해 살펴본 40대 응답의 낮은 변동성을 고려하면, 이전에 비해 30대 여성처럼 주의 깊게 살펴볼 정도는 아니다.

성의 전체 연령대 가운데 1.63점으로 가장 낮은 호감도를 기록하였다.

[표 11] 한일관계 악화 기간 연령대별 남성과 여성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 응답 변화⁴¹ (단위: 점)

	남성			여성		
	2018.6	2019.8	차이	2018.6	2019.8	차이
전체	3.41	2.51	-0.90	3.46	1.89	-1.57
20대	4.60	3.75	-0.85	4.12	2.67	-1.45
30대	4.35	3.21	-1.14	3.76	1.63	-2.13
40대	3.16	2.31	-0.85	3.71	2.25	-1.46
50대	3.10	1.94	-1.16	3.39	1.76	-1.63
60대 이상	2.75	2.23	-0.52	2.98	1.64	-1.34

자료: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조사(2018년 6월, 2019년 8월).

그렇다면, 한일관계 개선 국면에서는 어떨까? [표 12]는 한일관계가 지난 10년의 기간 동안 최악의 수준으로 악화되었던 2019년 8월과 한일관계가 개선기에 접어든 2024년 4월의 여론조사를 비교한 것인데, 30대 여성의 호감도는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여 그 변화의 정도가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2] 한일관계 개선 기간 연령대별 남성과 여성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 응답 변화⁴² (단위: 점)

	남성			여성		
	2019.8	2024.4	차이	2019.8	2024.4	차이
전체	2.51	4.32	1.81	1.89	4.00	2.10
20대	3.75	5.34	1.59	2.67	4.57	1.90
30대	3.21	5.35	2.14	1.63	3.42	1.79
40대	2.31	3.48	1.17	2.25	3.60	1.35
50대	1.94	3.75	1.81	1.76	3.92	2.16
60대 이상	2.23	4.34	2.11	1.64	4.33	2.69

자료: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조사(2019년 8월, 2024년 4월).

[표 12]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면, 30대 여성의 대일 호감도는 2019년 8월 1.63점에서 2024년 4월 3.42점으로 1.79점 상승하며 상당 부분 회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성의 전체 연령대 중 낮은 수준의 회복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⁴³ 또한, 30대 여성의 이와 같은 호감도는 한일갈등이 고조되기 이전인 2018년 조사(3.76점)보다 낮은 수치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표 11] 참고). 이는 2019년 8월 이후에 하락한 30대 여성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30대 남성은 2024년 4월 조사에서 전체 연령대의 남성과 여성 중 가장 높은 대일 호감도(5.35점)를 보였으며, 상승폭(2.14점) 또한 전체 집단에서 가장 컸다. 이들의 대일 호감도가 2019년 8월 20대 남성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30대 남성의 대일 호감도는 다른 연령대 대비 이미 높은 수준이었던 호감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아진 것이며, 30대 여성은 부정적이었던 인식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타 연령 대비 가장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20대와 30대 연령층에서 나타난 남성과 여성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 차이

보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대일 호감도의 연령대별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한일관계 변동기에 20대와 30대에서 유독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표 13]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8년 6월 각 연령대별로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대부분 0점대로 큰 차이는 없었으나 (20대 0.48점, 30대 0.59점), 한일 간 부정적 이슈가 발생한 2019년 8월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20대는 1.08점, 30대는 1.58점으로 벌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가 한일관계 개선의 흐름 속에서 시행된 2024년 4월 조사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20대는 0.77점으로 기존보다 줄어들었으나, 30대는 1.93점으로 오히려 그 차이가 더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1. 차이는 2019년 8월 호감도에서 2018년 6월 호감도를 뺀 값이다.

42. 차이는 2024년 4월 호감도에서 2019년 8월 호감도를 뺀 값이다.

43. 여성 중에서는 40대가 1.35점으로 가장 작은 폭의 회복을 보이지만, 2019년 8월 조사에서 30대가 더 큰 폭으로 하락했던 점을 감안한다면, 여성 중에서는 30대가 2019년 8월 이전 기간에 비해 일본에 대한 인식이 가장 회복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표 13] 연령대별 남성과 여성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 응답 차이⁴⁴ (2018.6, 2019.8, 2024.4) (단위: 점)

	2018년 6월			2019년 8월			2024년 4월		
	남성	여성	차이	남성	여성	차이	남성	여성	차이
전체	3.41	3.46	-0.05	2.51	1.89	0.62	4.32	4.00	0.32
20대	4.60	4.12	0.48	3.75	2.67	1.08	5.34	4.57	0.77
30대	4.35	3.76	0.59	3.21	1.63	1.58	5.35	3.42	1.93
40대	3.16	3.71	-0.55	2.31	2.25	0.06	3.48	3.60	-0.12
50대	3.10	3.39	-0.29	1.94	1.76	0.18	3.75	3.92	-0.17
60대 이상	2.75	2.98	-0.23	2.23	1.64	0.59	4.34	4.33	0.01

자료: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조사(2018년 6월, 2019년 8월, 2024년 4월).

이러한 20대와 30대 남녀 간 인식의 차이는 4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한일관계의 큰 진폭을 겪으면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된 것 또한 확인할 수 있다. 위의 [표 13]에서 한일갈등이 심화되기 전인 2018년 6월과 한일관계 개선기에 시행된 2024년 4월의 여론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20대와 30대의 남녀 간 대일 호감도의 차이는 20대는 0.48에서 0.77점으로, 30대는 0.59점에서 1.93점으로 더 크게 벌어졌으나, 40대는 -0.55점에서 -0.12점, 50대는 -0.29점에서 -0.17점, 60대 이상은 -0.23점에서 0.01점으로 오히려 그 차이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30대의 차이가 두드러지는데, [표 11]과 [표 12]를 통해 부정적인 이슈가 발생할 때는 여성이, 긍정적인 이슈가 발생할 때는 남성에게서 변화 정도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 연령대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다만, [표 12]에서 확인할 수 있듯 한일관계 개선 기간인 2024년 4월 시행된 여론조사에서 60대 이상의 대일 호감도가 2019년 8월과 비교하여 크게 상승한 점에 주목할 만하다. 60대 남성의 호감도 증가는 30대 남성의 증가 폭(2.14점) 다음으로 높은 수준(2.11점)이며, 60대 여성의 경우, 남성과 여성 전체 연령대 대비 가장 크게(2.69점) 상승했다.

44. 차이는 남성의 호감도에서 여성의 호감도를 뺀 값이다.

요약하면, 일반적으로 회자되는 젊은 세대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높다는 것은 정확히는 20대와 30대 '남성'의 호감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들이 한국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서는 연령대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젊은 세대에 속하는 30대 '여성'의 대일 호감도는 한일관계가 악화되었던 시기에 가장 부정적이었으며, 한일관계가 개선된 현재에도 가장 부정적으로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나타나는 60대 이상의 대일 호감도 증가 현상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나타나는데, 남성보다 '여성'의 호감도 증가 폭이 크다는 것이 특징이다.

4. 이념 성향에 따른 일본에 대한 호감도 변화

일반적으로 회자되는 보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일본에 더 우호적이고, 진보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일본에 더 적대적이라는 인식은 증명된 것일까? 즉, 이념 성향은 일본에 대한 호감도와 통계적으로 연관성이 있을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이념 성향에 따른 일본에 대한 호감도 변화를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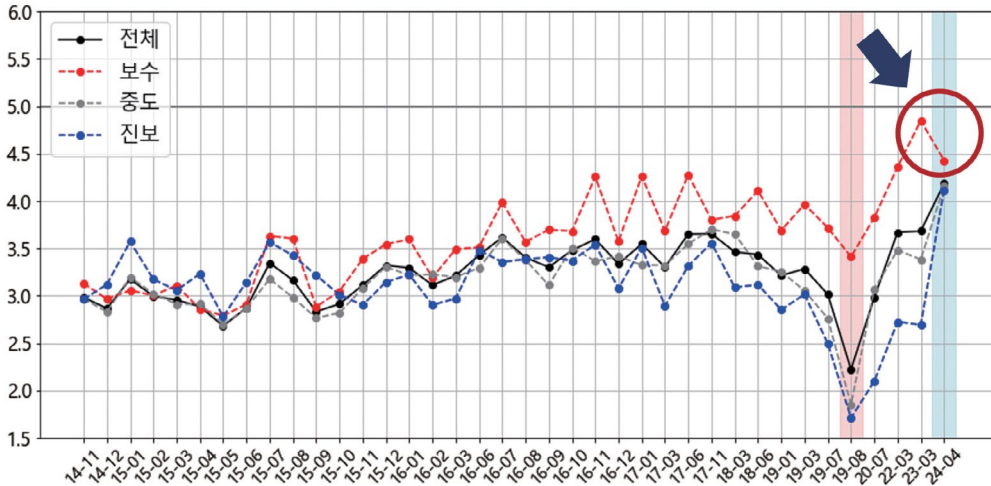
1) 한일관계 부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중도와 진보 성향 응답자의 대일 호감도

[그림 15]는 이념 성향에 따른 일본에 대한 호감도 변화를 보여준다. 이를 통해 전반적으로 보수 성향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빨간색선)가 진보 성향의 호감도(파란색선)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보수 성향 응답자의 대일 호감도 변동폭은 진보 성향의 응답자에 비해 크지 않고, 일정 수준의 호감도를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4]는 지난 10년간 이념 성향별 일본에 대한 호감도 응답의 최댓값과 최솟값의 차이(범위)를 알아본 것으로, 조사기간 내 보수 성향 응답의 최댓값과 최솟값의 차이는 2.06점으로 중도 성향 2.31점과 진보 성향 2.41점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보수, 중도, 진보의 이념 성향 중 보수 성향의 응답 변동이 가장 작았다는 것으로, 바꿔 말하면, 보수 성향 응답자들은 지난 10년간 한일관계 변화의 흐름 속에서도 일본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15] 이념 성향에 따른 일본에 대한 호감도 응답 변화⁴⁵ (단위: 점)



자료: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조사(2014년 11월~2024년 4월).

[표 14] 이념 성향에 따른 일본에 대한 호감도 응답의 범위 (단위: 점)

	보수	중도	진보
최대(a)	4.85	4.16	4.12
최소(b)	2.79	1.85	1.71
범위 (a) - (b)	2.06	2.31	2.41

자료: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조사(2014년 11월~2024년 4월).

구체적인 시점을 예로 들어보자. [표 15]는 한일갈등이 본격화되기 전 가장 마지막으로 시행한 2018년 6월과 한일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2019년 8월의 이념 성향에 따른 호감도의 변화를 비교한 것인데, 진보 성향 응답자의 호감도가 3.12점에서 1.71점으로 1.41점, 중도 성향 응답자의 호감도는 3.31점에서 1.85점으로 1.46점 하락한데 반해, 보수 성향 응답자의 호감도는 4.11점에서 3.41점으로 불과 0.70점 하락해 이념 성향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5. 이념 성향은 응답자에게 본인의 이념에 대해 0점(가장 진보적)부터 10점(가장 보수적)까지의 수치로 응답을 받았고, 이를 활용해 5점 미만을 진보, 5점을 중도, 5점 초과를 보수로 변환하였다.

[표 15] 한일관계 악화 기간 이념 성향에 따른 일본에 대한 호감도 응답 변화 (단위: 점)

	전체	보수	중도	진보
2018년 6월(a)	3.43	4.11	3.31	3.12
2019년 8월(b)	2.22	3.41	1.85	1.71
(b) - (a)	-1.21	-0.70	-1.46	-1.41

자료: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조사(2018년 6월, 2019년 8월).

또한, 한일관계가 개선된 2024년 4월과 한일갈등이 격화된 2019년 8월을 비교한 [표 16]에서도 진보와 중도 성향의 응답자가 각각 1.71점에서 4.12점으로 2.41점, 1.85점에서 4.16점으로 2.31점 상승한 데 반해, 보수 성향 응답자의 호감도는 3.41점에서 4.43점으로 1.02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표 16] 한일관계 개선 기간 이념 성향에 따른 일본에 대한 호감도 응답 변화 (단위: 점)

	전체	보수	중도	진보
2019년 8월(a)	2.22	3.41	1.85	1.71
2024년 4월(b)	4.18	4.43	4.16	4.12
(b) - (a)	1.96	1.02	2.31	2.41

자료: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조사(2019년 8월, 2024년 4월).

이를 통해 보수 성향의 응답자들이 한일관계의 부침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호감도의 변동이 크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반면, 중도적 이념 성향과 진보적 이념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보수적 이념 성향을 가진 사람들보다 한일관계 부침에 반응하는 정도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념 성향이 일본에 대한 호감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일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두 변수 간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카이제곱(Chi-Square) 독립성 검정을 실시했다. 다음 [표 17]은 2019년 8월과 2024년 4월 각각에 대한 이념 성향에 따른 일본에 대한 호감도 간 교차표를 나타낸 것이다.

[표 17] 2019년 8월과 2024년 4월 이념 성향에 따른 일본에 대한 호감도 간 교차표 (단위: %)

2019년 8월				2024년 4월			
	호감	보통	비호감		호감	보통	비호감
보수	20.7	19.6	59.6	보수	41.1	27.2	31.7
중도	5.1	14.3	80.6	중도	21.4	35.5	43.1
진보	5.2	9.3	85.5	진보	18.5	22.0	59.6

$\chi^2=72.66$, $df=4$, $p\text{-value}<0.05$

$\chi^2=75.67$, $df=4$, $p\text{-value}<0.05$

자료: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조사(2019년 8월, 2024년 4월).

검정 결과, 두 시점 모두 이념 성향과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통계적으로 연관성을 갖는 ($p\text{-value}<0.05$)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수 성향을 가진 사람일수록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높고, 진보 성향을 가진 사람일수록 일본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다는 것으로, 이념 성향과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향후 한국인들의 이념 성향에 따른 대일 호감도가 정부의 대일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높인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보수는 일본에 대해 유화적이고, 진보는 강경하다는 인식이 퍼져 있는데,⁴⁶ 이것이 실제로 얼마나 상호연관성을 갖고 있으며, 정책으로 발현되어 다시 국민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다. 스스로를 보수 혹은 진보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일본에 대한 고정적인 인식, 즉, 보수는 호감, 진보는 비호감이라는 고정된 틀 안에서 응답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한일관계 개선 국면에서 나타난 보수 성향 응답자의 대일 호감도 하락

그런데 2024년 4월 조사 결과에서 흥미로운 점이 발견되었다. [그림 15]에서 확인할 수 있듯, 2024년 4월 한일관계 개선 속에서 실시된 조사에서 2023년 3월 대비 진보 및 중도

46. 이정환(2022)는 이와 같은 정형화된 인식은 한국의 대일본 정책의 본질적 성격에 대한 잘못된 이해라고 지적한다. 대표적인 예로, 진보적 이념 성향을 보인 김대중 정부의 대일 유화정책은 일본을 역사인식과 관련된 국민감정 차원에서 다루는 것을 자제하고, 외교적 전략 속에서 대하였으며, 그 안에서 정권의 정치적 정체성은 도출되지 않았다. - 이정환, 2022, 「2022년 한국의 신정부 출범 이후 한일관계 개선」, 아시아브리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성향 응답자의 대일 호감도는 크게 상승한 데 반해 보수 성향 응답자의 대일 호감도가 오히려 하락한 점(화살표, ▼)이다.

[표 18]에서 구체적인 수치로 살펴보면, 전체 호감도는 3.68점에서 4.18점으로 0.50점 상승하였다. 이를 설명하듯, 중도 성향 응답자의 호감도는 3.38점에서 4.16점으로 0.78점, 진보 성향 응답자는 2.69점에서 4.12점으로 1.43점 상승한 데 반해, 보수 성향 응답자는 4.85점에서 4.43점으로 0.42점 하락하였다.

[표 18] 2023년 3월과 2024년 4월 이념 성향에 따른 일본에 대한 호감도 응답 변화 (단위: 점)

	전체	보수	중도	진보
2023년 3월(a)	3.68	4.85	3.38	2.69
2024년 4월(b)	4.18	4.43	4.16	4.12
(b) - (a)	0.50	-0.42	0.78	1.43

자료: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조사(2023년 3월, 2024년 4월).

한일관계 개선의 흐름 속에서 중도 및 진보 성향의 응답자들보다 일본에 대해 높은 호감도를 보이는 보수 성향의 응답자들의 대일 인식이 오히려 부정적으로 변했다는 점은 기존의 통념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현상은 구체적으로 성별 혹은 연령대 등과 관련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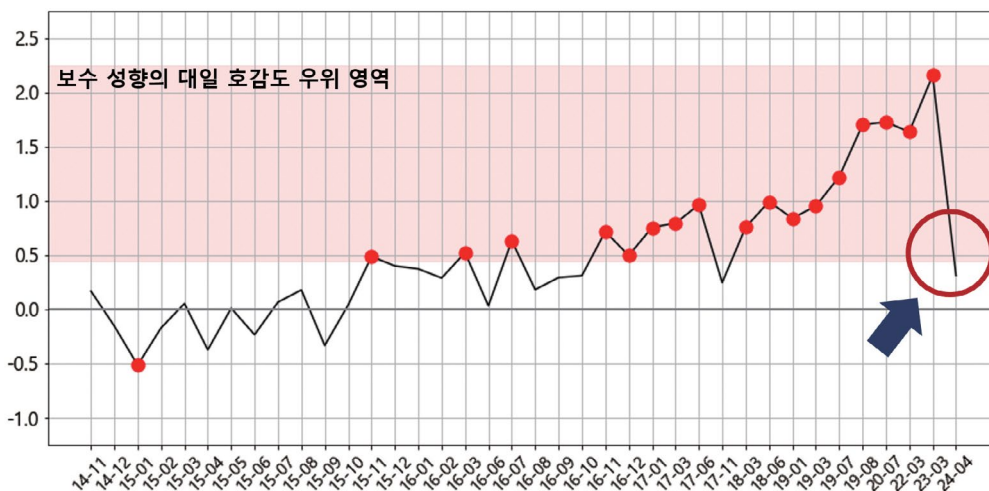
3) 한일관계 개선 국면에서 가장 크게 상승한 진보 성향 응답자의 대일 호감도

한편, 이념 성향에 따른 일본에 대한 호감도 차이는 어느 정도 나는 것일까? [그림 15]를 통해 2015년 11월 조사를 기점으로 전반적으로 보수 성향을 가진 응답자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진보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차이는 점점 벌어지다가 2019년 8월 조사에서 급격하게 커졌다. 실제로 이러한 이념 성향에 따른 일본에 대한 호감도 응답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t-검정을⁴⁷ 각 조사 시점별로 실시했다.

47. t-검정은 두 집단 간 자료의 평균 값 차이가 실제로 의미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통계 기법으로, 여기서는 보수 성향 응답자와 진보 성향 응답자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그림 16]은 보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대일 호감도 응답 평균에서 진보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대일 호감도 응답 평균을 뺀 값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실선으로 표시된 0을 기준으로 위에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보수 성향응답자들의 대일 호감도가 높은 상태이고, 아래에 그려져 있으면 진보 성향 응답자들의 대일 호감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중 빨간색 점(●)은 보수 성향과 진보 성향 응답자 간 일본에 대한 호감도 응답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p\text{-value}<0.05$)가 나타난 시점이다.

[그림 16] 보수 성향과 진보 성향 간 일본에 대한 호감도 응답 차이에 대한 t-검정 (단위: 점)



자료: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조사(2014년 11월~2024년 4월).

검정 결과, 2015년 11월을 기점으로 보수 성향을 가진 응답자의 대일 호감도가 진보 성향의 응답자보다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정도로 높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⁴⁸ 이러한 경향은 2023년 3월 조사까지 이어졌으나, 한일관계가 개선된 과정에서 시행된 2024년 4월 조사에서는 그래프가 급격히 하락하고(화살표, ➡), 보수 성향과 진보 성향 응답자 간 대일 호감도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빨간색 점(●)이 찍히지 않은 것이 관찰되었다. 다만, 그래프는 여전히 기준선인 0보다 위쪽에

48. 2015년 11월은 그 다음 달인 2015년 12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관련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 외교부. "한·일 외교장관회담 결과(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 내용)". (2015.12.28) https://www.mofa.go.kr/www/brd/m_4076/view.do?seq=357655 (검색일: 2025.1.11)

위치하여 보수 성향 응답자의 대일 호감도가 진보 성향 응답자보다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한일관계의 변동성이 있던 시점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다시 확인해 보자. [표 19]는 2018년 6월(2019년 8월 조사 직전 가장 마지막으로 시행된 조사 시점), 2019년 8월, 2024년 4월 세 시점의 이념 성향에 따른 일본에 대한 호감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통해 2024년 4월 조사에서 보수 성향의 응답자가 진보 성향의 응답자보다 0.31점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그림 16]을 통해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정도는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9] 이념 성향에 따른 일본에 대한 호감도 응답 변화(2018.6, 2019.8, 2024.4) (단위: 점)

	2018년 6월(A)	2019년 8월(B)	2024년 4월(C)	(C) - (A)
전체	3.43	2.22	4.18	0.75
보수(a)	4.11	3.41	4.43	0.32
중도(b)	3.31	1.85	4.16	0.85
진보(c)	3.12	1.71	4.12	1.00
(a) - (c)	0.99	1.70	0.31	

자료: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조사(2018년 6월, 2019년 8월, 2024년 4월).

또한, 위의 [표 15]와 [표 16]를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진보 성향의 응답자들은 보수 성향의 응답자들에 비해 한일관계 이슈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표 19]에서 2024년 4월 조사 결과를 보면 한일관계 개선 분위기 속에서 진보 성향 응답자의 호감도가 한일갈등이 본격화되기 전인 2018년 6월과 비교할 때 가장 크게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수 성향 응답자는 2018년 6월 4.11점에서 2024년 4월 4.43점으로 0.32점 상승하며 기존의 호감도를 회복한 정도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진보 성향의 응답자는 같은 기간 3.12점에서 4.12점으로 1.00점 상승하며 2018년 6월 대비 크게 상승하였으며, 보수, 중도, 진보 이념 성향 중 가장 큰 변화 폭을 보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2024년 4월 한일관계 개선 속 보수 성향 응답자와 진보 성향 응답자의 근소

한 대일 호감도 차이는 진보 성향 응답자의 급격한 대일 호감도 상승에서 기인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정도는 아니라는 것은 한일관계 개선 속에서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보수 및 진보 등의 이념 성향과는 무관하게 이전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5. 성별, 연령과 이념 성향에 따른 일본에 대한 호감도 변화

앞서 이념 성향과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실제로 통계적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보수 성향의 응답자가 진보 성향의 응답자보다 일본에 대해 높은 호감도를 보이지만, 한일관계가 악화되거나 개선되는 변화에는 진보 성향의 응답자가 보수 성향의 응답자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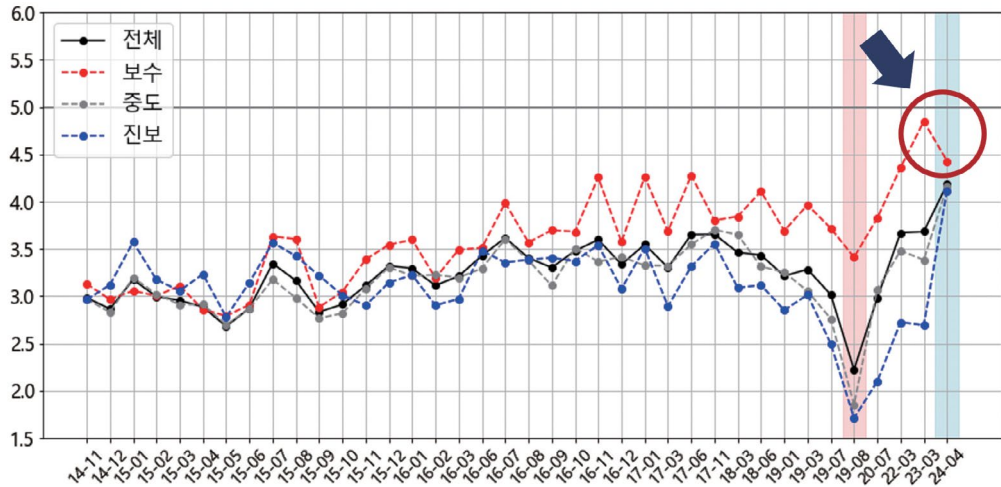
그런데 보수 혹은 진보 성향의 응답자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집단에서 이러한 반응이 나타나는 것일까? 성별 혹은 연령과 이념 성향이 결합될 때 차이가 나타나는 것일까? 예를 들어, 20대 남성과 여성의 대일 호감도는 전 연령대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지만, 이념 성향이라는 변수가 더해지면 다른 결과가 나타날까? 혹은 40대의 대일 호감도는 남성과 여성 모두 전 연령대 중에서도 가장 변동성이 적고, 고정된 경향을 보였지만, 이념 변수가 더해지면 다른 결과가 나타날까?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성별과 연령을 함께 고려하여 이념 성향에 따른 일본에 대한 인식을 보다 상세히 분석했다. 이를 위해 먼저 성별과 이념 성향이 결합되었을 때의 변화 여부를 알아보고, 이후 연령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았다.

1) 한일관계 개선 속 다르게 나타난 남성과 여성 보수 성향 집단의 대일 호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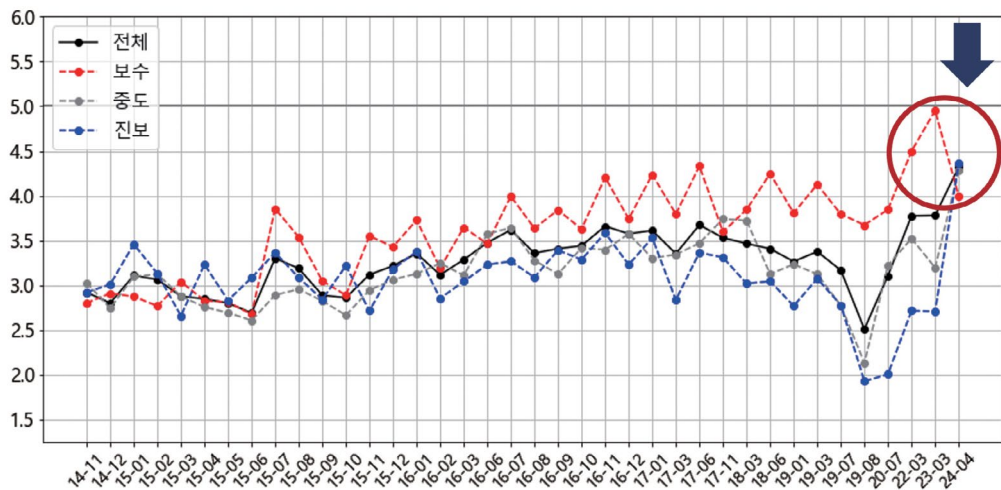
[그림 17]과 [그림 18]은 남성과 여성을 구분해 이념 성향에 따른 일본에 대한 호감도 응답 변화를 각각 확인한 것이다. [그림 17]의 남성의 이념 성향에 따른 대일 호감도의 경우, [그림 15]와 비교할 때, 그래프의 전체적인 패턴이 대부분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앞서 언급한 2023년 3월에 비해 4월에 호감도가 하락한 것(화살표, ↓)도 동일하다.

[그림 15] 이념 성향에 따른 일본에 대한 호감도 응답 변화(Revisited) (단위: 점)



자료: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조사(2014년 11월~2024년 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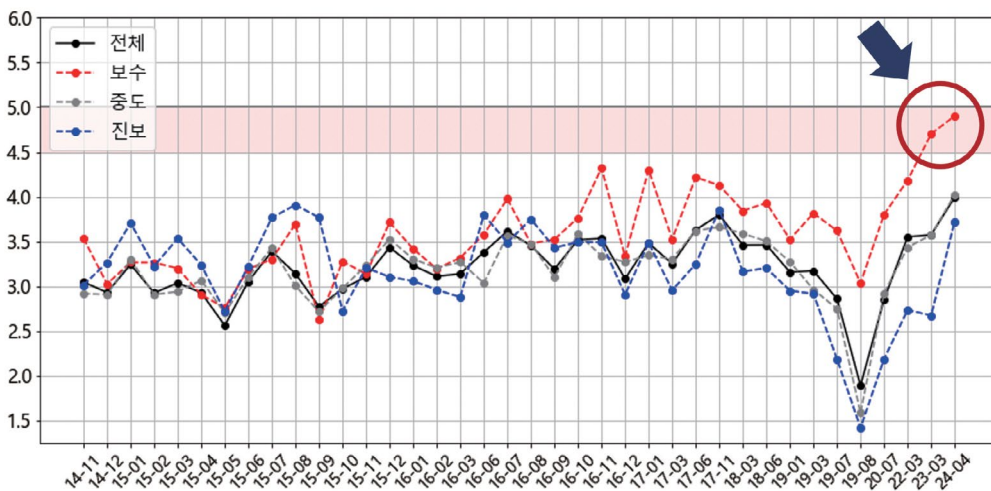
[그림 17] 남성의 이념 성향에 따른 일본에 대한 호감도 응답 변화 (단위: 점)



자료: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조사(2014년 11월~2024년 4월).

한편, [그림 18]의 여성의 이념 성향에 따른 대일 호감도의 경우, [그림 15]와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하면서도 2023년 3월 이후의 대일 호감도 변화는 다르게 나타났다. 즉, 남성 보수 집단이 2024년 4월 조사에서 하락한데 반해, 여성 보수 집단은 계속해서 상승하는(화살표, ▲) 양상이 두드러졌다. 즉, 한일관계 개선의 흐름 속에서 여성 보수 집단은 대일 호감도가 상승한 데 반해, 남성 보수 집단은 오히려 하락한 것이다.

[그림 18] 여성의 이념 성향에 따른 일본에 대한 호감도 응답 변화 (단위: 점)



자료: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조사(2014년 11월~2024년 4월).

또한, 전체적으로 볼 때, 남성의 이념 성향에 따른 대일 호감도 변동폭은 여성보다 작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 [표 20]은 성별과 이념 성향 구분별로 최댓값과 최솟값의 차이인 범위와 표준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남성과 여성 전체로 살펴보면, 남성의 범위와 표준편차는 각각 1.81점과 0.36점으로 여성의 범위 2.11점, 표준편차 0.37보다 작아 수치 상으로도 상대적으로 남성의 변동폭이 적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더 세부적으로 성별과 이념 성향에 따라 구분해 살펴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관찰된다. [표 20]에서 성별과 이념 성향에 따른 일본에 대한 응답의 범위와 표준편차를 확인하면, 보수 성향과 나머지 두 이념 성향이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0] 성별과 이념 성향에 따른 일본에 대한 호감도 응답의 범위와 표준편차 (단위: 점)

	남성				여성			
	전체	보수	중도	진보	전체	보수	중도	진보
최대(a)	4.32	4.95	4.28	4.36	4.00	4.90	4.02	3.91
최소(b)	2.51	2.68	2.13	1.93	1.89	2.62	1.59	1.42
범위 (a) - (b)	1.81	2.27	2.15	2.43	2.11	2.28	2.43	2.49
표준편차	0.36	0.54	0.38	0.41	0.37	0.50	0.40	0.51

자료: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조사(2014년 11월~2024년 4월).

보수 성향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범위는 각각 2.27점과 2.28점, 표준편차는 각각 0.54점, 0.50점으로 지난 10년간 남성과 여성이 거의 일치하는 변동을 보였다.⁴⁹ 반면, 중도 성향과 진보 성향의 경우에는 남성의 범위와 표준편차가 여성보다 작게 나와 상대적으로 남성의 변동폭이 여성보다 적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확인한 결과와 함께 정리해보면, 보수 성향 내에서는 지난 10년간 남성과 여성의 변동 양상이 거의 일치했으나, 한일관계가 호전된 최근 2024년 4월 조사에서 오히려 정반대의 양상을 보인 것이 특징이다.

[표 21]은 주요 시점의 성별과 이념 성향에 따른 일본에 대한 호감도를 나타낸 것인데, 이를 통해 2024년 4월 조사에서 남성의 경우, 보수 성향의 응답자가 4.00점으로 진보 성향 4.36점, 중도 성향 4.28점보다 낮은 호감도를 기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보수 성향의 응답이 4.90점으로 중도 성향 4.02점, 진보 성향 3.91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보수 성향의 여성 응답자는 2023년 3월과 2024년 4월 조사에서 각각 4.70점, 4.90점을 기록했는데, 이는 기존의 상한 4.50점을 뚫고 올라온(빨간색 음영 부분) 것으로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다([그림 18] 참고). 이를 통해 앞서 언급된 보수 성향 응답자의 대일 호감도 하락은 '남성' 응답자에서 기인한 것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9. [그림 17]과 [그림 18]을 보면, 보수 성향 남성과 여성의 대일 호감도는 지난 10년간 동일하게 2.5~5.0점 사이에서 움직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1] 성별과 이념 성향에 따른 일본에 대한 호감도 응답 변화
(2018.6, 2019.8, 2023.3, 2024.4) (단위: 점)

	남성				여성			
	전체	보수	중도	진보	전체	보수	중도	진보
2018년 6월	3.41	4.25	3.13	3.05	3.46	3.93	3.50	3.20
2019년 8월	2.51	3.67	2.13	1.93	1.89	3.04	1.59	1.42
2023년 3월	3.78	4.95	3.20	2.71	3.58	4.70	3.57	2.67
2024년 4월	4.32	4.00	4.28	4.36	4.00	4.90	4.02	3.72

자료: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조사(2018년 6월, 2019년 8월, 2023년 3월, 2024년 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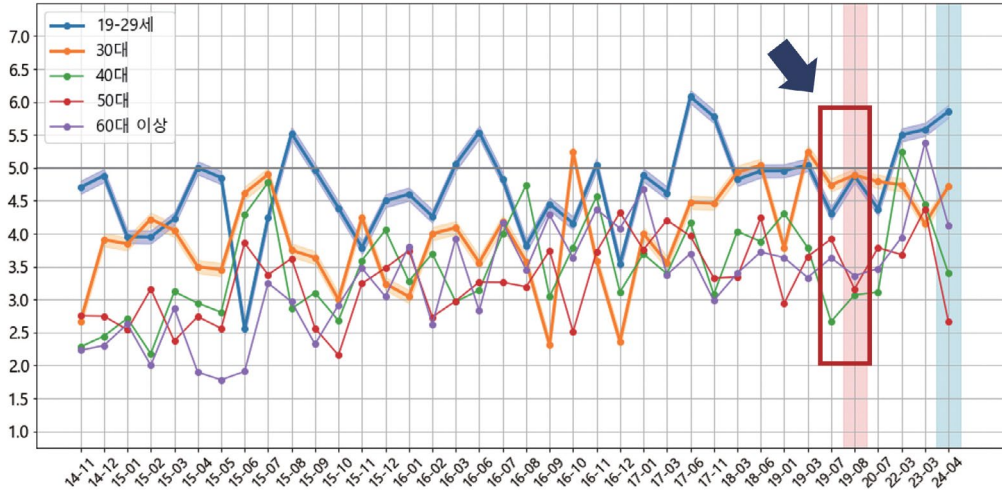
요약하자면, 한일관계 개선의 흐름 속에서 전체적으로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하는 가운데, 남성 보수 성향 응답자는 오히려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하락하며 진보와 중도 성향의 응답자보다 낮은 대일 호감도를 보였고, 여성 보수 성향 응답자의 경우 기준에 나타나던 응답 범위를 벗어난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의 호감도를 보였다.

2) 한일관계 부침에 가장 영향을 적게 받은 '20대 남성 보수'

그렇다면, 연령 변수가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 [그림 19]와 [그림 20]은 각각 보수 성향과 진보 성향 남성의 연령에 따른 일본에 대한 호감도 응답 변화를 나타낸다. 이를 통해 남성 보수 집단이 남성 진보 집단보다 전체적으로 더 위에 위치하며 상대적으로 높은 호감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그림 19]에서는 20대(파란색선) 남성 보수 집단을 중심으로 5.0점을 넘어서는 시점도 여러 차례 관찰된다. [그림 20]의 20대 남성 진보 집단도 다 연령대 대비 높은 대일 호감도를 보이지만, 5.0점을 넘어서는 시점은 같은 연령대 보수 집단에 비해 그 수가 현저히 적다. 또한, 변동폭은 보수 성향보다는 진보 성향 집단에서 더 두드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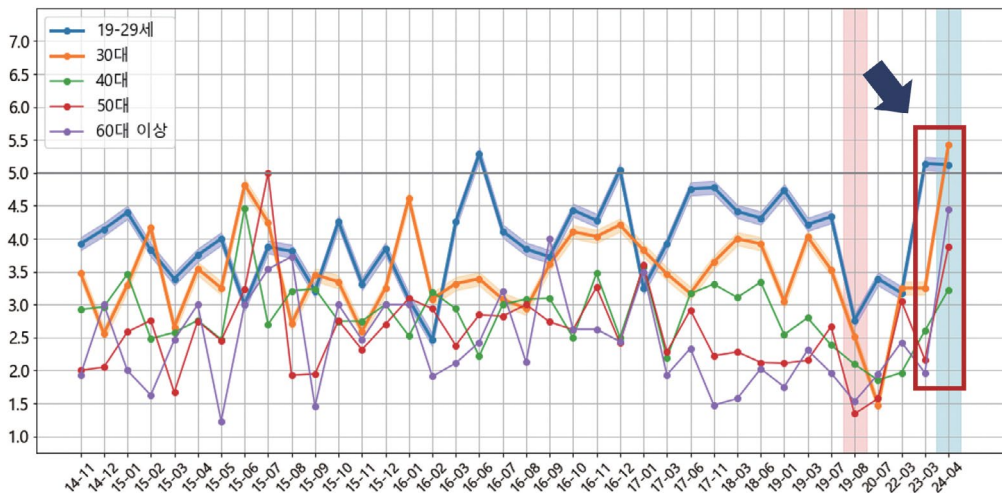
흥미로운 점은 한일관계가 악화된 2019년 8월과 한일관계가 개선된 2024년 4월 시점에서 나타났다. 먼저 한일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하락했던 2019년 8월 남성 진보 성향은 전 연령대에서 대일 호감도가 하락한 데 반해, 남성 보수 성향에서는 40대와 50대, 60대 이상은 하락하였지만, 20대(파란색선)와 30대(주황색선)는

[그림 19] 남성 보수 성향의 연령에 따른 일본에 대한 호감도 응답 변화 (단위: 점)



자료: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조사(2014년 11월~2024년 4월).

[그림 20] 남성 진보 성향의 연령에 따른 일본에 대한 호감도 응답 변화 (단위: 점)



자료: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조사(2014년 11월~2024년 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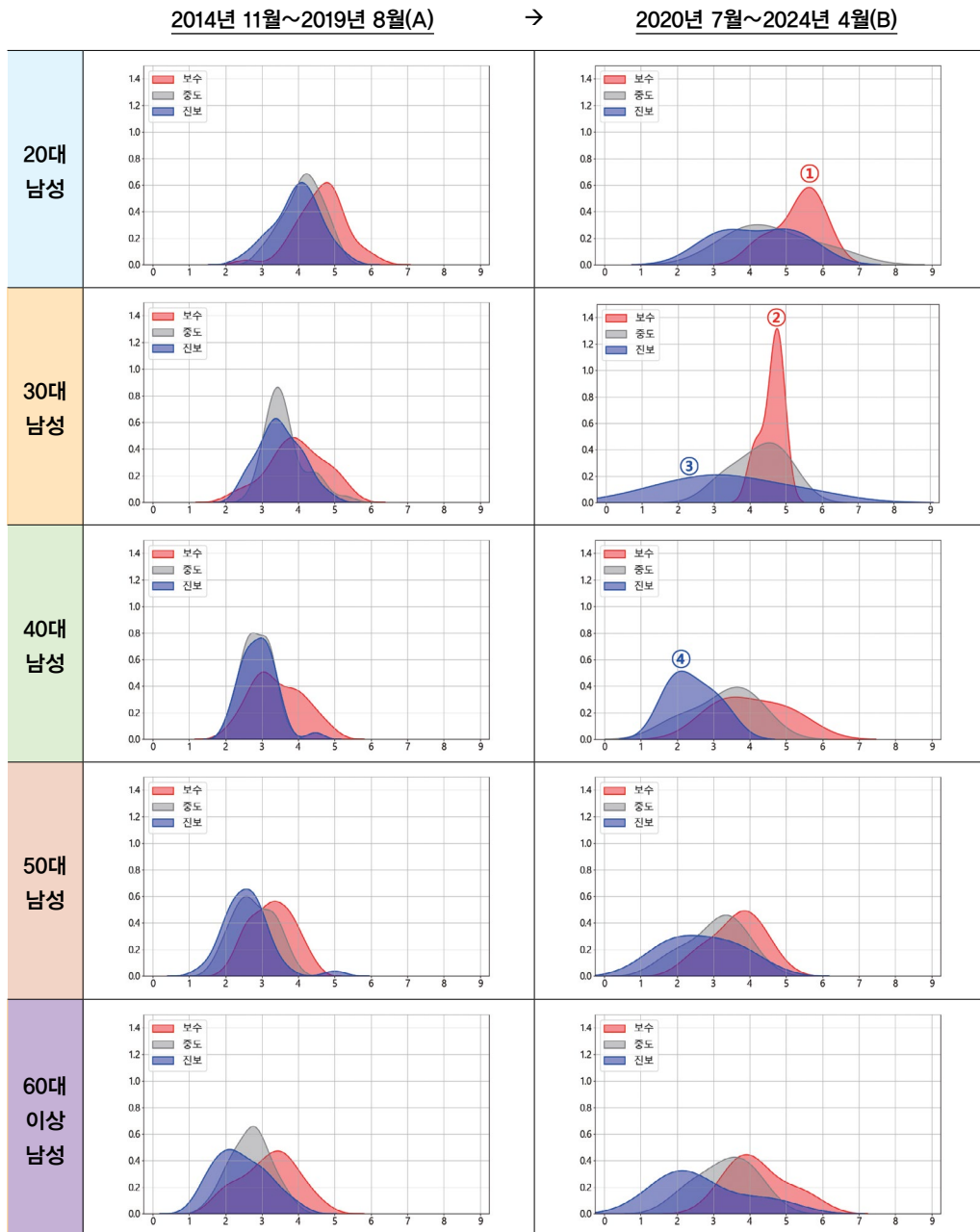
오히려 상승한 것(화살표, ▲)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19] 참고). 특히, 20대 남성 보수는 30대 남성 보수가 2019년 8월 이후 줄곧 그 호감도가 하락하다 2023년 대비 상승한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20대 남성 보수는 한일관계가 회복되기 전인 2020년부터 줄곧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다 2024년 5.86점으로 6점 가까이 기록하며 남성 전체 연령대와 보수, 진보 성향을 통틀어 압도적으로 높은 호감도를 보였다. 같은 연령대인 20대 남성 진보의 경우, 비록 2019년 8월에는 대일 호감도가 하락하였으나, 그 이후 같은 남성 진보 성향 중 타 연령대 대비 대일 호감도가 가장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화살표, ▲)이 관찰되었다([그림 20] 참고). 즉, 2023년 시점에서 20대 남성 진보는 이미 일본에 대한 호감도를 회복하였고, 한일관계가 개선된 2024년에도 그 회복 양상을 유지하였다.

이를 전체 응답 분포에서 살펴보면 어떨까? [그림 21]은 시기별 이념 성향에 따른 남성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 응답 분포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20대 남성의 경우, 2014년 1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A)기간에서 2020년 7월부터 2024년 4월까지 (B)기간으로 오면서 보수 성향(빨간색) 응답 분포의 중심⁵⁰ 이동(4.62점→5.33점, 0.71점 증가)이(①) 확실하게 일어나 호감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중도 성향(회색)과 진보 성향(파란색)의 남성의 경우에도 (A)기간에서 (B)기간으로 오면서 4점대에 집중되어 있던 분포의 봉우리가 낮아지면서 5~6점대로 일부 이동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곧 20대 남성은 한일관계 개선이 되기 시작하면서 보수 성향의 확실한 이동(호감도 증가)이 일어났고, 그 뒤를 따라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점차 좋아지고 있는 중도 성향과 진보 성향이 따라가고 있어 전체적인 20대 남성 호감도의 상승이 앞서 살펴보았던 일본에 대한 전체 호감도 상승을 이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약하자면, 20대 남성 보수 집단은 한일관계의 부침(浮沈) 속에서도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줄곧 상승하며 가장 영향을 적게 받았고, 20대 남성 진보 집단은 한일관계 악화 속 하락되었던 대일 호감도가 개선기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빠르게 회복되었다. 중도 성향도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결국 한일관계 개선기에는 20대 보수 성향 남성의 호감도가 먼저 오르고, 중도와 진보 성향 남성의 호감도가 뒤따라 오르고 있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50. 응답 분포의 중심은 구분별로 각 기간 내 일본에 대한 호감도 응답의 평균값이다.

[그림 21] 시기별 이념 성향에 따른 남성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 응답 분포 변화 (단위: 점)



자료: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조사(2014년 11월~2024년 4월).

3) 20대 남성에 이은 후발주자로 전체 호감도를 견인하는 ‘30대 남성 진보’

[그림 21]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B)기간 동안 30대 남성 보수 성향 집단의 응답이 (A)기간에 비해 4점과 5점 사이에서 많이 분포되어 높게 솟아오른 반면(②), 30대 남성 진보 성향 집단의 응답은 오히려 넓게 퍼진 것(③)이다. 이는 30대 남성 보수 성향 집단이 3점대 중반부터 5점대 중반까지 응답이 집중적으로 분포된 것과 달리, 남성 진보 성향 응답자의 호감도가 0점대부터 9점대까지 넓게 분포가 된 것을 의미한다. 이를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해 보자.

[표 22]는 (B)기간 동안 30대 남성의 이념 성향에 따른 일본에 대한 호감도 응답의 변화와 범위를 알아본 것이다. 이를 통해, 30대 남성 진보 성향은 동일한 연령대의 다른 두 성향과 비교해 기간 내 큰 변화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2020년 7월 대일 호감도는 1.48점으로 직전 조사인 2019년 8월 2.52점보다 더 떨어진 후 2022년 3월, 2023년 3월 조사에서 모두 3.25점으로 3점대 초반에 머물다 2024년 4월 조사에서 5.42점으로 다른 두 성향의 호감도를 뛰어넘는 모습을 보였다. 최댓값에서 최솟값을 뺀 범위도 3.94점으로 보수 0.74점, 중도 2.18점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그림 21]의 (B)기간에 나타난 30대 남성 진보 성향의 넓게 퍼져 있는 분포 모양을 설명한다.

[표 22] 30대 남성의 이념 성향에 따른 일본에 대한 호감도 응답의 변화와 범위 (단위: 점)

30대 남성	보수	중도	진보
2019년 8월	4.89	2.82	2.52
2020년 7월	4.79	4.62	1.48
2022년 3월	4.74	3.29	3.25
2023년 3월	4.15	4.13	3.25
2024년 4월	4.71	5.00	5.42
범위 (최댓값-최솟값)	0.74	2.18	3.94

자료: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조사(2019년 8월~2024년 4월).

이를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표 23]은 시기별 이념 성향에 따른 남성 전 연령대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 응답 분포의 중심 변화를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 30대와 40대 남성 진보를 제외한 전 연령대 남성은 이념 성향과 관계없이 전체적인 일본에 대한 호감도

상승이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60대 이상 남성 보수에서는 (A)기간 3.19점에서 (B)기간 4.23점으로 1.04점 상승하며 타 연령대 대비 가장 높은 상승이 관찰되었다.

30대 남성을 이념 성향별로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 [표 23]에서 (A)기간에서 (B)기간으로 오면서 30대 남성 보수 성향은 3.94점에서 4.60점으로, 중도 성향은 3.64점에서 4.26점으로 이동했고, [그림 21]의 중심 주변에 응답 분포가 밀집되어 있는 모습을 볼 때, 30대 남성 보수 성향 집단은 확실하게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3] 시기별 이념 성향에 따른 남성의 연령대별 일본에 대한 호감도 응답 분포의 중심 변화 (단위: 점)

		2014년 11월~2019년 8월(A)	2020년 7월~2024년 4월(B)	(B) - (A)
20대 남성	보수	4.62	5.33	0.71
	중도	4.13	4.62	0.49
	진보	3.96	4.21	0.24
30대 남성	보수	3.94	4.60	0.66
	중도	3.64	4.26	0.62
	진보	3.50	3.35	-0.15
40대 남성	보수	3.42	4.05	0.63
	중도	2.85	3.27	0.42
	진보	2.91	2.41	-0.50
50대 남성	보수	3.27	3.63	0.36
	중도	2.77	3.05	0.28
	진보	2.59	2.67	0.08
60대 이상 남성	보수	3.19	4.23	1.04
	중도	2.69	3.33	0.64
	진보	2.42	2.69	0.27

자료: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조사(2014년 11월~2024년 4월).

반면, 진보 성향의 경우, 3.50점에서 3.35점으로 이동하여 오히려 0.15점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림 21]의 넓게 퍼진 그래프의 모양과 함께 살펴볼 때, 30대 남성 진보에서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하락했다고 보기보다는 어느 시점에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급격히 상승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그림 20] 참고). [표 23]의 40대 진보 성향 남성 집단에서도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0.50점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림 21]에서 40대 진보 남성의 그래프의 양상이 왼쪽으로 치우친 것(④)과 비교해 볼 때, 30대 남성 진보의 호감도 변화와 40대 남성 진보의 호감도 변화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더욱이 30대 남성 진보의 경우, (B)기간 동안 호감도가 (A)기간에 비해 평균적으로 하락했다고는 하나, 진보 성향 내에서는 20대 남성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보인다.

한편, 이와 같은 결과는 앞서 [그림 20]에서 나타난 2024년 4월 조사에서 30대 진보 성향 남성 집단의 대일 호감도가 20대 진보 남성 집단보다 높게 나온 것과 연관성이 있다. 즉, 해당 조사에서 진보 성향 남성의 경우, 30대가 5.42점으로 20대의 5.12점을 넘어 일본에 대한 호감도 응답이 당시 전 연령대 진보 남성 중 가장 높게 나왔는데, 이와 같은 급격한 변화는 [그림 14]의 2020년 7월~2024년 4월 조사에서 30대 남성의 분포 중 일부가 5점 이상으로 응답해 일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기 시작한 것과도 일치한다.

요약하자면, 30대 진보 성향 남성은 같은 연령대 보수와 중도보다는 느리지만, 다른 연령대 진보 성향 남성보다는 빠르게 일본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루어지며, 20대 남성에 이은 후발주자로서 전체적인 대일 호감도 상승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20대와 30대 남성의 경우, 이념 성향이 대일 호감도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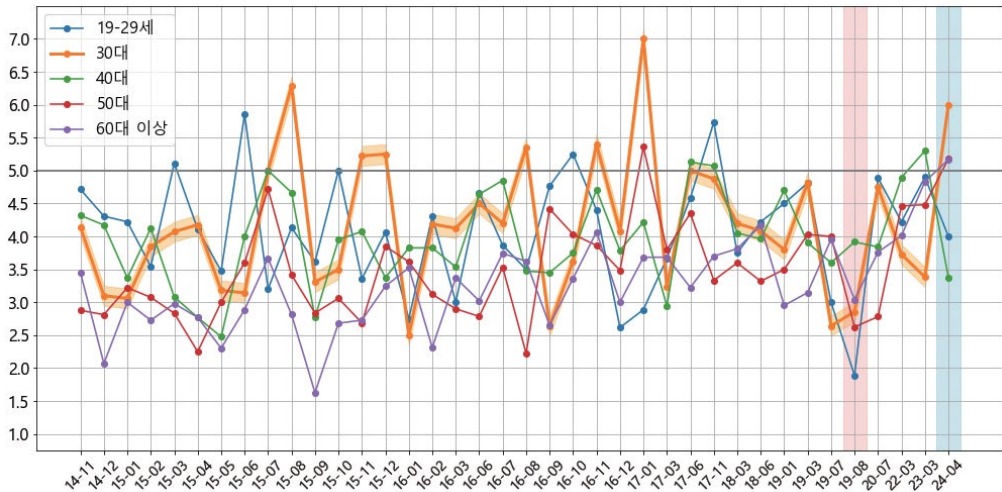
4) 엇갈리는 30대: 가장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30대 여성 보수’

여성은 어떨까? [그림 22]와 [그림 23]을 통해 보수 성향과 진보 성향 여성의 연령에 따른 일본에 대한 호감도 응답 변화를 살펴보았다. 여성 집단에서도 보수 성향 응답자들이 진보 성향 응답자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그래프가 위에 위치하며 더 높은 호감도를 보였으며, 20대와 30대를 중심으로 5.0점을 넘어서는 시점도 다수 관찰되었다. 반면, 진보 성향 여성 응답자 평균이 5.0점을 넘어서는 시점은 전 연령대에서 단 한 차례도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앞의 [그림 19]와 [그림 20]의 남성 집단을 이념 성향에 따라 구분했을 때, 보수 성향보다 진보 성향의 변동성이 더 컸던데 반해, 여성 집단에서는 진보 성향보다 보수 성향의 변동성이 더 크게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30대(주황색선) 여성이었다. 한편, 앞서도 30대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의 변동성은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크다는 결과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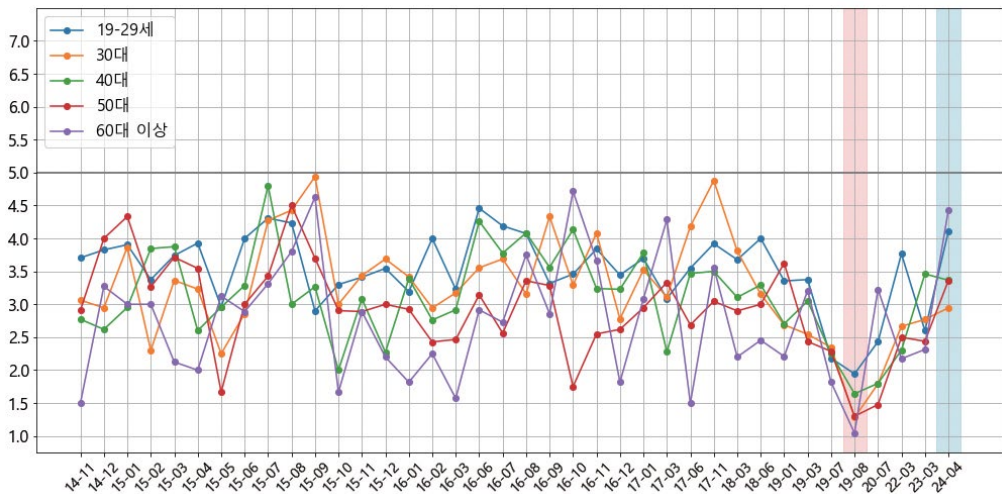
도출한 바 있는데, 보다 세분화하여 살펴본 결과, 30대 중에서도 남성보다 여성, 그리고 여성 진보보다는 여성 보수 집단의 변동성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2] 여성 보수 성향의 연령에 따른 일본에 대한 호감도 응답 변화 (단위: 점)



자료: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조사(2014년 11월~2024년 4월).

[그림 23] 여성 진보 성향의 연령에 따른 일본에 대한 호감도 응답 변화 (단위: 점)



자료: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조사(2014년 11월~2024년 4월).

5) 한일관계 개선 국면에서 가장 긍정적인 ‘30대 여성 보수’ vs. 가장 부정적인 ‘30대 여성 진보’

흥미로운 점은 2024년 4월 조사에서 나타났다. 30대 여성 보수가 전 연령대 여성 집단 대비 가장 높은 호감도를 보인 반면, 같은 시기 가장 낮은 호감도를 보인 것은 30대 여성 진보로 조사된 것이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표 24]는 2024년 4월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한 뒤 연령대별로 보수 성향과 진보 성향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 응답 차이를 나타낸 결과이다. 30대 보수 성향 여성의 경우에는 6.00점으로 전체에서 가장 높은 대일 호감도를 기록한 반면, 30대 진보 성향 여성의 경우에는 2.95점으로 전체에서 가장 낮은 대일 호감도를 기록했다. 또한, [그림 23]에서 알 수 있듯, 30대 여성 진보의 대일 호감도 또한 2019년 이후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지만, 다른 연령대 대비 그 상승 정도가 크지 않다.

[표 24] 2024년 4월 남성과 여성의 이념 성향에 따른 연령대별 일본에 대한 호감도 응답 차이⁵¹⁾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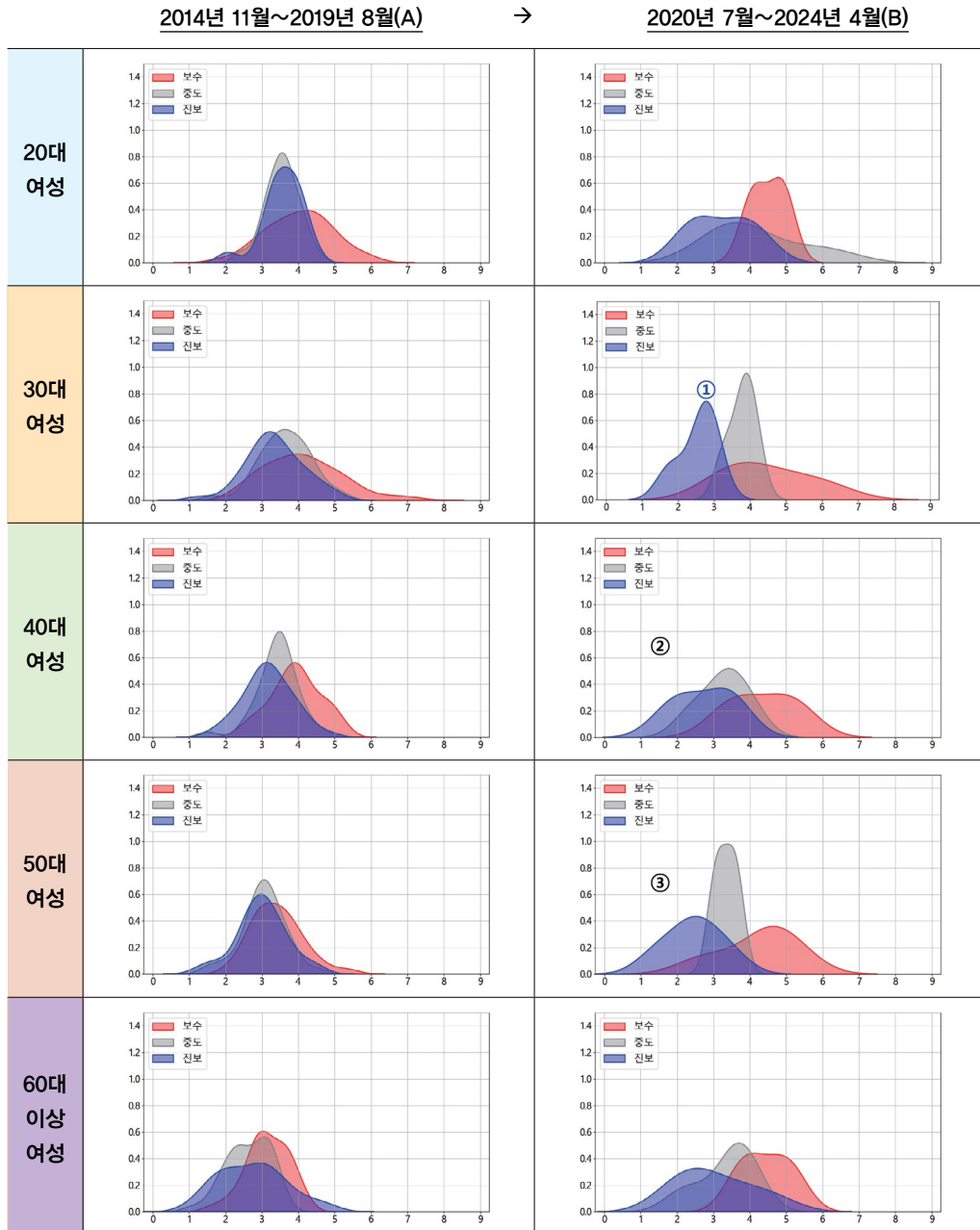
	남성			여성		
	보수	진보	차이	보수	진보	차이
전체	4.00	4.36	-0.36	4.90	3.72	1.18
20대	5.86	5.12	0.74	4.00	4.10	-0.10
30대	4.71	5.42	-0.71	6.00	2.95	3.05
40대	3.40	3.23	0.17	3.38	3.37	0.01
50대	2.67	3.88	-1.21	5.18	3.36	1.82
60대 이상	4.13	4.44	-0.31	5.17	4.43	0.74

자료: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조사(2024년 4월).

10년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 [그림 24]는 시기별 이념 성향에 따른 여성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 응답 분포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앞의 남성의 호감도 응답 분포를 나타낸 [그림 21]과 달리, (A)시기에서 (B)시기로 넘어오면서 각 연령별 보수 성향과

51. 차이는 보수 성향의 대일 호감도에서 진보 성향의 대일 호감도를 뺀 값이다.

[그림 24] 시기별 이념 성향에 따른 여성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 응답 분포 변화 (단위: 점)



자료: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조사(2014년 11월~2024년 4월).

진보 성향의 구분이 뚜렷해지는 것이 관찰된다. 즉, 남성의 경우, (A)시기에서 (B)시기로 넘어가는 한일관계 회복기에 접어들면서 전반적으로 보수 성향 집단의 대일 호감도가 먼저 상승하고, 뒤이어 진보 성향의 대일 호감도가 순차적으로 상승하며 전반적인 호감도 상승을 이끄는 양상을 보였다면, 여성 집단에서는 보수는 대일 호감도가 상승하는 것과 달리, 진보는 하락하며 양분화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특히, 30대 여성은 [그림 24]의 (A)기간에는 이념 성향에 따른 응답 분포 모습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B)기간에는 이념 성향 간 응답 분포의 모습이 확연히 구분되었다. 구체적으로, [표 25]에서 알 수 있듯, (A)기간에서 (B)기간으로 오면서 진보 성향 여성의 대일 호감도는 60대 이상 여성을 제외하고 모두 하락한 것이 관찰된다. 이 중, 30대 여성의 경우 3.34점에서 2.54점으로 타 연령대 대비 가장 큰 폭으로(-0.80점) 하락하였다.

[표 25] 시기별 이념 성향에 따른 여성의 연령대별 일본에 대한 호감도 응답 분포의 중심 변화 (단위: 점)

		2014년 11월~2019년 8월(A)	2020년 7월~2024년 4월(B)	(B) - (A)
20대 여성	보수	4.03	4.50	0.47
	중도	3.54	4.20	0.66
	진보	3.56	3.23	-0.33
30대 여성	보수	4.13	4.47	0.34
	중도	3.64	3.77	0.13
	진보	3.34	2.54	-0.80
40대 여성	보수	3.93	4.35	0.42
	중도	3.41	3.27	-0.14
	진보	3.17	2.73	-0.44
50대 여성	보수	3.42	4.23	0.81
	중도	3.04	3.34	0.30
	진보	2.99	2.44	-0.55
60대 이상 여성	보수	3.15	4.44	1.29
	중도	2.62	3.35	0.73
	진보	2.73	3.04	0.31

자료: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조사(2014년 11월~2024년 4월).

[그림 24]의 그래프의 모양 또한 30대의 여성 진보가 (A)기간 대비 응답 분포가 집약되어 있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30대 여성 집단 내에서 보수 성향과 진보 성향 응답자 간에 일본에 대한 호감도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6) 한일관계 개선 국면에서 이념에 따른 양분화 현상이 나타나는 여성 청장년층

한편, 30대 여성과 같은 동일 연령대 안에서의 이념 성향의 차이는 여성 40대와 50대에서도 유사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림 24]에서 40대와(㉡) 50대(㉢) 여성의 이념 성향에 따른 시기별 응답 분포를 보면, (A)기간에는 두 연령대 모두 이념 성향에 따른 응답 분포 모습의 큰 차이가 없고, 분포의 상당 부분이 겹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반해, (B)기간에는 보수 성향은 오른쪽으로, 진보 성향은 왼쪽으로 움직이며 그 차이가 벌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40대를 살펴보면, 보수 성향의 중심은 3.93점에서 4.35점으로 0.42점 상승했고, 진보 성향의 중심은 3.17점에서 2.73점으로 0.44점 하락해 보수 성향과 진보 성향의 차이가 (A)기간 0.76점에서 (B)기간 1.62점으로 확대됐다.⁵² 50대 역시 보수 성향의 중심은 3.42점에서 4.23점으로 0.81점 상승한 반면, 진보 성향의 중심은 2.99점에서 2.44점으로 0.55점 하락해 보수 성향과 진보 성향의 차이가 (A)기간 0.43점에서 (B)기간 1.79점으로 확대됐다.⁵³ 이러한 30대부터 40대와 50대까지 이어지는 여성 진보 성향 집단의 대일 호감도 하락은 앞서 확인된 성별에 따른 대일 호감도 차이처럼 전체 여성의 대일 호감도가 남성보다 낮게 유지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는 결과로 보인다.

그 외, 20대와 60대 이상 여성의 경우, 남성 집단에서 나온 경향과 같이, 보수 성향이 대일 호감도의 상승을 이끄는 가운데, 중도 성향과 진보 성향이 뒷받침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령대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대 여성의 경우 보수 성향의 중심이 4.03점에서 4.50점으로 0.47점 상승하는 가운데, 중도 성향과 진보 성향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중도 성향은 3.54점에서 4.20점으로 0.66점 상승하였고, 진보 성향은 비록 응답 분포의 중심이 3.56점에서 3.23점으로 0.33점 하락했지만, 이는 30~50대와는 다르게 (B)기간에 응답 분포의 중심이 3.23점으로 3점대 이하로 내려가지 않았다.

52. 40대 여성 중도 성향의 경우, 응답 분포의 중심이 (A)기간 3.41, (B)기간 3.27로 큰 차이가 없었다.

53. 50대 여성 중도 성향의 경우, 응답 분포의 중심이 (A)기간 3.04, (B)기간 3.34로 큰 차이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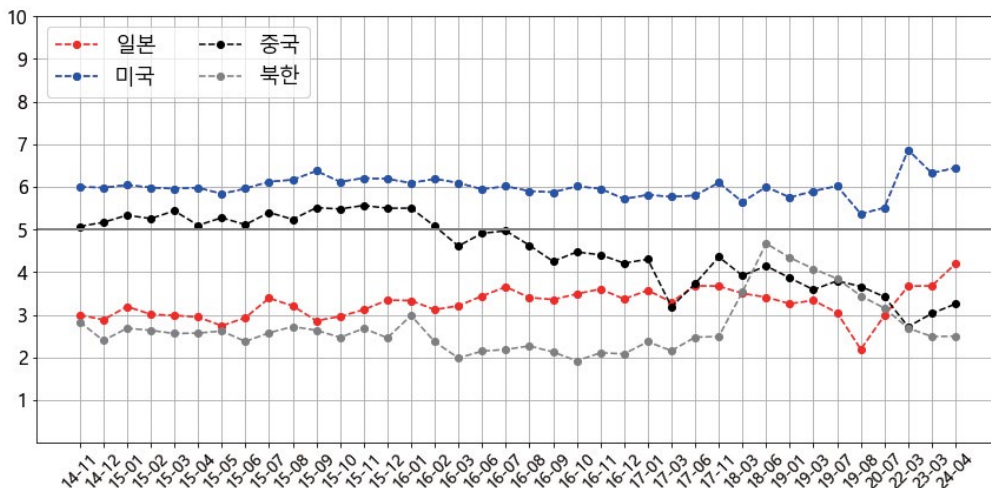
60대 이상 여성의 경우도 보수 성향의 중심이 3.15점에서 4.44점으로 1.29점 상승하는 가운데, 중도 성향이 2.62점에서 3.35점으로 0.73점, 진보 성향이 2.73점에서 3.04점으로 0.31점 상승하며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요약하자면, 여성의 경우, 20대와 60대가 이념 성향에 따른 영향이 제한적으로 나타나며,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데 반해, 청장년층에 해당하는 30대에서 50대 여성 집단에서는 보수 성향 응답자와 진보 성향 응답자 간 일본에 대한 인식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6. 일본과 주변국에 대한 호감도의 상관관계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다른 나라와의 호감도와 연관성이 있을까? [그림 25]에서는 일본과 주변국인 미국, 중국, 북한에 대한 호감도 응답 결과와 비교해 나타냈다.⁵⁴

[그림 25] 일본과 주변국(미국, 중국, 북한)에 대한 호감도 응답 변화 (단위: 점)



자료: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조사(2014년 11월~2024년 4월).

54. 호감도는 응답자에게 각 국가에 대한 호감도를 0점(전혀 호감 없음)부터 10점(매우 호감)까지의 수치로 응답을 받았다.

이를 통해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미국에 대한 호감도와 비교할 때, 호감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변화 양상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19년 8월 한일관계 악화 시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급격히 떨어질 때, 미국에 대한 호감도 역시 동시에 하락하고, 한일관계 개선 시 동시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외 중국과 북한에 대한 호감도와 일본에 대한 호감도의 변화 양상은 눈으로 봤을 때 유사성이 보이지 않는다. 이를 조금 더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방향 변화 일치율(Sign Agreement Ratio)⁵⁵을 계산해 일본과 주변국 간 호감도 응답의 방향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확인했다.

[표 26] 일본과 주변국(미국, 중국, 북한)의 방향 변화 일치율 (단위: %)

주변국	방향 변화 일치율
미국	65
중국	57
북한	54

자료: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조사(2014년 11월~2024년 4월).

[표 26]에서 방향 변화 일치율을 계산한 결과 미국 65%, 중국 57%, 북한 54%를 기록했다. 미국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미국의 방향 변화 일치율이 65%인 것은 호감도를 100번 조사했을 때, 그중 65번을 일본과 미국이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것이다. 반면, 방향 변화 일치율이 50%대인 중국과 북한의 경우, 동전을 던져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인 50%와 큰 차이가 없다. 사실상 일본과 중국, 일본과 북한의 호감도는 특별한 규칙 없이 따로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미국과 중국, 북한 중 일본과 가장 유사한 패턴으로 호감도 응답이 변화한 주변국은 미국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과 중국, 일본과 북한의 호감도 응답 변화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면, 우선 일본의 호감도가 급격하게 하락했던 2019년 8월 이후부터 2024년 4월까지 2.22점에서 4.18점으로 1.96점 상승하며 지속적으로 대일 호감도가 개선되는 동안,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3.66점에서 3.25점으로 0.41점, 북한에 대한 호감도는 3.44점에서 2.50점으로 0.94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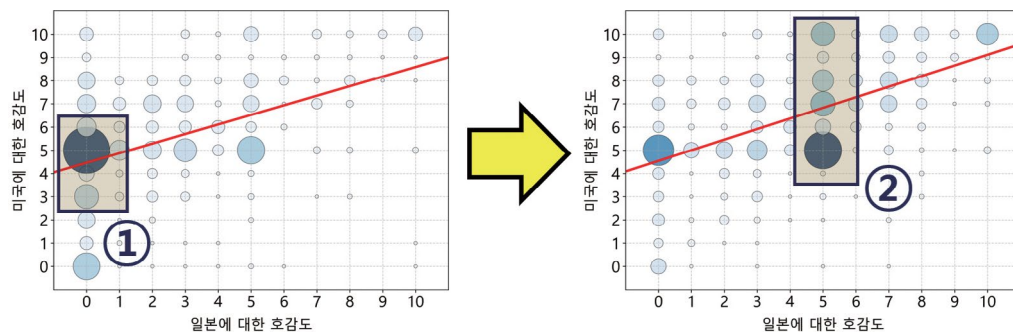
55. 방향 변화 일치율(Sign Agreement Ratio)은 시계열 자료에서 서로 다른 두 그래프가 얼마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여기서는 시점이 변할 때마다 각 국가의 호감도의 상승과 하락을 기록해 시점 별로 얼마나 일치했는지 계산했다.

하락하며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져 대비되는 모습을 보인다.⁵⁶ 역으로, 2016년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에 따라 대중인식이 급격히 악화되던 시기의 대일 호감도는 의미 있는 변화가 보이지 않았고, 2018년 4월 27일 남북이 ‘판문점선언’에 합의하고, 평화의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북한에 대한 호감도가 급상승하던 시기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중국과 일본, 북한과 일본에 대한 호감도 간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무관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1) 일본에 대한 호감도와 미국에 대한 호감도: 긍정적 상관관계

추가적으로 앞서 살펴본 한일관계의 변화가 있던 2019년 8월과 2024년 4월 두 시점에 대해 주변국에 대한 호감도 별로 일본에 대한 호감도와 각각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⁵⁷을 통해 확인해 보았다.

[그림 26] 일본과 미국의 호감도에 대한 산점도와 회귀분석 결과



2019년 8월 (n=988)

2024년 4월 (n=996)

β	R^2	F	β	R^2	F
0.41*	0.19	235.98*	0.46*	0.29	409.60*

* p-value(0.05)

자료: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조사(2019년 8월, 2024년 4월).

56. 미국에 대한 호감도는 2019년 8월 5.37점에서 2024년 4월 6.45점으로 1.08점 상승해 호감도가 증가하는 일본과 같은 모습을 보였다.

먼저 미국에 대한 호감도의 경우, 일본에 대한 호감도와 두 시점 모두에서 서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6]을 보면, 2019년 8월에는 기울기 β 가 0.41로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나타났다. 즉,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1 증가할 때,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0.41 증가한다는 뜻이다. 또한, R^2 가 0.19로 나타남에 따라 회귀 직선이 자료를 19% 정도 설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24년 4월의 결과 역시 기울기 β 가 0.46으로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나타났고, R^2 는 0.29로 2019년 8월보다 증가해 회귀 직선이 자료를 더욱 잘 설명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일본에 대한 호감도와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서로 미치는 영향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는 산점도를 통해서도 동일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6]의 음영 부분은 주로 자료가 많이 관찰되는 부분을 표시한 것인데, 2019년 8월(①)에는 그림의 좌측 중간쯤 있던 다수의 자료가 2024년 4월(②)에는 그림의 가운데 위쪽으로 이동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2019년 8월 악화되었던 한일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할 때, 동시에 미국에 대한 호감도 역시 증가하는 모습**이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역으로 생각해 봤을 때도 설득력이 있다. 통일연구원이 2023년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워싱턴 선언’ 발표 전후로 주변국에 대한 호감도를 -5점에서 5점 사이의 점수를 매겨 조사한 결과, 한미정상회담 이후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큰 폭으로 상승(-1.34→-0.62)한 것으로 나타났다.⁵⁷ 이러한 결과는 한미정상회담의 결과가 미국과의 관계를 넘어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기대감에 따른 일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일본에 대한 호감도와 중국·북한에 대한 호감도: 미미한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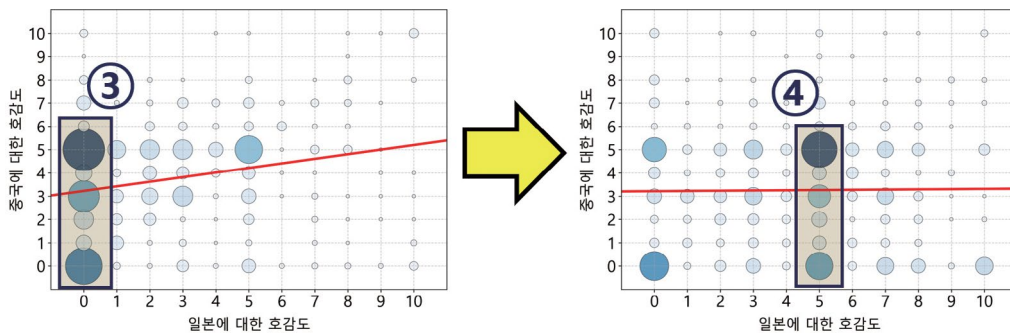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어떨까? 2019년 8월에는 일본에 대한 호감도와 상호 영향력이 다소

57. 회귀분석 결과에서 β 는 산점도에서 빨간색 직선의 기울기를 뜻하며, 여기서는 p-value가 0.05보다 작게 나타났을 때, 유의수준 5%하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라고 판단했다. 또한, R^2 는 직선이 데이터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를 나타내는 값으로 1에 가까울수록 데이터를 잘 설명하고, 0에 가까울수록 자료를 잘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F의 경우 회귀분석 자체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지를 판단하는데, 여기서는 p-value가 0.05보다 작게 나타났을 때, 유의수준 5%하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라고 판단했다.

58. 헤럴드경제. “한미 정상회담 뒤 ‘日호감’ 여론 증가…北中 호감도는 변화 없어”. (2023.6.6) <https://biz.heraldcorp.com/article/3140755>

존재했는데, 2024년 4월에는 서로에 대한 영향력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7]을 보면 2019년 8월에는 R^2 가 0.05로 회귀 직선이 자료를 5%정도 설명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비록 낮은 설명력이지만, β 와 F 의 통계적 유의성으로 확인했을 때, 약하지만 일본에 대한 호감도와 중국에 대한 호감도 사이의 관계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 정도이다.⁵⁹

[그림 27] 일본과 중국의 호감도에 대한 산점도와 회귀분석 결과



2019년 8월 (n=986)

2024년 4월 (n=993)

β	R^2	F	β	R^2	F
0.20*	0.05	51.59*	0.01	0.00	0.73

* p-value(0.05)

자료: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조사(2019년 8월, 2024년 4월).

그러나 2024년 4월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기울기 β 는 0.01, R^2 는 0.00으로 나타남에 따라 그 영향력이 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산점도를 통해 추가로 확인해보면, 2019년 8월(③)에 좌측 하단에 있던 다수의 자료가 2024년 4월(④)에는 그림의 중간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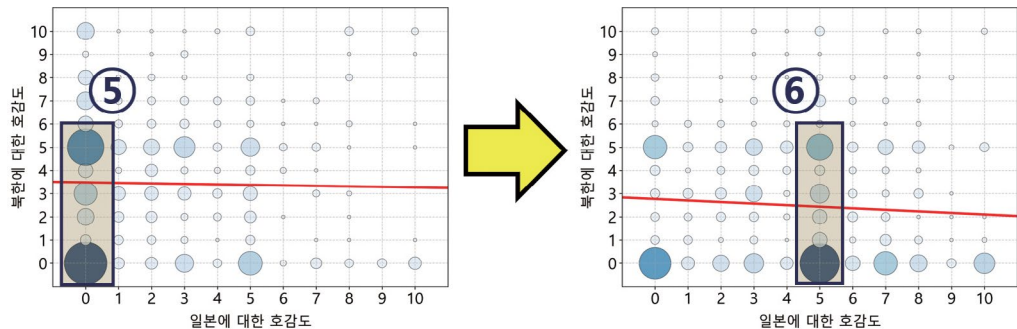
59. [그림 25]를 통해 추가로 확인해보면, 중국에 대한 호감도의 경우 2019년 8월 이전에도 2014년 11월 첫 조사부터 지속적인 하락 흐름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2019년 8월에 약하지만 두 국가에 대한 호감도가 서로 영향이 있다고 나온 분석 결과는 일본에 대한 호감도에 대한 부정적인 사건이 있었을 때,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영향을 받은 것보다는 각 국가에 대한 호감도가 개별적(독립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발생한 결과라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단으로 이동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2019년 8월 악화되었던 한일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할 때, 중국에 대한 호감도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즉, 일본에 대한 호감도의 변화에 따른 중국에 대한 호감도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에 대한 호감도 또한, 두 시점 모두에서 서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8]을 보면, 두 시점의 기울기 β 가 모두 0에 가깝고, 회귀 직선이 자료를 설명하는 정도인 R^2 역시 0에 가깝게 측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시점에 상관없이 일본에 대한 호감도와 북한에 대한 호감도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산점도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2019년 8월(⑤) 그림의 좌측 하단에 있던 다수의 자료가 2024년 4월(⑥)에는 그림의 중간 하단으로 이동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2019년 8월 악화되었던 한일관계가 개선되어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함과 무관하게 북한에 대한 호감도는 계속해서 낮게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8] 일본과 북한의 호감도에 대한 산점도와 회귀분석 결과



2019년 8월 (n=981)

2024년 4월 (n=987)

β	R^2	F	β	R^2	F
-0.02	0.00	0.38	-0.07	0.01	4.87*

* p-value<0.05

자료: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조사(2019년 8월, 2024년 4월).

이상의 분석을 통해,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주변국 중 미국에 대한 호감도와 동일한 움직임을 보이는 경향이 있고, 중국과 북한에 대한 호감도와는 상호 간 영향이 무관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미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Ⅲ. 분석 및 합의

1. 한국인의 대일 인식: ‘세대’와 ‘이념’의 기로에서

한일관계의 부침 속에서 한국의 대일 인식은 어떻게 변화해 왔을까? 본 원에서 2014년 1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지난 10년간 시행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대일 인식은 긍정인식보다 부정인식이 높게 나타났다([그림 1] 참고).⁶⁰ ‘한국갤럽’, ‘한국일보-読売新聞(요미우리신문)’, ‘동아시아연구원-言論NPO(젠론NPO)’ 등 한국의 대일 인식을 조사한 주요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동일한 흐름이 관찰되었다.⁶¹ 한편, 2023년 이후 한일관계 개선의 흐름 속에서 시행된 여론조사에서 한국의 일본에 대한 인식은 일제히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⁶² 그 이면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을까? 또한 최근 일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상승 경향은 일시적인 현상인가, 혹은 한국인의 대일 인식에 구조적인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것인가?

이와 같은 질문에서 시작된 본 연구에서는 본 원에서 지난 10년간 시행한 여론조사 데이터를 근거로 한국의 대일 인식을 성별, 연령, 이념 성향, 주변국에 대한 호감도 등을 중심으로 보다 상세히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①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50,60대보다는 ‘20,30대’가, 진보 성향보다는 ‘보수 성향’의 응답자에게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긍정이슈와 부정이슈 등 ②한일관계 변동 속에서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남성보다는 ‘여성’, 다른 연령대보다 ‘30대’, 보수 성향보다는 ‘진보 성향’ 응답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③주변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미국’에 대한 호감도와 일본에 대한 호감

60. 상세내용은 최은미, 2021, 「한국과 일본, 우리는 서로에게 무엇인가: 한국과 일본의 상호인식과 한일관계」, ASAN REPORT, 아산정책연구원 참고.

61. 조사에 따라 ‘호감도(한국갤럽)’, ‘친근감(한국일보-読売新聞)’, ‘신뢰감(한국일보-読売新聞)’, ‘인상(동아시아연구원-言論NPO)’ 등 다르게 표현되었다. 이를 포괄하여 지칭할 경우 ‘인식’으로 표현하며, 각 조사에 한정하여 언급할 경우, 각 조사에서 사용한 표현으로 지칭하도록 한다.

62. 연구배경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일보와 요미우리신문, 동아시아연구원, 본 원의 여론조사 모두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다. 상세사항은 Ⅰ. 연구배경 참고.

도는 서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국 및 북한에 대한 호감도와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무관할 정도로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이를 보다 세분화하여 살펴보니, 보다 흥미로운 결과가 관찰되었다.

첫째, 성별에 따른 대일 호감도 차이가 한일관계 변동기에 크게 나타났는데, 전체적으로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여성은 2019년 한일갈등 국면에서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급격히 하락하였고, 2023년 이후 한일관계 개선 국면에서도 호감도가 여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태였다.

둘째, 연령별 대일 인식 차이가 뚜렷하며, 일부 연령대에서는 성별 차이도 두드러졌다. 특히, 20대와 30대 남성의 대일 호감도가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게 나타난 데 반해, 30대 여성의 호감도는 전체 연령대 중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곧 ①현재 관찰되는 젊은 세대의 높은 대일 호감도는 정확히는 ‘남성’, 그중에서도 ‘20대 남성’ 전인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30대는 한일관계 악화와 개선의 흐름 속에서 대일 호감도의 변동폭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②‘30대 여성’이 같은 연령대 남성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40대와 50대는 전반적으로 일본에 대해 낮은 호감도를 보이는데, 그중에서도 ③‘40대’의 대일 호감도는 남성과 여성 모두 가장 변동성이 적은 부정 인식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한일관계 악화 및 개선 등 변동기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④50대는 40대에 비해서는 양호하나, 전반적으로 정체된 양상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⑤60대 이상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지난 10년간 가장 긍정적으로 변화했으며, 그중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더 크게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보수 성향의 집단보다 중도와 진보 성향 집단의 대일 호감도 변동폭이 크게 나타났다. 앞서 확인했듯, 일반적으로 보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높고, 진보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일본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다는 가설은 통계적으로 실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다만, 이 안에서도 성별과 연령 변수가 더해지자, 주목할 만한 결과가 관찰되었다. 한일관계 개선 국면에서 한국의 대일 호감도 전반을 전인하고 있는 ‘20대와 30대 남성’의 경우,

이념 성향과 무관하게 일본에 대해 높은 호감도를 보였고, 한일관계 개선 국면에서 같은 연령대 보수의 호감도가 먼저 상승하고, 중도와 진보가 호감도가 뒤이어 상승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특히, 다른 연령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대일 호감도를 보이는 20대 남성 보수는 한일관계 부침에 가장 영향을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남성만큼은 아니지만, 30대 남성도 이들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며, 후발주자로서 한국의 대일 호감도를 견인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그런데 같은 연령대인 30대 여성의 경우는 달랐다. 앞서 30대의 경우, 남녀 모두 지난 10년간 대일 호감도에 있어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큰 변동성을 보였다는 것을 언급하였는데, 그중에서도 여성의 변동성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30대 남성’과 ‘30대 여성’ 간 차이가 나타나고, 이념 성향 변수가 더해지자, 여성 내에서 다시 ‘30대 여성 보수’와 ‘30대 여성 진보’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대표적인 예로, 2024년 4월 조사에서는 ‘30대 여성 보수’는 성별, 연령대, 이념 성향 전체에서 가장 높은 대일 호감도(6.00점)를 기록했고, ‘30대 여성 진보’는 가장 낮은 대일 호감도(2.95점)를 기록했다([표 24] 참고).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40대와 50대 여성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다른 연령대 대비 상대적으로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낮은 연령대이지만, 그 안에서도 여성 그룹 내에서 보수와 진보의 인식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그림 24], [표 25] 참고). 한편, 60대 이상에서는 성별 및 이념 성향과 무관하게 전반적으로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하며, 남성, 그리고 20대 여성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진보가, 여성의 경우 보수가 호감도 상승이 더 높게 나타났다.

요약하자면, 지난 10년간 한국의 대일 호감도의 전체적인 상승은 일어나고 있으나, 20대와 30대 남성에 의존하는 정도가 크다. 이념 성향과 대일 호감도의 통계적 상관관계는 입증되었으나, 여성 30대부터 50대까지 청장년층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오히려 성별과 세대 간 대일 인식의 차이가 이념 성향에 따른 대일 인식 차이보다 더 두드러진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27]과 같다.

이와 같은 차이는 왜 발생하며, 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와 같은 결과에 담겨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또한, 이는 일시적인 현상인가, 혹은 한국인의 대일 인식에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나아가 이처럼 분절화된 대일 인식 속에서 한국은 향후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가?

[표 27] 한국의 대일 인식 변화 추이 특징(2014~2024): 연령, 성별, 이념 성향을 중심으로

	전체	남성	여성
전체	꾸준한 증가 ⁶³	여성보다 높고, 연령대별 다양한 대일 호감도	남성보다 낮고, 수렴하는 연령대별 대일 호감도
20대	꾸준하게 가장 높은 대일 호감도	이념 성향 구분 없이 높은 20대 남성과 여성의 대일 호감도	
		유일하게 긍정(5점 이상)으로 전환된 연령대, 20대 남성 ⁶⁴	여성 중 높은 수준의 호감도
30대	높은 호감 대비 큰 변동	높은 변동의 이유: 엇갈리는 30대 남성과 여성 ⁶⁵ 가장 높은 남성의 대일 호감도 vs. 가장 낮은 여성의 대일 호감도	
		꾸준하게 높은 보수와 최근 급격히 상승한 진보	상승하는 보수, 하락하는 진보 ⁶⁶ 가장 높은 여성 30대 보수 vs. 가장 낮은 여성 30대 진보
40대	상대적으로 개선되지 않은 대일 호감도	50대와 60대 이상보다 낮아진 40대의 대일 호감도	
		상승하는 보수, 멈춰 있는 진보	상승하는 보수, 하락하는 진보
50대		정체된 50대의 대일 호감도	
		상승하는 보수, 멈춰 있는 진보	상승하는 보수, 하락하는 진보
60대 이상	가장 극적인 인식 개선	전반적인 인식 개선 속 최근 나타난 성별 간 이념 성향에 따른 대일 호감도 우위 차이	
		보수<진보	보수>진보

자료: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조사(2014년 11월~2024년 4월) 분석 내용 활용하여 필자 정리.

63. 2019년에 수출규제라는 사건에 의한(event driven) 대일 호감도의 일시적인 급격한 하락이 있었지만, 이 시점을 제외한 대일 호감도의 추이를 봤을 때,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4) 참고).
64. 2024년 4월 기준으로 남성 20대는 이념 성향에 상관없이 5점 이상을 기록(보수 5.86점, 진보 5.12점)해 남성과 여성 전체 연령대 중 유일하게 대일 호감도가 긍정으로 전환되었다.
65. 2024년 4월 기준으로 남성 30대는 성별, 연령대 전체에서 가장 높은 대일 호감도(5.35점)를 기록했고, 여성 30대는 가장 낮은 대일 호감도(3.42점)를 기록했다(표 8) 참고).
66. 2024년 4월 기준으로 여성 30대 보수는 성별, 연령대, 이념 성향 전체에서 가장 높은 대일 호감도(6.00점)를 기록했고, 여성 30대는 가장 낮은 대일 호감도(2.95점)를 기록했다(표 24) 참고).

본 연구에서는 지난 10년간의 조사 결과, 가장 특징적인 변화를 보였던 ①20대 남성의 이례적으로 높은 대일 호감도, ②30대 남녀 및 여성들의 이념에 따른 인식 차이, ③30,40대 여성의 부정적 대일 인식, ④40,50대의 정체된 대일 호감도에 주목하였다.

1) 세대의 변화, 한일관계의 변화

세대 연구의 대표적 사회학자인 칼 만하임(Karl Mannheim)은 동일한 시기에 태어난 세대들이 동일한 생애주기 단계에서 동일한 역사적 사건을 경험함으로써 의식과 행위양식 면에서 동질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한다.⁶⁷ 실제로, 같은 연령대의 사람들은 비슷한 사회적 기억과 경험을 공유하며, 유사한 사고방식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는데, 이를 기반으로 연령에 따른 인식의 변화를 설명할 때 ‘연령효과(aging effect)’와 ‘코호트 효과(cohort effect)’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먼저 ‘연령효과’란,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생애주기 동안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생각, 태도, 인식, 가치선호, 정치적 성향의 변화 등으로, ‘생애주기 효과’라고도 부른다.⁶⁸ ‘코호트 효과’란, 특정 연도 또는 연속되는 연도에 태어나서 비슷한 사회 환경에 노출되면서 공통의 정치, 사회, 문화의 경험을 공유하는 집단이 특정사건을 경험하고, 그 영향이 나이가 들어도 유지되는 것을 의미한다.⁶⁹ 코호트의 분류 기준은 다양하나, 1950년도 이전 출생자를 ‘전쟁세대’, 1951~1960년 출생자를 ‘산업화세대’, 1961~1970년 출생자를 ‘386세대’, 1971~1980년 출생자를 ‘X세대’, 1981~1990년 출생자를 ‘IMF세대’, 1991~2002년 출생자를 ‘밀레니얼 세대’로 구분한다.⁷⁰ 최근에는 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201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를 통칭하여

67. Mannheim, Karl, 1952, "The Problem of Generations," 「Essays on the Sociology of Knowledg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p.276-320; 박재홍, 2001, "세대연구의 이론적·방법론적 쟁점," 「한국인구학」 24(2), pp.47-78.

68. 이내영·정한울, 2013, "세대균열의 구성 요소 코호트 효과와 연령 효과," 「의정연구」 40, pp.37-83.

69. 좀 더 세분화할 경우, '시기효과'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시기효과'란, 특정 시점에 발생한 역사적 사건이나 급격한 사회변동이 사회구성원 전체의 사고방식 및 행위에 포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효과로, 전 세대가 공유하는 경험에 따른 태도 변화를 지칭한다. '시점효과', '시대효과', '기간효과'라고도 불린다. - 이혜원, 2020, "연령효과, 시기효과, 코호트효과와 비교 분석 - 기업의 사회공헌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70. 이상신 외, 2020, 「KINU 통일인식조사 2020: 주변국 인식 비교연구」, 통일연구원.

‘MZ세대’로 부르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10년간의 흐름을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간의 흐름을 고려하고(즉, 2014년 20대 응답자가 2024년 30대가 되는 경우 등), 특정사건이 미치는 사회적 범위와 영향력이 인위적으로 10년 단위로 끊을 수는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출생연도에 따른 세대 구분은 참고하되,⁷¹ 좀 더 넓은 연령대를 기반으로 현황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특히, 한일관계 부침의 역사 속에서 한국에서의 일본, 일본에서의 한국의 위상 변화를 살펴보고, 그 안에서 각 세대와 성별, 이념 성향에 따른 한국의 대일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2) 20대 남성의 높은 대일 호감도: 대중문화 개방 이후 태어난 세대가 마주하는 일본

젊은 세대의 일본에 대한 높은 호감도는 그간 많은 연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화적 영향에서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이후 한국에 일본 대중문화가 단계적으로 개방되고,⁷² 약 3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일본의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영화, 소설 등은 한국 내로 자연스럽게 유입되었다.

그런데 사실 1998년 대중문화가 본격적으로 개방되기 시작하기 전부터 일본 문화는 한국에 상당 수준 침투되어 있었다. 1970년대 어린이 잡지에는 ‘바벨 2세’와 ‘유리의 성’이라

71. 2024년 기준 10년간 여론조사 시점 응답자의 출생연도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2014년	2019년	2024년	세대 구분
20대	1985년~1994년	1990년~1999년	1995년~2004년	(M+Z)
30대	1975년~1984년	1980년~1989년	1985년~1994년	(IMF+밀레니얼)
40대	1965년~1974년	1970년~1979년	1975년~1984년	(386+X)
50대	1955년~1964년	1960년~1969년	1965년~1974년	(산업화+386)
60대 이상	1954년 이하	1959년 이하	1964년 이하	(산업화)

72. 일본 대중문화는 단계적으로 개방되었는데, 1차 개방(1998.10)에서는 영화 및 비디오의 제한적 개방, 2차 개방(1999.9)에서는 영화 및 비디오, 공연의 제한적 개방, 3차 개방(2000.6)에서는 영화 및 비디오, 애니메이션, 음반, 게임의 제한적 개방과 대중가요 공연 전면개방, 4차 개방(2004.1)에서는 영화, 음반, 게임 분야 등 전면 개방이 이루어졌다.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일본대중문화개방”. <https://www.archives.go.kr/next/new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3027&sitePage=> (검색일: 2025.1.20)

는 일본 만화가 연재되며 높은 인기를 얻고 있었고,⁷³ 1980년대에는 ‘은하철도 999’, ‘개구리 왕눈이’, ‘들장미 소녀 캔디’ 등의 일본 만화가 버젓이 TV에서 방영되고 있었다. 본격적인 대중문화 개방은 1998년을 기점으로 이루어졌지만, 일본 만화는 1990년대 이미 전성기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한국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었다. ‘드래곤볼’, ‘슬램덩크’, ‘피구왕 통키’, ‘명탐정 코난’, ‘포켓몬스터’, ‘세일러문’ 등 당대를 풍미했던 만화와 애니메이션은 그 시대의 유년기를 보내온 세대들에게는 빼놓을 수 없을 만큼 큰 인기였다. 당시의 콘텐츠들이 일본에서 온 것이라는 점을 인지했던 것은 아니지만,⁷⁴ 그들의 기억 속에 이러한 인기 만화들은 어린 시절의 추억이자, 기억의 한 부분으로 남았다. 뿐만 아니라, 이미 음악, 방송, 프로그램 등 많은 문화와 미디어 콘텐츠가 한국에 전파되어 있었다. 즉, 한국에서의 일본 문화는 1998년 공식적인 개방을 하기 전 이미 상당 부분 한국 사회에 들어와 널리 퍼져 있던 것이었다.

다만, 이러한 문화 콘텐츠의 유입이 공식적인 개방하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기에 그 유입 경로 또한 옳은 것만은 아니었다. 당시의 법적, 사회적 제약으로 인해 일본 문화의 상당수는 비공식적 경로를 통해 유입되었고,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시절 해적판과 표절 등이 적지 않았으며,⁷⁵ 이에 대한 규제도 충분하지 않았다. 이들은 많은 부분 한국 실정에 맞추어 현지화 되어 수용자의 대부분은 그것이 일본에서 왔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⁷⁶ 이러한 금지와 억제의 시대에서⁷⁷ 일본의 것인지도 모른 채, 유년 시절 제한적인 일본 문화를 향유하며 자라온 세대의 대부분이 현재의 30대 일부, 그리고 40대 이상 세대들에 해당한다.

73. 뉴스포스트, “[1970년대 어린이잡지]④ 반공 만화 혹은 일본 만화”. (2022.4.14) <https://www.news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98144> (검색일: 2025.1.21)

74. 필자가 인터뷰한 다수의 40대 남성과 여성들은 공통적으로 어린 시절 즐겨본 만화들이 일본의 것이라는 점을 몰랐다고 답했다. 특히, 남성들은 어린 시절 모르고 봤던 만화들이 일본만화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일종의 배신감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다고 답했다. 반면, 20대들은 어린 시절 보았던 애니메이션이 일본에서 온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오히려 반갑고, 좋았다고 답했다.

75. 서울신문, “[K-코믹스 신한류 이끈다] ③ 1970~80년대 만화를 말하다”. (2012.5.7)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507018001> (검색일: 2025.1.21)

76. 한국경제, “[특파원 칼럼] 1980년대 일본, 요즘의 한국”. (2011.7.4) <https://www.hankyung.com/article/2011070468281> (검색일: 2025.1.22)

77. 김성민, 2017. 『일본을禁하다: 금제와 욕망의 한국 대중문화사: 1945-2004』. 글항아리.

한편, 2024년 현재 기준, 20대 대다수는 1998년 대중문화 개방 이후 일본 문화를 접하게 된 세대로, 한국에서의 일본 문화의 의미와 문화 개방까지의 굴곡의 역사를 모르거나, 알고 있다 하더라도 개의치 않아 하는 경우이다. 이들이 유년기에⁷⁸ 대중 문화를 접하기 시작했을 때, 이미 한국에서 일본 문화에 대한 거부감은 상당히 낮아진 시기였고, 그들이 접한 일본 문화는 각종 제약 속 한국에 맞춰진 일본 문화가 아니라, 일본 문화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그들의 유년 시절 ‘원피스’, ‘짱구는 못말려’, ‘이누야샤’, ‘도라에몽’ 등 일본 애니메이션이 큰 인기를 얻었고, 영화와 소설 등도 큰 주목을 받았다.

예를 들어, 1995년에 제작된 일본영화 ‘러브레터’는 1999년 국내에서 처음 개봉한 이후 8차례나⁷⁹ 재개봉할 정도로 큰 인기를 누렸고, 일본 소설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2011년도에는 19.3%, 2018년도에는 31.0%에⁸⁰ 달할 정도였다. 2017년 교보문고의 발표에 의하면 당해 1월부터 10월까지 일본 소설 판매량은 약 82만 권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⁸¹

2019년 7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로 인해 한국 내 반일정서와 불매운동 등이 확산되고, 코로나19가 발발하며 양국 간의 교류가 제한되기도 하였지만, 코로나19의 완화와 한일관계가 개선되며, 문화 교류와 인적 교류 등도 활발하게 재개되었다. 불매운동의 상징이었던 ‘아사히 맥주’와 ‘유니클로’ 등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고,⁸² 2023년 개봉한 ‘귀멸의 칼

78. 20세기 발달심리학의 대표적 심리학자인 피아제(Piaget)는 그의 ‘인지발달이론’에서 경험에 기초한 사고, 논리적 사고와 보존개념 획득, 공통점과 차이점, 관련성 등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로 7~12세(구체적 조작기)를 꼽는다. - Herbert Ginsburg, Sylvia Oppen, 2018, 『Piaget’s Theory of Intellectual Development』, Savvas Learning Company. 필자가 인터뷰한 대다수의 응답자들도 연령대와 무관하게 어린 시절 보았던 만화와 애니메이션에 대한 기억이 시작되는 시기로 유치원, 혹은 10대 초반을 꼽았다.

79. 1999년, 2013년 2월, 2013년 11월, 2016년, 2017년, 2019년, 2020년, 2022년, 2025년 (30주년) 개봉까지 총 9회 개봉했다.

80. 동아일보, “출판가 ‘日流’… 日소설 점유율 한국소설 첫 추월”. (2018.12.19) <https://www.donga.com/news/Culture/article/all/20181219/93363787/1> (검색일: 2025.1.20)

81. KBS, “[문화광장] 올해 일본 소설 판매량 82만 권…역대 최고”. (2017.11.07)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3568002> (검색일: 2025.01.25)

82. 한국경제, “아사히맥주 품절사태, 너도나도 일본여행…MZ는 ‘예스재팬’”. (2023.9.6)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9069175g>; 동아일보, “유니클로, 韓서 1조 육박 매출 올려…“노재팬 영향 벗어났다””. (2023.12.11)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31211/122578690/1> (검색일: 2025.1.25)

날'은 개봉 100일간 누적관객 수 193만여 명을 달성했고,⁸³ 뒤이어 '스즈메의 문단속', '더 퍼스트 슬램덩크' 등 일본 애니메이션이 극장가에 공개되며 큰 인기를 얻었다.⁸⁴ 같은 해, 한국인들이 즐겨보는 출판 만화 상위 10개 중 8개가 일본 만화였으며,⁸⁵ 20대와 30대들은 일본에서 주로 마시는 '하이볼'의 한국 내 인기를 주도하기도 했다.⁸⁶ 여행 수요도 증가했다. 2022년부터 방일외국인 중 1위는 한국인이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의 2030세대가 가장 많이 찾은 여행지는 일본으로 나타나기도 했다.⁸⁷ 이와 같은 일본 문화, 일본 콘텐츠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일본어에 대한 관심으로도 이어졌다. 2024년 상반기 일본어 학습서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86.8% 증가했고, 10대 국어 외국어 사전 분야 베스트셀러 1위에 유일하게 일본어 관련 도서가 외국어 분야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⁸⁸

그렇다면, 이처럼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일본 문화를 접하고 자라며, 한국에서의 일본 문화의 인기를 목도하며 자란 한국의 20대와 30대들에게 일본은 어떤 모습일까? 특히,

-
83. 조선일보. "100일간 190만 관객... '反日 불매운동' 잠재운 日애니의 경제학". (2023.7.30) <https://www.chosun.com/economy/industry-company/2021/05/07/STUWSX3JGJDQPOAXYRTITHSGHA/> (검색일: 2025.1.28)
84. 연합뉴스. "[박스오피스] 스즈메의 문단속·슬램덩크, 1·2위...일본 애니 강세". (2023.3.13) <https://www.yna.co.kr/view/AKR20230313087500005> (검색일: 2025.1.20)
85. 2023년 기준 즐겨보는 출판만화 상위 10순위로, '원피스', '슬램덩크', '명탐정 코난', '귀멸의 칼날', '이태원 클라쓰', '나루토', '열혈강호', '드래곤볼', '짱구는 못말려', '진격의 거인'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이태원 클라쓰'와 '열혈강호'를 제외한 나머지 작품 8개는 모두 일본 만화이다. - 김태영. 2023. 「2023 만화·웹툰 이용자 실태조사」. 한국콘텐츠진흥원. p.94.
86. CU가 지난해 하이볼 구매 고객들의 연령대 비중을 보면, 20대 44.0%, 30대 35.9%로 80%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했다. 그 외 40대 14.4%, 50대 5.1%, 60대 이상 0.6% 비중을 보였다. - 파이낸셜데일리. "'하이볼 매출, 와인·양주 넘어섰다'...하이볼 비중 2022년 8.3% 지난해 36.3%". (2024.2.7) <http://www.fdaily.co.kr/news/article.html?no=92944>; 매일경제. "'가볍게 한 잔 할래?' 하이볼에 취한 2030...소·맥은 감쌌다". (2024.9.31) <https://www.mk.co.kr/news/economy/11117564>; 동아일보. "하이볼에 취한 MZ세대... 낮은 가격, 다양한 맛에 인기 '하이'". (2023.9.20)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30919/121261496/1> (검색일: 2025.1.23)
87. 경인방송. "한국인으로 붐비는 일본...압도적 1위". (2024.12.26) <https://news.ifm.kr/news/articleView.html?idxno=406769>; KBS. "20·30세대 해외여행 선호지 1위는 일본". (2023.8.23)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754913> (검색일: 2025.1.23)
88. 매드클럽. "'알파 세대' 독서 생활 키워드는 '문학 팬덤 구매·J-콘텐츠'". (2024.7.13) <https://www.ddaily.co.kr/page/view/2023041409531094586> (검색일: 2025.1.23)

20대 남성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유독 높게⁸⁹ 나타나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표 28]은 한국리서치의 여론조사(조사기간: 2024.7.12~7.15) 결과 중 일본에 대한 호감도를 분야별로 나누어 조사한 것으로, 국가, 물건·제품, 사람, 문화·콘텐츠, 기업 등 전 영역에서 남성의 대일 호감도가 여성의 대일 호감도보다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일본 물건·제품에서 가장 높은 호감도를 보였다. 하지만 20대(18~29세)의 1순위는 문화·콘텐츠 59.7%를 기록하였다.

해당 조사에서 20대 남성과 20대 여성의 차이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20대의 일본에 대한 높은 호감도 속에서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 등으로 대표되는 일본 콘텐츠에 남성친화적 요소들이 상대적으로 많아 남성들의 선호가 높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너의 이름은’ 등의 애니메이션과 소셜 열풍을 20대 남성이 이끌었다는⁹⁰ 점이나 일본 문화 및 콘텐츠를 대표하는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의 주요 소비층이 남성이라는⁹¹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결국 ‘금지와 억제 없는’ 문화의 소비와 교류의 확산 속에서 일상 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일본 문화와 콘텐츠 등은 그들에게 놀이이자, 취미의 일부분이고, 특히 이를 많이 소비하는 20대 남성들의 높은 대일 호감도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앞서 한국과 일본 간의 상호 인식을 분석한 「한국과 일본, 우리는 서로에게 무엇인가: 한국과 일본의 상호인식과 한일관계」(2021) 연구보고서(이하, 「2021 연구보고서」)에서 2030세대들에게 ‘문화는 문화, 역사는 역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 바 있는데,⁹² 이러한 현상이 남성들에게

89. 이와 같은 결과는 본 원의 조사 외에도 동아시아연구원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 조선일보, 「유석재의 돌발史전」 한국 20대 후반 남성, 對日 호감도가 74%라고?». (2024.8.30) <https://www.chosun.com/culture-life/reion-academia/2024/08/30/AUPESFSXTBBEXPBECMT4BWXTNM/> (검색일: 2025.1.24)

90. KBS, “너의 이름은.’ 애니메이션·소셜 열풍, 20대 남성이 이끌었다”. (2017.1.21)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3415496> (검색일: 2025.1.25)

91. 2023 게이미용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별로는 남성 71.5%, 여성 53.9%, 연령별로는 1위 20대 84.4%, 2위 10대 81.6%, 3위 30대 73.8%로 나타났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2023. 「2023 게이미용자 실태조사」. <https://welcon.kocca.kr/ko/info/trend/1953292>

92. 상세사항은 최은미, 2021, 「한국과 일본, 우리는 서로에게 무엇인가: 한국과 일본의 상호인식과 한일관계」, ASAN REPORT, 아산정책연구원 참고.

더욱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표 28]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일본에 대한 분야별 호감도(한국리서치)⁹³ (단위: %)

	일본 국가	일본 물건·제품	일본 사람	일본 문화·콘텐츠	일본 기업
전체	39.6	53.5	47.7	46.9	42.0
남자	41.9	55.5	51.5	51.5	44.1
여자	37.3	51.6	43.9	42.8	39.9
18~29세	45.4	58.9	54.8	59.7	46.5
30대	33.7	55.1	50.5	52.1	38.6
40대	36.0	51.1	43.9	46.0	38.1
50대	36.9	49.2	42.4	37.4	38.0
60대	40.9	54.0	47.5	43.2	45.4
70세 이상	45.5	54.3	48.9	45.7	46.4

출처: 한국리서치 '2024 대일 인식조사' 중 일부 발췌.

그렇다고 해서 20대 여성들의 일본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20대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전반적으로 다른 어느 세대보다도 높고, 20대 여성의 대일 호감도 또한 전체 여성의 다른 연령대보다도 높게 나타난다. 다만, 앞서 설명하였듯, 20대 남성의 대일 호감도가 전 연령대, 전 세대 가운데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보다 주목하였다.

3) '한국 30,40대 여성' vs. '일본 30,40대 남성'의 부정인식: 한일 간 긍정적 기억의 단절

한편, 지난 10년간의 조사에서 가장 흥미로운 결과는 '30대 여성', 그리고 '40대 남녀'의 인식에서 관찰되었다. 일반적으로 30대는 20대와 함께 묶어서 이야기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도 전체적으로는 20대의 변화 양상과 유사하게 나타나 30대만 별도로 주목하지는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니 흥미로운 양상이 관찰되었다.

93. 한국리서치. 2024. 「[2024 대일인식조사] 일본 이미지와 일본 호감도, 한일 양국 역량 비교」. <https://hrcopinion.co.kr/archives/30546> (검색일: 2025.1.25)

구체적으로, 30대는 전 연령대 중 한일관계 변동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였고, 남녀 간의 인식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즉, 앞서 언급하였듯, 30대 남성이 20대 남성과 함께 전체 호감도를 이끌어가는 양상이라면, 여성은 오히려 40대 및 50대의 부정적인 인식과 유사하게 나타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표 24]에서 확인했듯, 한일관계가 개선 무드에 들어선 2024년 4월 시점에서 30대 여성은 이념 성향에 따라 가장 극명한 인식 차이를 보였다.

[표 24] 2024년 4월 남성과 여성의 이념 성향에 따른 연령대별 일본에 대한

호감도 응답 차이⁹⁴(Revisited) (단위: 점)

	남성			여성		
	보수	진보	차이	보수	진보	차이
전체	4.00	4.36	-0.36	4.90	3.72	1.18
20대	5.86	5.12	0.74	4.00	4.10	-0.10
30대	4.71	5.42	-0.71	6.00	2.95	3.05
40대	3.40	3.23	0.17	3.38	3.37	0.01
50대	2.67	3.88	-1.21	5.18	3.36	1.82
60대 이상	4.13	4.44	-0.31	5.17	4.43	0.74

자료: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조사(2024년 4월).

한편, 40대는 한일관계의 다양한 이슈 속에서도 가장 변동성이 낮은 인식을 보여주었다. 즉, 한일관계가 악화될 때에도 대일 호감도가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하지 않았으며, 한일관계의 개선 국면에서도 다른 연령대 대비 크게 호전되지 않았다. 인식의 변화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외부 충격에 민감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를 바꿔 말하면, 인식의 변화가 생기는 이유를 파악하면 변화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반면, 인식의 변화가 크지 않다는 것은 이미 고착화된 인식으로 인해 어떠한 충격에도 잘 반응하지 않아 변화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그것이 부정적인 인식일 경우, 긍정 인식으로 선회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는 곧 현재 40대에게서 관찰되는 고착화된 인식이 이와 같은 변화의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과 연결된다.

94. 차이는 보수 성향의 대일 호감도에서 진보 성향의 대일 호감도를 뺀 값이다.

본 연구가 30대와 40대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들의 응답에서 관찰된 독특한 결과 때문이기도 하지만, 3040세대가 미칠 한일관계에 영향에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향후 적어도 20여년간은 이들이 사회 곳곳에서 결정을 내리는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될 세대이며, 10·20대의 청년층과 50·60대의 장년층을 이어 세대 간 격차를 줄여줄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하는 세대 때문이다. 특히, 이 세대가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 일본 대중문화 개방 및 한일 인적 교류 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세대라는 점에서도 더욱 주목할 만하다. 결국 활발한 문화 및 인적 교류에도 인식 개선이 크게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회의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될 이 세대가 갖는 부정적 인식이 앞으로 지속된다면 한일관계의 미래를 낙관할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한편, 이와 유사한 결과가 앞서 언급한 「2021 연구보고서」의 일본의 한국에 대한 인식에서 관찰된 바 있는데, 일본의 경우는 ‘30대와 40대 남성’이었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긍정 인식이 상승하는 가운데, 유독 30·40대 일본 남성들이 타 연령대 대비 부정적이었던 것이다.⁹⁵ 이에 대해 일본에서 K-pop, K-drama 등 한국 문화가 젊은 층과 여성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30·40대 남성들이 누리거나 공감할 수 있는 한국 문화가 부족하여 문화 교류를 통한 한국 혹은 한일관계에 대한 인식개선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웠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다. 특히, 이들이 1990년대 일본 경제의 버블이 붕괴되며, 사회적 정체와 우울함, 불안감 속 자신감과 여유 없이 자라온 세대라는 점에서 한류와 함께 성장해 온 10·20대의 ‘한류네이티브’ 세대와 한류에 무관심하거나, 한국에 대해 우월감을 갖는 50대 이상의 세대들과는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렇다면, 한국의 경우는 어떨까? 일본에서 K-pop, K-drama 등으로 대표되는 한국문화의 주요 소비층이 젊은 세대 그리고 청장년층의 여성들이었던 데 반해, 한국에서의 일본 문화의 대표적인 게임, 만화 등 주요 소비층은 남성이었다. 이와 같은 일본 문화 소비의 남녀 간의 차이가 10대와 20대까지는 크게 나타나지 않지만, 30대에 들어서게 되면 차이가 발생한다. 한국에서도 큰 인기를 누리는 일본 애니메이션의 경우, (10년의 흐름을 고려할 때) 30대 초중반까지의 여성들에게도 인기가 높지만,⁹⁶ 그 이상의 연령대 여성이 향유

95. 상세사항은 최은미, 2021, 「한국과 일본, 우리는 서로에게 무엇인가: 한국과 일본의 상호인식과 한일관계」, ASAN REPORT, 아산정책연구원, pp.56-57 참고.

96. 한겨레, “나이·국경·플랫폼 넘어 경계를 베어낸 ‘귀멸의 칼날’”, (2021.5.15)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95326.html (검색일: 2025.1.31)

할 수 있는 일본 문화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최근 극장판 애니메이션으로 개봉되며 큰 인기를 모았던 ‘더 퍼스트 슬램덩크’의 경우, 30·40대 남성을 타겟으로 제작되었으나, 10·20대 여성들이 많이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개봉 초기 원작의 팬덤을 공유하는 30·40대 남성이 예매율의 70% 이상을 점유하였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10·20대의 유입이 늘어 30% 이상까지 올라갔던 것이다. 특히, 여성이 55.2%로 남성 44.8%보다 높게 조사되었다.⁹⁷ 10·20대들의 관심이 높았다는 점도 흥미롭고, 남성보다 여성의 관심이 더 높았다는 점도 흥미롭지만, 문제는 여기에 30·40대 여성들이 공감하고, 향유할 만한 문화적 공간이 없다는 것이다. 최근 50대 이상 여성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던 방송 프로그램 ‘한일가왕전’을⁹⁸ 통해 볼 때도 이와 같은 현상은 더욱 뚜렷해진다.

한편, 40대의 일본에 대한 부정적 대일 인식은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변동성이 낮았다. 지난 10년의 시간 흐름을 고려할 때, 정확히는 40대 중후반부터 50대 초중반 정도의 연령대에 해당하는데, 이들의 일본에 대한 인식은 전 연령층 가운데 가장 변동성이 낮았다. 특히, 이들의 부정적인 인식은 한일 간의 긍정 이슈 혹은 부정 이슈가 발생할 때에도 크게 바뀌지 않았다.

[표 29]는 성별과 연령에 따른 일본에 대한 이미지를 나타낸 것인데, 이를 통해서도 40대와 50대의 일본에 대한 인식은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부정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 연령대에서 ‘권위적’, ‘위협적’, ‘공격적’, ‘정직하지 않음’, ‘불신’, ‘무책임’ 등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데, 그중에서도 40대와 50대의 수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97. HUFFOIST. “3040 남성보다 1020 여성 관객이 더 찾게 된 ‘슬램덩크’: 전문가들마저 예상 못한 결과는 ‘이 현상’ 때문이다”. (2023.4.19) <https://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208753> (검색일: 2025.1.31)

98. 스타데일리. “‘한일가왕전’ 관련 성별·연령별 관심 공개, 50대 여성 선호”. (2024.5.9) <https://www.stardail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8146> (검색일: 2025.1.31)

[표 29] 성별과 연령에 따른 일본에 대한 이미지(한국리서치)⁹⁹ (단위: %)

	민주적 vs. 권위적		위협적이지 않음 vs. 위협적		평화 vs. 공격	
	민주적	권위적	위협적X	위협적	평화	공격
남성	17	54	17	55	16	42
여성	13	58	17	45	15	39
18~29세	21	41	24	37	25	28
30대	13	49	16	48	16	40
40대	7	68	13	56	9	43
50대	11	66	11	57	9	52
60대	15	55	21	52	13	42
70세 이상	25	49	20	47	22	35
	정직 vs. 정직하지 않음		신뢰 vs. 불신		책임감 vs. 무책임	
	정직	정직X	신뢰	불신	책임감	무책임
남성	9	65	13	58	11	58
여성	7	66	9	60	11	57
18~29세	9	49	15	38	12	49
30대	6	71	8	54	8	62
40대	5	76	7	73	5	68
50대	4	73	9	69	11	65
60대	8	68	13	64	12	51
70세 이상	14	55	15	50	19	44

※ 모름, 어느 쪽도 아님 제외

출처: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조사자료(조사기간: 2024.7.12~15) 참조하여 재구성.

문제는 이와 같은 부정적 인식이 한일 간의 부정 이슈가 발생할 때, 직접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지난 2019년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에 따른 반일시위

99. 한국리서치. 2024. 「[2024 대일인식조사] 일본 이미지와 일본 호감도, 한일 양국 역량 비교」. <https://hrcopinion.co.kr/archives/30546> (검색일: 2025.1.25)

와 불매운동을 이끌었던 세대는 40대 여성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¹⁰⁰ 그 이유에 대해 일각에서는 40·50대의 높은 국가자부심을 지목한다. 국가자부심이 높을수록 불매운동을 지지하는 비율이 크게 나타났는데, 40·50대가 국가자부심이 가장 높은 세대라는 것이다.¹⁰¹ ‘X세대’라 불리는 이들은 한국이 정치적으로 민주화된 시기에 성장했고, 문화와 경제적 풍요 속에서 자라온 것과 동시에 IMF 등 외환위기를 겪으며 심각한 취업난을 경험한 세대이기도 하다. 베이비부머 세대인 부모 세대가 고도의 사회·경제적 성장 속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해 오고,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저성장 시대에서 현실 타협적인 모습을 보이는 다음 세대와 달리, 경제적 풍요와 사회적 빈곤, 아날로그와 디지털,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경계를 경험한 세대이기도 하다.¹⁰²

한일관계의 측면에서는 어떨까? 이들은 한일관계의 커다란 변곡점으로 삼는 1998년 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기억하고, 2002년 한일월드컵을 경험하였으며, 2006년부터 이루어진 한일 90일 무비자 관광의 수혜를 기억하는 세대이다. 그러나 동시에 지난 10여년간 이어진 한일 간의 부정적 이슈를 모두 직접 목도한 세대이기도 하다. 더욱이 2012년 12월 이후 7년 8개월간 집권한 아베 내각과 한국은 일본군‘위안부’문제, 강제징용문제 등 역사문제와 관련된 대립각을 세우는 일이 잦았다. 아직 사회에 나오지 않은 젊은 세대들은 일본을 정치, 사회, 문화 등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데 반해, 사회에 나온 30대 이상부터는 실리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경향이 강한데,¹⁰³ 현재의 40·50대가 30·40대였던 시기 한일관계에는 부정적 이슈가 가득했던 것이다.

즉, 지난 10년은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 향유할 만한 한일 간의 문화적 교류가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했던 데 반해, 한일관계는 실리적·가치적 측면의 부정적인 이슈들이 쌓여갔다. 이처럼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30·40대를 이러한 양국 간 불협화음 속에서 보

100. 경향신문. “일본 자동차 불매…여성·40대 소비자가 주도”. (2019.8.13) <https://www.khan.co.kr/article/201908131516001>; 머니투데이. “닛산 철수설’까지…40대 분노가 보여준 수치”. (2019.9.12)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91214023015542> (검색일: 2025.1.31)

101. 한국일보. “[여론 속의 여론] 일본 불매운동이 국뽕? 2030은 자신감에, 60대는 국가 위해”. (2019.9.7)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9051770734876> (검색일: 2025.1.31)

102. 경향신문. “‘밀레니얼’과 ‘586세대’ 사이에 낀 ‘X세대’, 40대가 된 그들은 누구인가”. (2019.8.27) <https://www.khan.co.kr/article/201908271938001>; 한국경제. “[천자 칼럼] 80년대생이 왔다”. (2021.11.18)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1111890651> (검색일: 2025.1.31)

103. 정대균. 2000. 「한국인에게 일본은 무엇인가」. 도서출판 강.

낸 지금의 40·50대들의 기억 속에 축적된 일본, 그리고 한일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들은 이 세대들에게 일본에 대한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¹⁰⁴ 결국 한일관계의 긍정이슈와 부정이슈의 경계에 서 있던 이 세대에게 10여년 이상 지속된 한일간의 부정적 이슈들은 기존에 쌓아온 긍정적 기억을 단절시키기에 충분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수십년간 반복되어 온 한일 간의 갈등 사안들은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의 분노를 자아내는 사안들이 많았다.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지만, 대표적으로 일본군‘위안부’문제 등 전시 여성 인권 유린에 대한 사안 등은 여성들의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 높아지는 요소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4) 주목해야 할 ‘세대와 이념 성향’의 접목

앞서 이념 성향과 일본에 대한 인식은 통계적으로 연관이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즉, 보수 성향의 응답자일수록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높고, 진보 성향의 응답자일수록 일본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한국리서치에서 시행한 여론조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표 30]은 이념 성향에 따른 일본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한 것인데, ‘민주적 vs. 권위적’, ‘위협적 vs. 위협적이지 않음’, ‘평화 vs. 공격’, ‘정직 vs. 정직하지 않음’, ‘책임 vs. 무책임’, ‘신뢰 vs. 불신’ 등 전 영역에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높게 나온 가운데, 진보 성향의 응답자가 보수 성향의 응답자보다 더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상기 조사에서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본 원에서 시행한 여론조사와 마찬가지로, 일본에 대한 인식에 있어 20·30대보다는 40대 이상, 그리고 남성보다는 여성 집단에서 이러한 이념적 차이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¹⁰⁵ 이와 같은 결과는 젊은

104. 일본 지도자에 대한 호감도 조사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의 경우 2016~2019년에 1.56~2.04(2020년 0.32)의 호감도를 나타냈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일본 총리의 경우 2022~2024년에 2.38~2.74의 호감도를 보였다. - 아산정책연구원, 2024, 「South Koreans and Their Neighbors 2024」, <https://www.asaninst.org/contents/south-koreans-and-their-neighbors-2024/>

105. 다만, 20·30대가 이야기하는 보수와 진보의 차이와 40대 이상이 이야기하는 보수와 진보의 차이가 다를 수 있다는 점에는 유념해야 할 것이다. 최근에 나타나는 2030 남녀의 정치적 성향 차이는 성장과 분배 같은 시장정책에 대한 입장으로 구분되기보다는, 젠더, 인권, 복지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진 상황에서 정치학적으로 ‘정치적 호명’을 해준 정당을 지지한 결과로 구분되기도 한다.- 내일신문, “20대 여성, 민주당 지지 압도적… 30대 남성, 여당 더 지지”. (2025.1.3) <https://m.naeil.com/news/read/534145> (검색일: 2025.1.31)

세대보다는 기성세대, 그리고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이념적 양극화 현상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그중에서도 30대 여성은 보수 성향과 진보 성향 응답자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났는데, 젠더, 인권 문제 등에 관심이 많은 30대의 진보 성향의 응답자들이 한일간의 부정적 이슈에 더 크게 반응했다고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것이 앞서 언급한 일본군‘위안부’문제 등 여성 인권 등에서 파급된 부정인식이 타 분야까지 확산된 것인지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장 진보적이라고 하는 40대¹⁰⁶ 이상의 X세대들에게서 나타나는 이념적 성향에 따른 대일 인식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일본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세대의 특성인 것인지, 이념 성향에서 나타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척도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표 30] 이념 성향에 따른 일본에 대한 이미지(한국리서치)¹⁰⁷ (단위: %)

	민주적 vs. 권위적		위험적이지 않음 vs. 위험적		평화 vs. 공격	
	민주적	권위적	위험적X	위험적	평화	공격
진보층	7	71	12	63	10	50
중도층	11	51	13	48	13	41
보수층	25	48	25	41	22	32
	정직 vs. 정직하지 않음		신뢰 vs. 불신		책임감 vs. 무책임	
	정직	정직X	신뢰	불신	책임감	무책임
진보층	3	83	5	76	6	73
중도층	7	63	9	58	7	58
보수층	12	54	19	45	19	43

※ 모름, 어느 쪽도 아님 제외

출처: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조사자료(조사기간: 2024.7.12~15) 참조하여 재구성.

106. 경향신문. “X세대’ 아직 안 늙었네…1970년대생, 가장 진보적”. (2016.12.12) <https://www.khan.co.kr/article/201612121745001>; 경향신문. “2020년 ‘X세대’ 왜 진보가 됐을까”. (2020.10.24) <https://www.khan.co.kr/article/202010241128001> (검색일: 2025.1.31)

107. 한국리서치. 2024. 「[2024 대일인식조사] 일본 이미지와 일본 호감도, 한일 양국 역량 비교」. <https://hrcopinion.co.kr/archives/30546> (검색일: 2025.1.25)

2. 연구의 의의 및 후속 연구의 필요성

본 연구에서는 지난 10년간 본 원에서 38회 실시한 여론조사로 축적된 38,224명의 응답 데이터를¹⁰⁸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젊은 세대의 높은 대일 호감도는 정확히는 ‘20대 남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남성보다 여성이, 그중에서도 30대가 한일관계의 다양한 이슈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젊은 세대에서는 이념 성향에 따른 대일 호감도의 차이가 크게 발견되지 않았으나, 청장년층에서는 나타났으며, 이 또한 남성보다는 여성 집단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미국에 대한 호감도와 상호 연관성이 있으나, 중국 및 북한과는 상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첫째, 그동안 우리가 지나치게 단순화시켰던 한국인의 대일 인식을 성별, 연령, 이념 성향 등으로 나누어 보다 상세하게 알아볼 수 있었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둘째, 그동안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30대(그중에서도 여성)와 정체된 40·50대의 대일 인식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를 환기시켰고, 셋째, 향후 정부 및 민간에서 일본과의 협력사업 및 교류 증진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처럼 객관적인 데이터와 면밀한 통계분석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였으나, 각각의 집단이 보이는 특성을 설명하기에는 양적·질적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이는 결국 후속연구의 필요성으로 이어진다.

108. 상세사항 [별첨1] 참고.

IV. 향후 전망 및 정책적 고려사항

10년의 흐름 속에서 살펴본 한국의 대일 인식의 변화를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한 일관계, 그리고 한국의 일본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주목하게끔 한다. 연령대별 특징으로 나타난 20대 젊은 층의 일본에 대한 높은 호감도, 30대의 높은 변동성, 40·50대의 고착화된 부정 인식, 60대 이상의 점진적 상승이 해당 세대들에게 나타난 특정 기억 속에 형성된 ‘세대 효과’인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달라지는 ‘연령 효과’인지는 아직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특히, 미래 세대로 주목받는 20대의 높은 대일 호감도가 이들이 사회에 나온 30대 이후의 변동성으로 이어져 40대에 악화될지, 현재 가장 부정적인 대일 인식을 갖는 40대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긍정적으로 변화할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 의식을 기반으로, 다음의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공공기관에 의한 한국의 대일 인식을 파악하는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데이터 축적 및 원 자료(raw data) 공개’와 이를 기반으로 한 ‘학제 간 융복합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상기의 결론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본 원에서 10년간 시행한 축적된 조사 자료가 있고, 무엇보다도 통계 분석을 할 수 있는 원 자료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 일관계를 주제로 하는 셀 수 없이 많은 여론조사들은 대부분 이슈가 있을 때 간헐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이유로 원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 정례적으로 시행되는 여론조사는 매우 제한적이고, 그 결과는 여태까지 우리가 보아 온대로 응답자들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체로 묶어서 단순화시키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심도 깊은 분석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성과 안정성, 객관성을 담보하는 공공기관에 의한 정례적인 여론조사와 원 자료 공개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내각부(内閣府)’에서 ‘외교에 관한 여론조사(外交に関する世論調査)’를¹⁰⁹ 1975년부터 매년 비슷한 시기에 실시해 오고 있으며, 그 결과를 집계표와 함께 공개하고 있다. 수십년간 쌓인 자료는 일본인의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동남아시아 등의 국가들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으며, 향후 일본외교와 국내여론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이와 같은 사례

109. 内閣府. “外交に関する世論調査” <https://survey.gov-online.go.jp/r05/r05-gaiko/#gaiyo>

를 참고하여 한국 또한 우리 국민의 외교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그 안에서 한일관계의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모색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의 대일 인식이 이슈에 따라 크게 반응하는 만큼, 이슈 발생 시에 시행하는 여론조사보다는 일정한 시기에 꾸준하게 시행한 조사에 기반하여 대일 인식의 추이를 살펴보는 것이 보다 중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통계학, 지역학, 정치학, 외교학, 국제관계학,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함께하는 융복합 연구가 필요하다. 한 분야의 연구만으로는 특정 전문성에 편향되어 종합적인 해석이 나오기 힘들고, 다양한 학제 간의 공동/협동 연구를 통해 통계적 현상의 원인에 대한 치밀한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가령, 앞서 제시된 20대 남성들의 예측 범위를 넘어선 높은 대일 호감도, 30대 여성들의 대일 인식에 있어서의 높은 변동성, 40,50대들의 정체된 대일 인식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필요하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시야를 넘어 다양한 시각으로 논의될 때, 보다 정교하고 심도 있는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한국인의 세대별 대일 인식변화 연구에 이어 일본인들의 세대별 대한국 인식 변화에 대한 연구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는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이념, 세대별로 차별화된 정책 방향의 설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세대 간 일본에 대한 인식 차이를 넘어설 수 있는 세대융합형 한일교류 사업을 모색해야 한다.

앞서 알아본 바와 같이, 현재 한국의 대일 인식은 이념 성향에 따른 차이보다 연령과 성별에 따른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념 성향과 대일 호감도 간의 통계적 연관성은 증명되었으나, 이는 모든 연령대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었다. 특히, 20대의 경우, 이념 성향에 따른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히려 남성과 여성, 젊은 세대와 기성 세대 간의 인식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일 양국이 추진 중인 인적 교류 사업은 대부분 고등학생, 대학생 등에 한정되어 있다.¹¹⁰ 2023년 한일관계 개선 국면에 들어서면서 시행된 협력 프로그램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상당수이다. 이와 같은 미래 세대를 위한 기존의 프로그램을 지속하면서도, 현재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일관계의 다양한 이슈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30대, 그리고

일본에 대한 인식이 상당 부분 고착화되어 가장 변동성이 낮은 40대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시급하다. 그러한 관점에서 30·40대 청장년층 간의 교류, 혹은 10·20대 미래세대와 30·40대 청장년층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일관계의 과거 역사를 돌아보고 그 교훈을 얻는다는 의미에서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는 사업으로 가능한 전 세대를 포괄한 한일 간의 문화교류 프로그램도 고려되어야 한다.

문화적 교류의 측면에서 최근 10·20대에게 주목받는 뉴트로(뉴+레트로, 복고와 첨단 결합) 문화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며,¹¹¹ 전문가 교류의 측면에서는 미일 간에 시행되고 있는 ‘후지산 다이얼로그(Mt. Fuji Dialogue)’를 벤치마킹하여, △30·40대가 중심이 된 한일 간 정치, 경제, 학자, 언론인 간의 대화 정기적 개최, △30대 한일 전문가 워크숍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함께 하는 교류의 측면에서 △현재 한일 양국이 처한 공통의 문제(예를 들어, 저출생·고령화 및 지방소멸 등)에 대한 해결책 모색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한국어/일본어 배우기,¹¹² △가족단위 방일/방한 여행객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 △방학을 이용한 국내 일본인 유학생들과 함께하는 지방도시 탐방, 농촌 일손 돕기 및 지역사회 청장년층과의 대화, △상대국 가정에 방문하는 홈스테이 재활성화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환경, 재난 등 공동의 글로벌 과제 해결을 위해 학생, 기업, 시민단체 등이 함께 하는 프로젝트 실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한일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캠페인, △해양 쓰레기 같이 줍기, △사막화 지역에 함께 나무 심기 등 다양한 활동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활동들은 ‘전해진 기억’이 아닌 ‘경험한 기억’으로 남을 것이며, ‘공유된 경험’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세대 간 인식을 좁힐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110. 정부 추진 사업은 30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취업관광프로그램, 한일고교생 교류, 대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한 한일학술문화 및 청소년 교류, 상대국어 선택 고교생 교류 지원사업, 한일 이공계 학부 유학생 파견사업, 한일공동 고등교육 유학생 교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일청년인재양성 사업 등이 있다. - 외교부, 「일본개황 2025」, pp.179-181.

111. KTV 국민방송. “새로운 복고...10~20대 ‘뉴트로’에 빠지다”. (2019.2.19) https://m.ktv.go.kr/program/again/view?content_id=570319; 서울신문. “80년대 시티팝 듣고 약과 즐기는 1020? ... Z세대 사로잡은 ‘힙한 옛날 문화’”. (2022.5.9) <https://www.seoul.co.kr/news/economy/2022/05/09/20220509500179> (검색일: 2025.1.31)

112. 필자가 인터뷰한 50대 일본인 고등학교 교사와 한국인 고등학교 교사는 일본 고등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수요가 상당한데, 이를 뒷받침하는 인프라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셋째, 현재의 한일관계의 개선의 흐름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이슈의 지속적인 축적을 통한 선순환 과정이 필요하다.

한일관계의 부침 속에서 양국관계는 긍정이슈와 부정이슈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다. 특히, 한일관계는 ‘역사교과서문제’,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 ‘외교청서·방위백서 내 독도 표기 문제’ 등 갈등이슈가 주기적으로 반복 발생하며 부정적 기억이 축적되어 왔다. 문제는 이러한 갈등사안의 발생 가능성이 앞으로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일관계는 긍정보다는 부정이슈가 축적되며, 상호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양국 간 긍정이슈의 지속적인 축적을 통해 선순환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2002 한일월드컵’과 같은 전 국민이 즐길 수 있는 대규모 이벤트뿐만 아니라, 수십년간 지속해 오고 있는 ‘한일축제한마당’과 같은 문화교류도 증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미 한일 간의 수많은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세대를 아우르고, 이념을 뛰어넘을 수 있는 양국 교류가 요구된다.

정부 차원에서는 국제관계에서 한일의 협력 이미지를 강화하는 활동도 모색해볼 수 있다. 가령 계기가 마련되었을 경우, 국제평화유지 활동(PKO)이나 재난지역의 구호 및 재건활동 등에 있어 한일의 합동 참여 및 양자 협력에 대한 사전 협의 등이 이에 속할 것이다. 또한, 한-미-일 3각 안보협력 역시 일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는 이슈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트럼프 2.0 행정부 등장 이후 한-미-일 안보협력 지속에 대한 의구심이 생겨나고 있음을 고려하여, 한-미-일 안보협력 모멘텀의 유지를 위한 한일 간 공조 및 협의, 1.5 Track 차원의 민관협의회를 개시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올해 2025년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는 의미 있는 해이다. 또한, 현재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인식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그 어느 때보다 개선된 상태이다. 그러나 앞서 서론에서 언급하였듯, 이와 같은 한국인의 높아진 대일 호감도가 일시적인 현상인지,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인지는 지속적으로 관찰해 나갈 필요가 있다. 지난 10년간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수준의 대일 호감도가 나타나고 있음은 확인되었으나, 이것이 구조적인 변화의 시작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찰과 분석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다만, 새로운 변화의 시작에서 한일 양국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노력들이 지속되고 있다. 양국의 실질적 협력과 신뢰 구축을 위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는다면, 현재의 긍정적인 흐름이 세대와 이념을 넘어 구조적인 변화를 이루고, 지속적으로 정착시켜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별첨

1.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조사 개요

2014년 11월

조사대상: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5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pm 3.1\%$ 포인트

조사방법: 휴대전화 및 유선전화 RDD, CATI(면접원 전화인터뷰)

조사기간: 2014년 11월 1일~11월 3일

실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

2014년 12월

조사대상: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4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pm 3.1\%$ 포인트

조사방법: 휴대전화 및 유선전화 RDD, CATI(면접원 전화인터뷰)

조사기간: 2014년 12월 1일~12월 3일

실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

2015년 1월

조사대상: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pm 3.1\%$ 포인트

조사방법: 휴대전화 및 유선전화 RDD, CATI(면접원 전화인터뷰)

조사기간: 2015년 1월 2일~1월 4일

실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

2015년 2월

조사대상: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3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pm 3.1\%$ 포인트

조사방법: 휴대전화 및 유선전화 RDD, CATI(면접원 전화인터뷰)

조사기간: 2015년 2월 2일~2월 4일

실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

2015년 3월

조사대상: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5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pm 3.1\%$ 포인트

조사방법: 휴대전화 및 유선전화 RDD, CATI(면접원 전화인터뷰)

조사기간: 2015년 3월 2일~3월 4일

실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

2015년 4월

조사대상: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4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pm 3.1\%$ 포인트

조사방법: 휴대전화 및 유선전화 RDD, CATI(면접원 전화인터뷰)

조사기간: 2015년 4월 1일~4월 3일

실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

2015년 5월

조사대상: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4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pm 3.1\%$ 포인트

조사방법: 휴대전화 및 유선전화 RDD, CATI(면접원 전화인터뷰)

조사기간: 2015년 5월 1일~5월 3일

실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

2015년 6월

조사대상: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4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pm 3.1\%$ 포인트

조사방법: 휴대전화 및 유선전화 RDD, CATI(면접원 전화인터뷰)

조사기간: 2015년 6월 1일~6월 3일

실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

2015년 7월

조사대상: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0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pm 3.1\%$ 포인트

조사방법: 휴대전화 및 유선전화 RDD, CATI(면접원 전화인터뷰)

조사기간: 2015년 7월 1일~7월 3일

실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

2015년 8월

조사대상: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5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pm 3.1\%$ 포인트

조사방법: 휴대전화 및 유선전화 RDD, CATI(면접원 전화인터뷰)

조사기간: 2015년 8월 1일~8월 3일

실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

2015년 9월

조사대상: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3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pm 3.1\%$ 포인트

조사방법: 휴대전화 및 유선전화 RDD, CATI(면접원 전화인터뷰)

조사기간: 2015년 9월 1일~9월 3일

실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

2015년 10월

조사대상: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0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pm 3.1\%$ 포인트

조사방법: 휴대전화 및 유선전화 RDD, CATI(면접원 전화인터뷰)

조사기간: 2015년 10월 1일~10월 3일

실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

2015년 11월

조사대상: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3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pm 3.1\%$ 포인트

조사방법: 휴대전화 및 유선전화 RDD, CATI(면접원 전화인터뷰)

조사기간: 2015년 11월 2일~11월 4일

실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

2015년 12월

조사대상: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5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pm 3.1\%$ 포인트
 조사방법: 휴대전화 및 유선전화 RDD, CATI(면접원 전화인터뷰)
 조사기간: 2015년 12월 1일~12월 3일
 실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

2016년 1월

조사대상: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2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pm 3.1\%$ 포인트
 조사방법: 휴대전화 및 유선전화 RDD, CATI(면접원 전화인터뷰)
 조사기간: 2016년 1월 1일~1월 3일
 실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

2016년 2월

조사대상: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3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pm 3.1\%$ 포인트
 조사방법: 휴대전화 및 유선전화 RDD, CATI(면접원 전화인터뷰)
 조사기간: 2016년 2월 1일~2월 3일
 실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

2016년 3월

조사대상: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8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pm 3.1\%$ 포인트
 조사방법: 휴대전화 및 유선전화 RDD, CATI(면접원 전화인터뷰)
 조사기간: 2016년 3월 2일~3월 4일
 실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

2016년 6월

조사대상: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pm 3.1\%$ 포인트
 조사방법: 휴대전화 및 유선전화 RDD, CATI(면접원 전화인터뷰)

조사기간: 2016년 6월 1일~6월 3일

실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

2016년 7월

조사대상: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2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pm 3.1\%$ 포인트

조사방법: 휴대전화 및 유선전화 RDD, CATI(면접원 전화인터뷰)

조사기간: 2016년 7월 1일~7월 3일

실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

2016년 8월

조사대상: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5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pm 3.1\%$ 포인트

조사방법: 휴대전화 및 유선전화 RDD, CATI(면접원 전화인터뷰)

조사기간: 2016년 8월 1일~8월 3일

실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

2016년 9월

조사대상: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6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pm 3.1\%$ 포인트

조사방법: 휴대전화 및 유선전화 RDD, CATI(면접원 전화인터뷰)

조사기간: 2016년 9월 1일~9월 3일

실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

2016년 10월

조사대상: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1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pm 3.1\%$ 포인트

조사방법: 휴대전화 및 유선전화 RDD, CATI(면접원 전화인터뷰)

조사기간: 2016년 10월 4일~10월 6일

실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

2016년 11월

조사대상: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9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pm 3.1\%$ 포인트
 조사방법: 휴대전화 및 유선전화 RDD, CATI(면접원 전화인터뷰)
 조사기간: 2016년 11월 1일~11월 3일
 실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

2016년 12월

조사대상: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1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pm 3.1\%$ 포인트
 조사방법: 휴대전화 및 유선전화 RDD, CATI(면접원 전화인터뷰)
 조사기간: 2016년 12월 1일~12월 3일
 실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

2017년 1월

조사대상: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4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pm 3.1\%$ 포인트
 조사방법: 휴대전화 및 유선전화 RDD, CATI(면접원 전화인터뷰)
 조사기간: 2017년 1월 2일~1월 4일
 실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

2017년 3월

조사대상: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6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pm 3.1\%$ 포인트
 조사방법: 휴대전화 및 유선전화 RDD, CATI(면접원 전화인터뷰)
 조사기간: 2017년 3월 6일~3월 8일
 실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

2017년 6월

조사대상: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4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pm 3.1\%$ 포인트
 조사방법: 휴대전화 및 유선전화 RDD, CATI(면접원 전화인터뷰)

조사기간: 2017년 6월 1일~6월 3일

실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

2017년 11월

조사대상: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5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pm 3.1\%$ 포인트

조사방법: 휴대전화 및 유선전화 RDD, CATI(면접원 전화인터뷰)

조사기간: 2017년 11월 14일~11월 16일

실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

2018년 3월

조사대상: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7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pm 3.1\%$ 포인트

조사방법: 휴대전화 및 유선전화 RDD, CATI(면접원 전화인터뷰)

조사기간: 2018년 3월 21일~3월 22일

실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

2018년 6월

조사대상: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1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pm 3.1\%$ 포인트

조사방법: 휴대전화 및 유선전화 RDD, CATI(면접원 전화인터뷰)

조사기간: 2018년 6월 18일~6월 20일

실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

2019년 1월

조사대상: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2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pm 3.1\%$ 포인트

조사방법: 휴대전화 및 유선전화 RDD, CATI(면접원 전화인터뷰)

조사기간: 2019년 1월 7일~1월 9일

실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

2019년 3월

조사대상: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7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pm 3.1\%$ 포인트
 조사방법: 휴대전화 및 유선전화 RDD, CATI(면접원 전화인터뷰)
 조사기간: 2019년 3월 19일~3월 20일
 실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

2019년 7월

조사대상: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5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pm 3.1\%$ 포인트
 조사방법: 휴대전화 및 유선전화 RDD, CATI(면접원 전화인터뷰)
 조사기간: 2019년 7월 9일~7월 10일
 실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

2019년 8월

조사대상: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3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pm 3.1\%$ 포인트
 조사방법: 휴대전화 및 유선전화 RDD, CATI(면접원 전화인터뷰)
 조사기간: 2019년 8월 19일~8월 21일
 실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

2020년 7월

조사대상: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6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pm 3.1\%$ 포인트
 조사방법: 휴대전화 및 유선전화 RDD, CATI(면접원 전화인터뷰)
 조사기간: 2020년 7월 15일~7월 16일
 실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

2022년 3월

조사대상: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4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pm 3.1\%$ 포인트
 조사방법: 휴대전화 및 유선전화 RDD, CATI(면접원 전화인터뷰)

조사기간: 2022년 3월 17일~3월 18일

실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

2023년 3월

조사대상: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8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pm 3.1\%$ 포인트

조사방법: 휴대전화 및 유선전화 RDD, CATI(면접원 전화인터뷰)

조사기간: 2023년 3월 13일~3월 15일

실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

2024년 4월

조사대상: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표집오차: 95% 신뢰구간에서 $\pm 3.1\%$ 포인트

조사방법: 휴대전화 및 유선전화 RDD, CATI(면접원 전화인터뷰)

조사기간: 2024년 4월 1일~4월 3일

실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

2. 한일관계 주요 일지(2014~2024)¹¹³

2014년

- 02/02 - 일본 시마네현, ‘독도의 날’ 행사, 이에 대한 한국 외교부 대변인 성명 발표
- 03/25 - 한-미-일 정상회담 (핵안보 정상회의 계기, 네덜란드 헤이그)
- 04/04 - 일본 정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반복한 2014년 외교청서 발표, 이에 대한 한국 외교부 대변인 성명 발표
 - 일본 정부,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 지난 2010년보다 독도에 대한 도발 수위를 더욱 높인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한 한국 외교부 대변인 성명 발표
- 04/21 -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 내각 각료 및 ‘다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의원 모임’ 소속 의원 147명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에 대한 한국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

113. 외교부에서 발간한 『2025 일본 개황』 및 외교부 보도자료를 참조해 재구성하였다.

- 06/05 - ‘독도 문제 조기 해결을 요구하는 도쿄 집회’에 일본 정부 고위관계자와 다수의 일본 의원들이 참석, 이에 대한 한국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
- 06/20 - 일본 정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총체적으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이송·관리되었음을 인정한 1993년 고노 관방장관 담화에 대한 검증 보고서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의 의견 교환 경위」 발표, 이에 대한 한국 외교부 대변인 성명 발표
- 08/05 - 일본 정부,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주장을 포함시킨 2014년 방위백서 발표, 이에 대한 한국 외교부 대변인 성명 발표
- 10/01 - 일본 외무성, 자체 홈페이지 내 아시아여성기금 대국민 호소문 삭제, 지난 6월 고노 담화 검증에 이어 지속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동원·모집·이송의 강제성을 부정하려는 역사부정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
- 10/14 - 일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대신, 국회 연설 중 독도 관련 발언, 이에 대한 한국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
- 10/17 -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 내각 각료 및 ‘다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의원 모임’ 소속 의원 111명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에 대한 한국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
- 11/10 - 한일 정상 간 환담 (APEC 정상회의 계기, 중국 베이징)
- 12/24 - 제3차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 출범

2015년

- 02/12 - 일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대신, 국회 연설 중 독도 관련 발언, 이에 대한 한국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
- 02/22 - 일본 시마네현, ‘독도의 날’ 행사, 이에 대한 한국 외교부 대변인 성명 발표
- 04/06 - 일본 정부,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강화하고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 축소, 누락 기술한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한 한국 외교부 대변인 성명 발표
- 04/07 - 일본 정부, 독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에 관해 부당한 주장을 담은 2015년 외교청서 발표, 이에 대한 한국 외교부 대변인 성명 발표
- 04/21 -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 내각 각료 및 ‘다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의원 모임’ 소속 의원 106명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에 대한 한국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
- 06/22 -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 기념 리셉션, 한일 양측 동시 개최(서울/도쿄) 및 양측

행사에 양국 정상 교차 참석

- 07/21 - 일본 정부, 독도에 대한 주장을 포함시킨 2015년 방위백서 발표, 이에 대한 한국 외교부 대변인 성명 발표
- 08/15 -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 정부 각료 3인 및 ‘다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의원 모임’ 소속 의원 67명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에 대한 한국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
- 11/01 - 한-일-중 정상회의 (한국 서울)
- 11/02 - 한일 정상회담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 한국 서울)
- 12/28 -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협상 타결, 한일 정상 간 통화 및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대신 방한, 합의 관련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메시지 발표

2016년

- 01/17 - 한일 정상 간 통화
- 02/09 - 한일 정상 간 통화
- 02/22 - 일본 시마네현, ‘독도의 날’ 행사, 이에 대한 한국 외교부 대변인 성명 발표
- 03/31 - 한-미-일 정상회담 / 한일 정상회담 (핵안보 정상회의 계기, 미국 워싱턴 D.C.)
- 04/15 - 일본 정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2016년 외교청서 발표, 이에 대한 한국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
- 04/21 -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 ‘다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의원 모임’ 소속 의원 92명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에 대한 한국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
- 08/02 - 일본 정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포함시킨 2016년 방위백서 발표, 이에 대한 한국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
- 08/15 -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 ‘다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의원 모임’ 소속 의원 67명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에 대한 한국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
- 09/07 - 한일 정상회담 (ASEAN 정상회의 계기, 라오스 비엔티엔)
- 09/09 - 북한 5차 핵실험 관련, 한일 정상 간 통화 및 한일 외교장관 간 통화
- 10/17 -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야스쿠니 신사 공물료 봉납, ‘다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의원 모임’ 소속 의원 85명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에 대한 한국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
- 11/23 -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및 발표

2017년

- 01/06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주부산일본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 관련 일
측 조치 발표, 이에 대한 한국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
- 02/14 - 일본 정부,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안 공개,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되
풀이한 것에 대한 한국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
- 02/22 - 일본 시마네현, '독도의 날' 행사, 이에 대한 한국 외교부 대변인 성명 발표
- 03/24 - 일본 정부,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포함하
여 왜곡된 역사 인식을 담은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한 한국
외교부 대변인 성명 발표
- 03/31 - 일본 정부, 초·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최종안 확정 및 관보 게재,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포함시킨 학습지도요령을 최종 확정된 것에 대한 한국 외교
부 대변인 성명 발표
- 04/21 -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 '다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의원 모임' 소속 의원 95명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에 대한 한국 외교
부 대변인 논평 발표
- 04/25 - 일본 정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2017년 외교청서 발표,
이에 대한 한국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
- 05/10 - 문재인 대통령 취임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 05/11 - 한일 정상 간 통화 (문재인 대통령 취임 계기)
- 05/17 - 문재인 대통령 특사대표단 방일
- 05/30 - 한일 정상 간 통화
- 06/10 -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특사 자
격 방한
- 06/21 - 일본 정부,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판 발표,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
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한 한국 외교부 대변인 성명 발표
- 07/07 - 한일 정상회담 (G20 정상회의 계기, 독일 함부르크)
- 08/07 - 한일 정상 간 통화
- 08/08 - 일본 정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2017년 방위백서 발표,
이에 대한 한국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
- 08/15 -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 '다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의원 모임' 소속 의원 63명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에 대한 한국 외교
부 대변인 논평 발표

- 08/25- 한일 정상 간 통화
- 08/30- 한일 정상 간 통화
- 09/04- 한일 정상 간 통화
- 09/07- 한일 정상회담 (동방경제포럼(EEF) 계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 09/15- 한일 정상 간 통화
- 10/24- 한일 정상 간 통화
- 11/11 - 제4차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 출범
- 11/29 - 한일 정상 간 통화
- 12/05 - 내각 각료 및 ‘다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의원 모임’ 소속 의원 60여 명 야스쿠니 신사 참배
- 12/27 - 한국 정부,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결과 보고서 발표, 일본 고노 다로(河野太郎) 외무대신 ‘위안부 합의 검토 TF의 검토 결과 발표에 대하여’ 답화 발표
- 12/28 - 청와대, ‘위안부 TF 조사 결과에 대한 대통령 입장문’ 발표

2018년

- 02/09- 한일 정상회담 (평창 동계올림픽 계기, 한국 평창)
- 02/14- 일본 정부,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 초안 발표,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한 한국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
- 02/22- 일본 시마네현, ‘독도의 날’ 행사, 이에 대한 한국 외교부 대변인 성명 발표
- 03/30- 일본 정부,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최종 확정,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한 한국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
- 03/16- 한일 정상 간 통화
- 03/30- 한일 정상 간 통화
- 04/20-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 ‘다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의원 모임’ 소속 의원 75명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에 대한 한국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
- 04/24- 한일 정상 간 통화
- 04/29- 한일 정상 간 통화 (제3차 남북 정상회담 계기)
- 05/09- 한-일-중 정상회의 (일본 도쿄)
- 05/15- 일본 정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2018년 외교청서 발표, 이에 대한 한국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

- 07/17 - 일본 정부,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것에 대한 한국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
- 08/15 -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 ‘다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의원 모임’ 소속 의원 50명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에 대한 한국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
- 08/28 - 일본 정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2018년 방위백서 발표, 이에 대한 한국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
- 09/20 -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자민당 총재 당선 (3선 연임)
- 09/25 - 한일 정상회담 (UN총회 계기, 미국 뉴욕)
- 10/18 -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 ‘다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의원 모임’ 소속 의원 70명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에 대한 한국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
- 10/30 - 대법원,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 피해자 승소 최종 판결

2019년

- 02/22 - 일본 시마네현, ‘독도의 날’ 행사, 이에 대한 한국 외교부 대변인 성명 발표
- 03/26 - 일본 정부,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담은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한 한국 외교부 대변인 성명 발표
- 04/23 - 일본 정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2019년 외교청서 발표, 이에 대한 한국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
 -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 ‘다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의원 모임’ 소속 의원 71명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에 대한 한국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
- 05/01 - 일본 제125대 아카히토(明仁) 천황 퇴위
- 05/04 - 일본 제126대 나루히토(德仁) 천황 즉위
- 07/01 - 일본 정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발표
- 08/02 - 일본 정부,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결정,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한국 외교부 대변인 성명 발표
- 08/22 - 한국 정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
- 08/28 - 일본 정부,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이에 대한 한국 외교부 대변인 성명 발표
- 09/27 - 일본 정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2019년 방위백서 발표, 이에 대한 한국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

- 10/17 -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 ‘다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의원 모임’ 소속 의원 98명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에 대한 한국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
- 11/22 - 한국 정부, 지난 8월 23일 일본 측에 통보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GSOMIA) 종료 결정에 대한 효력 정지 결정
- 12/24 - 한-일-중 정상회의 (중국 청두)
 - 한일 정상회담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 중국 청두)

2020년

- 02/22 - 일본 시마네현, ‘독도의 날’ 행사, 이에 대한 한국 외교부 대변인 성명 발표
- 03/24 - 일본 정부,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 축소, 누락 기술하고,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담은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한 한국 외교부 대변인 성명 발표
- 04/21 -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 이에 대한 한국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
- 05/19 - 일본 정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2020년 외교청서 발표, 이에 대한 한국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
- 07/14 - 일본 정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2020년 방위백서 발표, 이에 대한 한국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
- 08/15 -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 이에 대한 한국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
- 08/28 -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사임 발표
- 09/14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제26대 자민당 총재로 선출
- 09/16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자민당 신임 총재, 제99대 내각총리대신 취임
- 09/19 -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야스쿠니 신사 참배
- 09/24 - 한일 정상 간 통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취임 계기)
- 10/17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신사 참배, ‘다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의원 모임’ 오쓰지 히데히사(尾辻秀久) 회장 등이 대표로 신사 참배, 이에 대한 한국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

2021년

- 02/22 - 일본 시마네현, ‘독도의 날’ 행사, 이에 대한 한국 외교부 대변인 성명 발표

- 03/20 - 일본 정부,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 자국 중심의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지 않고,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담은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한 한국 외교부 대변인 성명 발표
- 04/13 - 일본 정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 04/21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 이에 대한 한국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
- 04/27 - 일본 정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2021년 외교청서 발표, 이에 대한 한국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
- 07/13 - 일본 정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2021년 방위백서 발표, 이에 대한 한국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
- 08/15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 ‘다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의원 모임’ 오쓰지 히데히사(尾辻秀久) 회장 등이 대표로 신사 참배, 이에 대한 한국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
- 09/29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제27대 자민당 총재로 선출
- 10/04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자민당 신임 총재, 제100대 내각총리대신 취임
- 10/14 - 일본 중의원 해산
- 10/15 - 한일 정상 간 통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취임 계기)
- 10/17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 ‘다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의원 모임’ 오쓰지 히데히사(尾辻秀久) 회장 등이 대표로 신사 참배, 이에 대한 한국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
- 10/31 - 일본 중의원 총선
- 11/10 - 제2차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내각 출범
- 12/07 - ‘다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의원 모임’ 소속 의원 98명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에 대한 한국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

2022년

- 01/28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사도광산(佐渡金山)의 2023년 유네스코(UNESCO) 세계 유산 등재 추진 결정
- 02/22 - 일본 시마네현, ‘독도의 날’ 행사, 이에 대한 한국 외교부 대변인 성명 발표
- 03/11 - 한국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일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간 통화
- 03/29 - 일본 정부,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 자국 중심의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사실을 왜곡하고,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담은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

과시킨 것에 대한 한국 외교부 대변인 성명 발표

- 04/21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 ‘다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의원 모임’ 소속 의원 103명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에 대한 한국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
- 04/22 - 일본 정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2022년 외교청서 발표, 이에 대한 한국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
- 05/10 - 윤석열 대통령 취임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 06/29 - 한-미-일 정상회담 (NATO 정상회의 계기, 스페인 마드리드)
- 07/08 -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사망
- 07/22 - 일본 정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2022년 방위백서 발표, 이에 대한 한국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
- 08/15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 이에 대한 한국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
- 09/22 - 한일 정상회담 (UN총회 계기, 미국 뉴욕)
- 10/06 - 한일 정상 간 통화
- 10/19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 ‘다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의원 모임’ 소속 의원 90명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에 대한 한국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
- 11/13 - 한-미-일 정상회담 (ASEAN+3 정상회의 계기, 캄보디아 프놈펜)
- 12/16 - 일본 정부, 개정 ‘국가안보전략’ 발표,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포함시킨 것에 대한 한국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

2023년

- 02/22 - 일본 시마네현, ‘독도의 날’ 행사, 이에 대한 한국 외교부 대변인 성명 발표
- 03/06 - 한국 정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입장 발표
- 03/16 - 한일 정상회담 (일본 도쿄)
- 03/28 - 일본 정부,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과 강제동원 관련 표현 및 서술을 희석하는 방향으로 변경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한 한국 외교부 대변인 성명 발표
- 04/11 - 일본 정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2023년 외교청서 발표, 이에 대한 한국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
- 04/21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 ‘다함께 야스쿠니 신

사를 참배하는 의원 모임’ 소속 의원 87명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에 대한 한국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

- 05/07 - 한일 정상회담 (한국 서울)
- 05/21 - 한일 정상회담 (G7 정상회담 계기, 일본 히로시마)
- 07/12 - 한일 정상회담 (NATO 정상회의 계기, 리투아니아 빌뉴스)
- 07/28 - 일본 정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2023년 방위백서 발표, 이에 대한 한국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
- 08/15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 ‘다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의원 모임’ 소속 의원 107명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에 대한 한국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
- 08/18 - 한일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회의 계기, 미국 캠프 데이비드)
- 09/10 - 한일 정상회담 (G20 정상회의 계기, 인도 뉴델리)
- 10/17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 ‘다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의원 모임’ 소속 의원 123명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에 대한 한국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
- 11/16 - 한일 정상회담 (APEC 정상회의 계기, 미국 샌프란시스코)
- 11/17 - 스탠퍼드 대학교 한일 정상 좌담회 (미국 샌프란시스코)

2024년

- 02/22 - 일본 시마네현, ‘독도의 날’ 행사, 이에 대한 한국 외교부 대변인 성명 발표
- 03/22 - 일본 정부,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과 강제동원 관련 표현 및 서술을 희석하는 방향으로 변경된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한 한국 외교부 대변인 성명 발표
- 04/16 - 일본 정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2024년 외교청서 발표, 이에 대한 한국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
- 04/17 - 한일 정상 간 통화
- 04/19 - 일본 정부,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추가 발표,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강제징용 문제, 식민지배에 대한 극히 비상식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거짓 기술을 포함한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한 한국 외교부 대변인 성명 발표
- 04/21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 ‘다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의원 모임’ 소속 의원 127명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에 대한 한국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

- 05/26- 한일 정상회담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 한국 서울)
- 05/27- 한-일-중 정상회의 (한국 서울)
- 07/10- 한일 정상회담 (NATO정상회의 계기, 미국 워싱턴 D.C.)
- 07/12- 일본 정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2024년 방위백서 발표, 이에 대한 한국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
- 07/27- 제46차 세계유산위원회, 일본 사도광산(佐渡金山) 유네스코(UNESCO) 세계 유산 등재
- 08/15-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 ‘다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의원 모임’ 소속 의원 120명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에 대한 한국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
- 09/06- 한일 정상회담 (한국 서울)
- 10/01-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자민당 신임 총재, 제102대 내각총리대신 취임
- 10/02- 한일 정상 간 통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 취임 계기)
- 10/09- 일본 중의원 해산
- 10/10- 한일 정상회담 (ASEAN 정상회의 계기, 라오스 비엔티엔)
- 10/17-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 ‘다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의원 모임’ 사토 마사이사(佐藤正久) 참의원 등이 대표로 신사 참배, 이에 대한 한국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
- 10/27- 일본 중의원 총선
- 11/11- 제2차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내각 출범
- 11/16- 한일 정상회담 (APEC 정상회의 계기, 페루 리마)
- 11/24- 사도광산(佐渡金山) 추도식, 한국 정부 불참 및 11/25 자체 추도식 개최

참고문헌

단행본

- 김성민. 2017. 「일본을禁하다: 금제와 욕망의 한국 대중문화사: 1945-2004」. 글항아리.
- 정대균. 2000. 「한국인에게 일본은 무엇인가」. 도서출판 강.
- Herbert Ginsburg, Sylvia Oppen. 2018. 「Piaget's Theory of Intellectual Development」. Savvas Learning Company.
- Mannheim, Karl. 1952. "The Problem of Generations," 「Essays on the Sociology of Knowledg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논문 및 보고서

- 김태영. 2023. 「2023 만화·웹툰 이용자 실태조사」. 한국콘텐츠진흥원. p.94.
- 박재홍. 2001. "세대연구의 이론적·방법론적 쟁점," 「한국인구학」 24(2), pp.47-78.
- 손열. 2024. 「정치 양극화에 동요하는 한일관계: 2024년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관계 개선과 여론 분열」. 이슈브리핑. 동아시아연구원.
- 아산정책연구원. 2024. 「South Koreans and Their Neighbors 2024」. <https://www.asaninst.org/contents/south-koreans-and-their-neighbors-2024/>
- 외교부. 2025. 「일본개황 2025」. pp.179-181.
- 이내영·정한울. 2013. "세대균열의 구성 요소 코호트 효과와 연령 효과," 「의정연구」 40, pp.37-83.
- 이상신 외. 2020. 「KINU 통일의식조사 2020: 주변국 인식 비교연구」. 통일연구원.
- 이정환. 2022. 「2022년 한국의 신정부 출범 이후 한일관계 개선」. 아시아 브리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 이혜원. 2020. "연령효과, 시기효과, 코호트효과의 비교 분석 - 기업의 사회공헌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은미. 2021. 「한국과 일본, 우리는 서로에게 무엇인가: 한국과 일본의 상호인식과 한일관계」. ASAN REPORT. 아산정책연구원.
- 최은미. 2023. 「윤석열-기시다 한일 정상 서툰외교 복원 이후의 한일관계: 의미, 전망, 과

- 제」. Issue Brief 2023-14, 아산정책연구원. pp.1-19.
- 한국갤럽. 「갤럽리포트 - 데일리 오피니언 제151호(2015년 2월 4주), 제362호(2019년 7월 2주), 제507호(2022년 8월 2주)」.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asp>
- 한국리서치. 2024. 「[2024 대일 인식조사] 일본 이미지와 일본 호감도, 한일 양국 역량 비교」. <https://hrcopinon.co.kr/archives/30546>
-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 주변국 호감도(2023년 7월, 2024년 7월)」. <https://hrcopinon.co.kr/index/countries>
- 한국콘텐츠진흥원. 2023. 「2023 게임이용자 실태조사」. <https://welcon.kocca.kr/ko/info/trend/1953292>

기타

- 경인방송. “한국인으로 붐비는 일본…압도적 1위”. (2024.12.26) <https://news.ifm.kr/news/articleView.html?idxno=406769>
- 경향신문. “2020년 ‘X세대’ 왜 진보가 됐을까”. (2020.10.24) <https://www.khan.co.kr/article/202010241128001>
- 경향신문. “‘X세대’ 아직 안 늙었네…1970년대생, 가장 진보적”. (2016.12.12) <https://www.khan.co.kr/article/201612121745001>
- 경향신문. “‘밀레니얼’과 ‘586세대’ 사이에 낀 ‘X세대’, 40대가 된 그들은 누구인가”. (2019.8.27) <https://www.khan.co.kr/article/201908271938001>
- 경향신문. “일본 자동차 불매…여성·40대 소비자가 주도”. (2019.8.13) <https://www.khan.co.kr/article/201908131516001>
- 뉴스1. “제주 국제관함식 육일기 논란…우리 국민이 ‘육’하는 이유”. (2018.10.8) <https://www.news1.kr/politics/diplomacy-defense/3443708>
- 뉴스포스트. “[1970년대 어린이잡지]④ 반공 만화 혹은 일본 만화”. (2022.4.14) <https://www.news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98144>
- 내일신문. “20대 여성, 민주당 지지 압도적…30대 남성, 여당 더 지지”. (2025.1.3) <https://m.naeil.com/news/read/534145>
- 동북아역사재단. “2030세대가 생각하는 한일·한중 관계와 역사문제 - 2024년 ‘역사문제와 한일 및 한중관계 관련 여론조사’ 결과”. (2024.8.13) <https://www.nahf.>

- or.kr/gnb02/snb03.do?mode=view&cid=69519
- 동아시아연구원. “국민 10명 중 4명 “일본에 호감”...조사 이래 최고 수준”. (2024.9.19)
https://www.eai.or.kr/new/ko/etc/search_view.asp?intSeq=22978&board=kor_eaiinmedia
- 동아일보. “유니클로, 韓서 1조 육박 매출 올려...“노재팬 영향 벗어났다””. (2023.12.11)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31211/122578690/1>
- 동아일보. “출판가 ‘日流’... 日소설 점유율 한국소설 첫 추월”. (2018.12.19) <https://www.donga.com/news/Culture/article/all/20181219/93363787/1>
- 동아일보. “하이볼에 취한MZ세대...낮은가격, 다양한맛에 인기‘하이’”. (2023.9.20)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30919/121261496/1>
- 머니투데이. “‘닛산 철수설’까지...40대 분노가 보여준 수치”. (2019.9.12)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91214023015542>
- 매드클립. “‘알파 세대’ 독서 생활 키워드는 “문학 팬덤 구매·J-콘텐츠””. (2024.7.13)
<https://www.ddaily.co.kr/page/view/2023041409531094586>
- 매일경제. ““가볍게 한 잔 할래?” 하이볼에 취한 2030...소·맥은 김했다”. (2024.9.31)
<https://www.mk.co.kr/news/economy/11117564>
- 매일경제. “일본인 2명 중 1명 “지금 한일관계 좋다...한국에 친밀감””. (2024.6.11)
<https://www.mk.co.kr/news/world/11038572>
- 서울신문. “[K-코믹스 신한류 이끈다] ③ 1970~80년대 만화를 말하다”. (2012.5.7)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507018001>
- 서울신문. “80년대 시티팝 듣고 약과 즐기는 1020? ... Z세대 사로잡은 ‘힙’한 옛날 문화”. (2022.5.9) <https://www.seoul.co.kr/news/economy/2022/05/09/20220509500179>
- 세계일보.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日 불매운동 확산”. (2019.7.4) <https://www.segye.com/newsView/20190704512335>
- 스타데일리. ““한일가왕전’ 관련 성별·연령별 관심 공개, 50대 여성 선호”. (2024.5.9)
<https://www.stardail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8146>
- 아시아경제. “‘화이트리스트 제외’ 최악으로 치닫는 한·일 국민감정”. (2019.8.2) <https://cm.asiae.co.kr/article/2019080210462854557>
- 연합뉴스. “[박스오피스] 스즈메의 문단속·슬램덩크, 1·2위...일본 애니 강세”. (2023.3.13)
<https://www.yna.co.kr/view/AKR20230313087500005>
- 연합뉴스. “日, ‘레이더 문제’ 연일 증폭...韓과 외교갈등 키우나”. (2018.12.26) <https://>

- www.yna.co.kr/view/AKR20181226092000073?input=1195m
 연합뉴스. “日 ‘수출규제’ 3개 품목, 일본산 수입 의존도 최고 94%”. (2019.7.1) <https://www.yna.co.kr/view/AKR20190701169700003>
- 외교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문”. (2023.3.6) https://overseas.mofa.go.kr/www/brd/m_4076/view.do?seq=369840
- 외교부. “한·일 외교장관회담 결과(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 내용)”. (2015. 12.28) https://www.mofa.go.kr/www/brd/m_4076/view.do?seq=357655
- 일본관광청. “Trends in Visitor Arrivals to Japan”. <https://statistics.jnto.go.jp/en/graph/#graph--inbound--travelers--transition>
- 조선일보. “[유석재의 돌발史전] 한국 20대 후반 남성, 對日 호감도가 74%라고?”. (2024.08.30) <https://www.chosun.com/culture-life/relion-academia/2024/08/30/AUPESFSXTBBEXPBECMT4BWXTM/>
- 조선일보. “100일간 190만 관객… ‘反日 불매운동’ 잠재운 日애니의 경제학”. (2023.7.30) <https://www.chosun.com/economy/industry-company/2021/05/07/STUWSX3JGJDQPOAXYRTTITHSGHA/>
- 조선일보. “2030세대 57% “일본에 호감”... 중국은?”. (2024.8.23) <https://www.chosun.com/culture-life/relion-academia/2024/08/14/UGMNFPOGUNH6JL72HXSZZJCPCM/>
- 조선일보.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후폭풍…수령에 빠진 한일 관계”. (2018.10.30)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30/2018103002655.html
- 파이낸셜데일리. ““하이볼 매출, 와인·양주 넘어섰다”…하이볼 비중 2022년 8.3% 지난해 36.3%”. (2024.2.7) <http://www.fdaily.co.kr/news/article.html?no=92944>
- 한겨레. “나이·국경·플랫폼 넘어 경계를 베어낸 ‘귀멸의 칼날’”. (2021.5.15)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95326.html
- 한국관광공사. “국가별 방한관광객통계”. <https://datalab.visitkorea.or.kr/datalab/portal/nat/getForTourDashForm.do>
- 한국경제. “[천자 칼럼] 80년대생이 왔다”. (2021.11.18)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1111890651>
- 한국경제. “[특파원 칼럼] 1980년대 일본, 요즘의 한국”. (2011.7.4) <https://www.hankyung.com/article/2011070468281>
- 한국경제. “아사히맥주 품질사태, 너도나도 일본여행…MZ는 ‘예스재팬’”. (2023.9.6)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9069175g>

한국일보. “[여론 속의 여론] 일본 불매운동이 국뽕? 2030은 자신감에, 60대는 국가 위해”. (2019.9.7)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9051770734876>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일본대중문화개방”. <https://www.archives.go.kr/next/new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3027&sitePage=>

헤럴드경제. “반도체 볼모…日, 징용판결 경제보복”. (2019.7.1) <https://biz.heraldcorp.com/article/2037749>

헤럴드경제. “한미 정상회담 뒤 ‘日호감’ 여론 증가…北中 호감도는 변화 없어”. (2023.6.6) <https://biz.heraldcorp.com/article/3140755>

HUFFOIST. “3040 남성보다 1020 여성 관객이 더 찾게 된 ‘슬램덩크’: 전문가들마저 예상 못한 결과는 ‘이 현상’ 때문이다”. (2023.4.19) <https://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208753>

KBS. “[문화광장] 올해 일본 소설 판매량 82만 권…역대 최고”. (2017.11.07)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3568002>

KBS. “20·30세대 해외여행 선호지 1위는 일본”. (2023.8.23)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754913>

KBS. “‘너의 이름은.’ 애니메이션·소설 열풍, 20대 남성이 이끌었다”. (2017.1.21)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3415496>

KTV 국민방송. “새로운 복고…10~20대 ‘뉴트로’에 빠지다”. (2019.2.19) https://m.ktv.go.kr/program/again/view?content_id=570319

内閣府. “外交に関する世論調査” <https://survey.gov-online.go.jp/r05/r05-gaiko/#gaiyo>

ASAN
REPORT

한국인의 일본 인식(2014~2024): “세대와 이념”을 넘어설 수 있을까?

발행일 2025년 4월

지은이 최은미, 함건희

펴낸곳 아산정책연구원

주소 (03176)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1가길 11

등록 2010년 9월 27일 제 300-2010-122호

전화 02-730-5842

팩스 02-730-5849

이메일 info@asaninst.org

홈페이지 www.asaninst.org

편집 디자인 EGISHOLDINGS

Copyright © 2025 by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ISBN 979-11-5570-304-5 95340 (PDF)



9 791155 703045 (PDF) 95340
ISBN 979-11-5570-304-5